

이야기

부노개

고두영 지음



그 바위 홀로 섰고
그 여자 우뚝 섰네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바위가 이 여자 아니면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쏘나
남강의 외로운 바위끼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장수문화원



曉山 高斗永

■ 경력

- 전북 장수 출생
-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교직경력 40년 (교사, 교감, 장학사, 교장)
- 제8회 모범공무원 수상
- 자랑스런 전북인상 수상
- 장수군민의회 문화장 수상
- 새한국 향토문화 기수상 수상
- 국민훈장 목련장
- 현 : 장수 교육행정 자문위원장
전북 도정 Monitor
우리얼 모임 고문
계남장학회 · 산악회 회장

■ 문학활동

- 월간 「장르」 시천료로 등단
- 「국어 문예 창작회」 우수작품상 당선
- 거목문학회, 봉명문학회, 두리문학회
- 전북문협회원
- 장수문학회 회장

■ 저서

- ① 주논개와 임진란
- ② 겨레의 여신 주논개
- ③ 전해산 장군 전기
- ④ 교단 낙수
- ⑤ 빛바랜 엉머구리 올림통
- ⑥ 「이애미」 주논개

「이애미」 주논개

장수문화원

「이애미」주논개



발간사

김진영/장수문화원장

우리 고장 장수는 삼절(三節) 사의(四義)의 전통에 빛나는 고장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인심고박(人心古朴)이요, 태고순풍(太古淳風)이며 울고 왔다 울고 간다는 꾸밈없이 생긴대로 인정있고 착한 고장으로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삼절이란 임진왜란시 살신성충한 의암 주논개 열사를 위시하여 정유재란의 병화에서 목숨을 걸고 장수 향교를 지킨 정경손 충복과 또한 자기가 모시던 조종면 현감이 낙마하여 횡사하자 그를 따라 순사한 통인 순리 백씨이다.

그리고 사의로는 한말 왜국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켜 국권회복에 투쟁한 의병장 전해산(全海山), 문태서(文泰瑞), 박춘실(朴春實) 의병장과 또한 기미년 3·1 독립만세의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독립만세를 선도하신 백용성(白龍城) 조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빛나는 절의의 으뜸으로 주논개 열사를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고 있으며 열사는 임진왜란의 국난에 처하여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서 기생으로 가장하여 왜군의 진주성 함락 승전연에 뛰어들어 왜 성공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목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 나라의 위기

를 구하고 순국하신 역사상 가장 기록하신 충절의 넋은 죽어서 죽지않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뜨겁게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국의 사적이 뚜렷함에도 당시 우리의 사회 풍조가 관준민비이니, 반준상비이니, 남준여비의 폐단 때문에 논개 열사의 순국사실이 무시 말살 당하여 버리어 오늘날에 그 자취를 찾을 길이 희미하여 사적 적립에 오래도록 우리들을 이토록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불사조로 살아 숨쉬는 열사의 영혼의 계시에 의하여 오랜 세월 그 사적을 추적 연구 정립하기에 힘써온 고두영 시인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발굴조사하여 지상에 발표하여 온 내용을 여기에 수정 보완을 통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일에 힘써온 고두영 시인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작품이 논개 열사의 사적 적립과 충효렬의 얼 계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축간사

金祥斗/長水郡守

인간의 삶의 질은 문화의 질에 의하여 결정지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을 드높이기 위하여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그 지난 자취가 바로 전통문화이며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찾고 되새기는 것은 그 시대의 공동체가 간직했던 전통과 역사가 추구했던 전체성이 무엇이나를 되찾아서 오늘에 재조명, 미래를 보다 새롭게 설계하여 보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고장은 지난 시대의 전라좌도 인맥에 깊은 뿌리로한 3절 4의의 빛나는 절의의 고장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온 사적이 바로 구국의 여신 주논개 열사의 사적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고장에서는 그 숭고한 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하여 온 군민의 정성을 모아 의암사(義巖祠)를 건립 성역화 하였으며 1987년에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열사의 생가도 제대로 복원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매년 음력 9월 3일 논개 열사 탄신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논개제전의 다채로운 추모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높으신 얼을 보다 깊이 전체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심어 주기 위하여서는 기념적인 행사와 더불어 그 사적의 문헌적인 연구의 정립과 일반화가 보다 중요하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입장을 보다 성숙시키기 위하여 오랜 세월 향토사 연구에 집착해 오던 장수문학회 회장이신 고두영 시인께서 그동안 논개 열사의 사적을 수차에 걸쳐서 수집, 조사, 정리, 발표하였던 문헌들을 여기에 한데 모아 수정 보완을 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 작품을 통하여 모든이에게 논개 열사의 사적 정립과 살신성충의 높으신 얼 계승 바로알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 책자 발간에 깊이 연구 집필하신 고두영 시인의 노고와 발간에 노력하신 김진영 원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축간사

鄭喜澤/장수군 의회의장

朱論介님은 우리 長水郡이 자랑으로 삼는 忠節의 表象입니다.

우리는 이 분의 誕辰日을 郡民의 날로 定하여 그 崇高한 뜻을 받들고 있으며 長水郡民의 精神的 支柱로서 民族的인 矜持와 얼을 繼承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義妓』라는 呼稱에 대해서는 그 분의 崇高한 뜻이 歷史앞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活動이 繼續 이어지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고장의 鄉土文學을 代表하고 계시는 시인이신 고두영 先生께서 “『이애미』 주 논개”라는 冊을 出刊하게 되어 더욱 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삼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우리 長水는 자랑스런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있으며 人心이 醇厚하여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 고장을 豊饒롭게 가꾸는 主人이라고 郡民憲章을 公布하고 있습니다.

由緒깊은 歷史와 많은 文化遺産, 土俗的인 가락을 考證할만한 資料들이 整理되지 못하고 散在되어 있는 아쉬움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長水郡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諸賢들의 뜻이 이어지고 있음은 가슴 뿌듯한 希望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先生께서는 우리 고장을 代表하는 文學人으로서 일찍이 펴낸 代表的인 著書로 『임진왜란과 주논개』, 『겨레의 여신 주논개』 『교단낙수』, 『빛 바랜 엉머구리 울림통』 등 좋은 冊들을 出刊하고 있으며 長水文學會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므로 冊을 出刊함에 있어서 長水의 얼과 郡民의 自矜心을 한껏 높여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冊을 펴내기 위해서 刻苦의 努力을 쏟아주신 고 두영님, 長水文化院長 김진영님 그리고 출판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김상두 군수님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를 드리며, 長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뜻이 繼續 이어지기를 期待합니다.

논개는 누구십니까?

논개의 순국이후 사백여 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 동안 끈질기게 물음을 던져온 ‘논개는 누구십니까?’라는 물음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지난 어린시절 일제의 시퍼런 칼날 학정 밑에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들일을 하시면서 숨어서 들려 주시던 ‘진주 기생 「이애미」는 우리 나라 건지려고 왜장 청정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네……’라는 민요가락이 60여 년이 지난 지금껏 기억속에 생생하다.

이 노래속에 논개가 진주 남강에 수장시켜버린 왜장이 가등 청정(加藤清正)이라 통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설에는 귀전통치(貴田統治)이니 석종로(石宗老)이니 또한 입화종무(立花宗茂)이니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라는 설 등이 분분하다.

그런가 하면 논개의 신분에 있어서도 진주기생이다, 진주관기이다, 아니다 장수관기이다, 아니다 장수 주씨 문중의 양가집 규수이다 등등으로 신분 문제 역시 구구하게 이설이 난무하기만 하다.

또한 심지어 논개는 실존인물이다 아니다, 가공인물이다 아니다 라고 그 바탕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이설도 더러는 있기

도 한다.

이러한 많은 이설 가운데 과연 논개는 누구십니까?

한 아녀자가 기구한 운명에 살다 스스로 선택하여 절명한 지 사백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출생, 신분, 생애, 절명에 대한 이설이 분분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은 필경 논개라는 그 인물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둘 수 없는 꼭 연구하여야 하고 고증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음일 것이다.

논개는 누구십니까? 자꾸만 물어오면 답답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풀려고 해도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을 가장 근사치로 접근하여 보려고 반평생을 추적, 찾아내고 정리한 내용을 미흡하나마 여기에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기로 한 것이다.

제1장에 수록한 ‘남강은 말없이 흐른다’의 작품은 이제까지 장수 고을에서 구전·설화 등으로 내려온 내용들을 수집,정리하여 1980년에 소설형식으로 엮어 발표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수정보완을 하여 실었으며,

제2장의 ‘주촌에 뜨고 지는 달 그림자’는 논개는 누구십니까? 라는 미완의 해답을 풀기 위하여 1996년 장수군에서 개최

하였던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 세미나에서 출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내용을 풀어서 쓴 것이며.

제3장의 ‘죽음보다 깊은 벼릿줄’은 1978년에 문교부에 ‘논개와 임진란’이라는 국민 정신 교육을 위한 국난극복 영상 교육 자료안을 제출하여 이게 우수하게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수만부를 복사·배부, 교육적으로 활용되었던 원안을 수정 보완하여 여기에 실었다.

끝으로 제4장의 ‘불사조로 살아 숨쉬는 의암’은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가장 신빙성 있는 고전 문헌과 금석문을 더듬어 가면서 가장 가치로운 실존적 인물로의 고귀한 삶을 밝혀보려고 접근한 장수문학 제7집에 게재된 내용을 보완하여 같이 실었다.

논개가 탄생한 지 423년, 가신 지 403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논개의 생애와 순국정신이 하나의 뚜렷한 정설로써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들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이에 그 진실성에 접근하여 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다각적인 면에서 찾아내어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이른 것이다.

동서 고금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우리의 청사에 길이 빛날

도 한다.

이러한 많은 이설 가운데 과연 논개는 누구십니까?

한 아녀자가 기구한 운명에 살다 스스로 선택하여 절명한 지 사백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출생, 신분, 생애, 절명에 대한 이설이 분분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은 필경 논개라는 그 인물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둘 수 없는 꼭 연구하여야 하고 고증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음일 것이다.

논개는 누구십니까? 자꾸만 물어오면 답답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풀려고 해도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을 가장 근사치로 접근하여 보려고 반평생을 추적, 찾아내고 정리한 내용을 미흡하나마 여기에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기로 한 것이다.

제1장에 수록한 ‘남강은 말없이 흐른다’의 작품은 이제까지 장수 고을에서 구전·설화 등으로 내려온 내용들을 수집, 정리하여 1980년에 소설형식으로 엮어 발표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수정보완을 하여 실었으며,

제2장의 ‘주촌에 뜨고 지는 달 그림자’는 논개는 누구십니까? 라는 미완의 해답을 풀기 위하여 1996년 장수군에서 개최

하였던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 세미나에서 출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내용을 풀어서 쓴 것이며.

제3장의 '죽음보다 깊은 버릿줄'은 1978년에 문교부에 '논개와 임진란'이라는 국민 정신 교육을 위한 국난극복 영상 교육 자료안을 제출하여 이게 우수하게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수만부를 복사·배부, 교육적으로 활용되었던 원안을 수정 보완하여 여기에 실었다.

끝으로 제4장의 '불사조로 살아 숨쉬는 의암'은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가장 신빙성 있는 고전 문헌과 금석문을 더듬어가면서 가장 가치로운 실존적 인물로의 고귀한 삶을 밝혀보려고 접근한 장수문학 제7집에 게재된 내용을 보완하여 같이 실었다.

논개가 탄생한 지 423년, 가신 지 403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논개의 생애와 순국정신이 하나의 뚜렷한 정설로써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들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이에 그 진실성에 접근하여 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다각적인 면에서 찾아내어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이른 것이다.

동서 고금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우리의 청사에 길이 빛날

논개 열사의 사적에 깊은 관심을 가진 모든 분에게 이 작은 책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더없는 바람이다.

1997년 3월 1일

효산 고 두 영

『이애미』주논개

차 례

발간사	김진영	8
축간사	金祥斗	10
축간사	鄭喜澤	12
책머리에/논개는 누구십니까?	고두영	14

1. 남강은 말없이 흐른다

가. 논개의 어린 시절	21
나. 민며느리로 팔리다	41
다. 억울한 재판	53
라. 어머니 대신 종살이	71
마. 임진왜란	104
바. 논개의 거룩한 죽음	112

2. 주촌에 뜨고 지는 달그림자

가. 논개 순국의 역사적 의미	135
나. 각 문헌상에 나타난 논개의 출생	137
다.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논개의 생애	156

3. 죽음보다 깊은 버릿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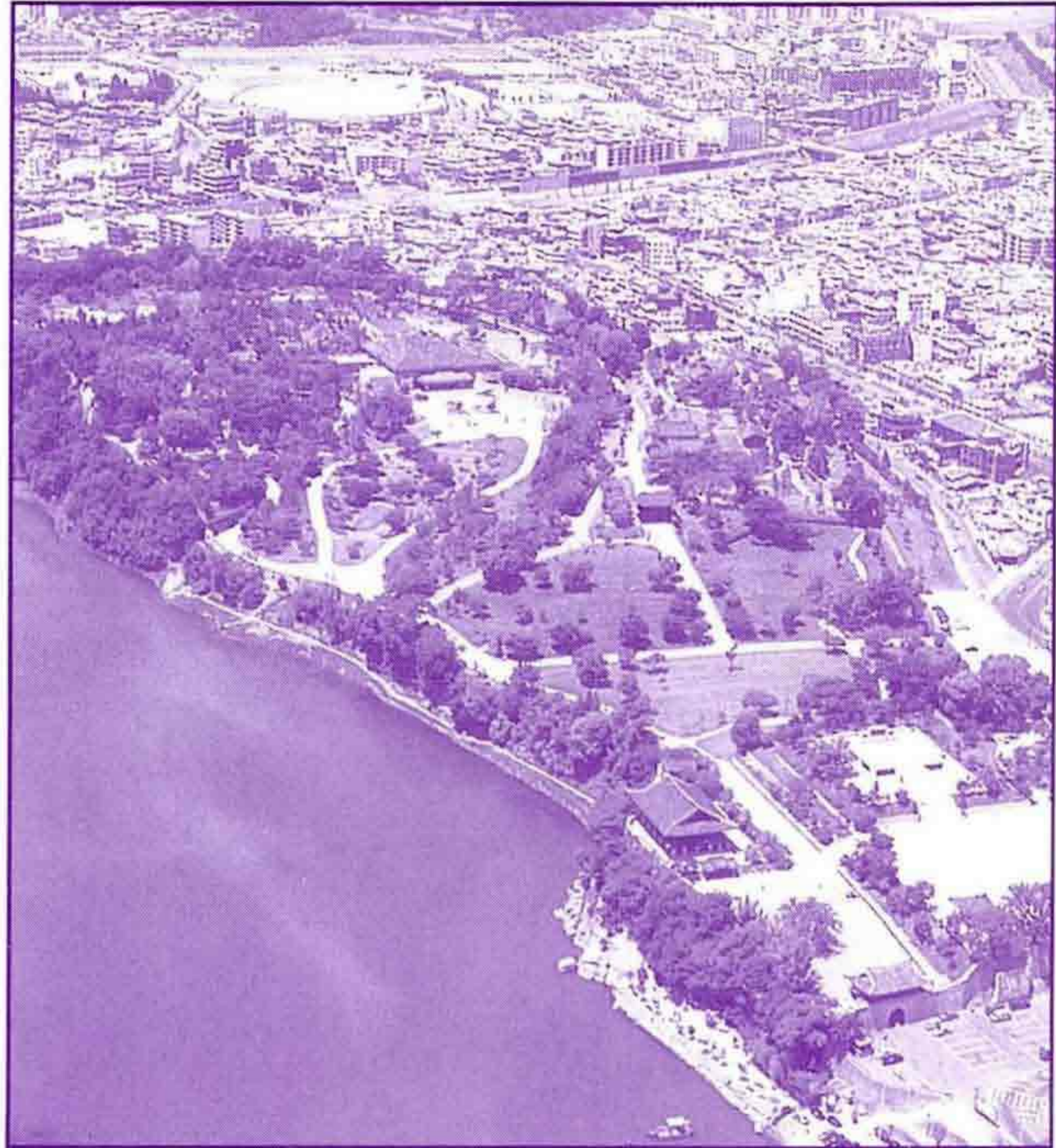
가. 죽음보다 깊은 버리	173
나. 붉은 버릿줄	190

4. 불사조(不死鳥)로 살아 숨쉬는 의암

가. 진주성 싸움과 논개의 순국	207
나. 논개는 누구십니까?	212
다. 단독 거사의 단충의 의미	220

제1부

남강은 말없이 흐른다



남강 축석루

논개의 어린 시절
민며느리로 팔리다
억울한 재판
어머니 대신 종살이
임진왜란
논개의 거룩한 죽음

남강은 말없이 흐른다

논개의 어린 시절

“오요요…….”

“오요, 오요, 오요.”

“용타, 우리 복슬 강아지. 잘 따라온다.”

“어서 오너라. 요리조리.”

이제 막 주학자 글방에서 글을 읽다 잠시 쉬는 틈에 열살 남짓한 머슴애들 대여섯 명이 쥐꼬리 같이 따내린 머리채를 흔들며 쪼르르 언덕길을 내달아 마을앞 냇가 팽나무 곁 놀이터로 달려 가면서 제각기 뒤돌아 보며 지껄여대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제친다.

그 머슴애들을 뒤 쫓듯이 따라 내려온 노란 치자물을 들인

마고자 베적삼에 까만 동방치마를 입은 칠팔 세 가량 보이는
예쁘장한 두 계집애가 잔뜩 화를 내며,

“조것들이 또 까불기 시작하는구나!”

“또 사람을 개 부르듯이 하고 놀리기 시작한다. 나쁜 자식
들.”

“애, 논개야. 조것들이 꼭 너만 보면 못 살게 군다야.”

“우리 엄마한테 일러버릴 테야.”

“애, 논개야. 그만둬. 너의 엄마한테 이르면 큰일 난다. 야!
그렇지 않더라도 너의 아버지 무섭지 않니. 글방 선생님 회
초리를 많이 꺾어다 서당방 구석에 세워두지 안하였던? 엄
마한테 일르면 너의 엄마는 너의 아버지에게 여쭙어 저것들
매 타작한다야.”

“그럼 어떡하니. 늘 나만 보면 개 부르듯이 하니 말이야.”

“그것은 하는 수 없지 뭐.”

“왜 하는 수 없니?”

“그건 네 이름이 실제 개인 걸 어떻게 하니.”

“아니, 요것이. 너마저 나를 개로 여길래?”

논개는 끝순이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팔뚝을 꼬옥 꼬집는
다.

“아야야……. 아무리 꼬집어도 개는 개인 걸 어떡하니.”

“아니? 요게 요게.”

끝순이는 논개의 손에서 빠져 나와 머슴애들이 간 쪽 놀이
터로 달려간다.

논개는 화가 잔뜩 나서 뽀루뽀한 채로 터덕터덕 따라가고 있었다.

“논개야! 이제 나는 안 그럴게. 우리 바꿈이나 살자.”

논개는 금방 풀어져서 불그레한 볼에 웃음을 띄우고 늘 차리고 놀던 바꿈살이터로 간다.

“논개야! 오늘은 네가 각시해라. 내가 신랑할게. 신랑이 늘 방아만 찧으니, 네가 신랑하면 팔 아프지 않겠니!”

“아무렇게나 해.”

“그럼, 나는 방아 찧는다. 너는 반찬 장만하고 밥 지어라.”

끝순이는 늘 방아 찧는 돌 바위 위로 가 뽀쪽한 절구대 같은 돌로 움푹 파인 곳에 모래를 넣고 찧으며 돌가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얼마나 매일 같이 찧었는지 돌바위는 두 군데가 알곡식 두 홉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움푹 파여져 있다.

“끝순아, 쌀이 떨어져 밥 못하겠다. 쌀 빨리 가져 오너라.”

“좀 있거라야. 방아 찧는 게 그리 신 줄 아니.”

“애, 논개야. 밥 좀 있다하고 애기 젓이나 좀 먹이렴. 애기가 배고파 울지 않니.”

“아참, 그렇군. 우리 아기 어디 갔을까. 놀러 나갔나.”

하며 논개는 어제 놀 때 물구를 캐어서 예쁘게 만들어 두었던 뽀얀 물구애기를 두리번 찾는다.

“해해 여기 있었구나.”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 두었던 물구 애기를 추켜들며,

“응응. 우리 애기 배 고팠지.”

하며 젓 먹이는 시늉을 하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멍멍 개도 짓지 말고 꼬꼬 닭도 울지 말고 우리 아기 잘 자거라.”

하며 애기를 얼리고 재우는 시늉을 한다.

돌가루를 빵아서 사금파리 밥그릇을 채우고 풀나물을 뜯어다 잘라서 투가리 조각 찬그릇을 채우며 밥상을 아기자기 차려 놓고 권커니 먹거니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때 냇가로 몰려가서 고기를 몰던 머슴애들이 우루루 논개와 끝순이가 바꿈살이 하는 곳으로 몰려들어

“아이구. 우리도 배 고프다.”

“밥 좀 줘라. 밥 좀.”

“아니, 이것들이. 저리 못 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짝궁하여 바꿈 좀 살자.”

“애 애. 논개야. 예쁜 논개야. 내가 네 신랑할께.”

머슴애들이 바꿈살이 속으로 파고들며 논개를 잡으려 한다.

논개는 고사리 같은 주먹을 들어

“요것들이. 저리 못가!”

하며 밀어 부쳤다. 그러자 말뚝꾸러기 순식이가 돌에 걸려 비실비실하다 넘어졌다.

제김에 넘어진 순식이는 일어서며 골이 잔뜩 올라

“요, 너 암캐가 나 밀었지. 심술부린다.”

하며 달려들어 아기자기 꾸며진 바꿈살이를 발로 이리저리 두

어 번 휘저어 버리고 글방 쪽으로 달려가며

“공부하러 가자.”

하며 머슴애들이 달려가 버린다.

아기자기 차려놓은 논개와 끝순이의 바꿈살이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요 개망나니 자식들.”

흙을 쥐어 던지고 분해 하며 눈물을 찔끔 짜낸다.

“논개야, 이제 가자. 우리끼리 뭐 재미있니.”

“애가 그럼 누구끼리 재미있니.”

“그리도 머슴애들이 봐 주어야지. 그런데 언제나 머슴애들이 논개 너만 건드리고 예뻐해서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야. 나는 이제 너하고는 바꿈 안살 거야 재미없어.”

“애가, 쪼그만한 가시내가 우습다야. 너나 실컨 머슴애들하고 바꿈살이 해라. 나도 안산다.”

논개와 끝순이는 금방 토라져서 서로 헤어져 저희들 집쪽으로 가버린다.

논개가 언덕길을 막 접어들 때 집쪽 문 앞에서

“논개야, 논개야! 점심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 어머니, 지금 올라가요.”

하며 집 앞에 이르자

“애, 논개야! 너 울었구나. 누구랑 싸웠니?”

“아 — 니.”

“그럼, 왜 눈물 자욱이 있느냐?”

“순식이 자식이랑 머슴애들이 나더러 늘 강아지, 복슬 강아지, 암캐! 하고 늘 놀려대고, 금방도 그랬어. 바꿈살이 한 것도 막 발로 밟아버리고 심술부렸어. 그래서 분해서 울었지, 뭐.”

“그 녀석들. 그 것들이 내가 귀여워서 그런가부다. 글방 선생님 외동딸에다 생긴 것도 예쁘고 공부도 저희들보다 잘하고 하니까 시새워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시새워서가 뭐예요?”

“응, 그것은 저희들이 너보다 글 공부를 못하니까 샘을 부리는 거지.”

“아니, 그럼 나 글 공부 하지 말까? 머슴애들이 안 까블게.”

“아니야, 아니야. 그럴수록 글 공부를 잘해야 그 애들이 너를 높게 본단다. 그리고 안까불고.”

“어머니, 그런데 그 애들은 나만 보면 늘 오요, 오요 하며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지? 내 이름을 왜 개라고 지었어? 이름 고쳐줘.”

“머슴애들이 늘 그렇게 놀리던.”

“응, 그래요.”

“응, 그건 그럴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개’니까 그렇지.”

“뭐요? 제가 ‘개’ 요? 엄마도 똑 같네. 엄마, 싫어.”

“아니다, 개가 아주 좋은 이름이란다. 너를 위하여 개라고

이름을 진 것이야. 이제부터 개하고 이름을 지은 이치를 이야기 할 터이니 잘 들어보렴. 너는 우리 집안의 귀한 무남독녀란다. 너를 낳기 전에 대룡이라는 너의 오빠가 하나 있었지. 그런데 열다섯살 때 그 몹쓸놈의 열병에 걸려 원통하게도 잃어버렸단다.”

논개 어머니는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며 눈에 이슬이 맺힌다.

눈물을 흘리고 난 논개 어머니는

“그래서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을 얻으려고 동네 숲거리에 있는 서낭당에다 지성으로 삼년간 산신공을 드렸지.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점지하여 주셔서 너를 낳게 되었단다. 네가 딸이라 좀 섭섭하였지만 아버지도 기뻐하고 온 동네가 경사났다고 좋아했단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귀여운 외동딸이라 잘 키워야 한다고 하며 명이 길고 잘 자랄 수 있는 이름을 지어 주려고 사주를 짚어 보았더니 그게 희한하더란다.”

“어머니, 그래 뭣이 그리 희한해요?”

“잠자코 들어보아라. 글썬 너의 난 생일 사주가 육갑이라는 것으로 따져보니까 글썬 희한하게도 개해, 개달, 개날, 개시 네개가 겹쳐져서 그 사주로 보면 네가 아주 천하에 미인이고, 잘 생기고, 똑똑하고, 재주있고, 큰 일을 할 팔자로 참으로 좋은데 명이 조금 짧다고 쾌가 나오더란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참으로 금지옥엽같이 귀엽잖니. 명이 제일이지 딴

것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래서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너의 명을 이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 이름을 천한 이름으로 지으면 명을 잇는다는 말을 듣고 네 사주가 네 개의 개로 겹쳤으니까 개를 낳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큰골이 경상도 말씨를 쓰니까 너를 두고 ‘놓은개’가 된 거야. 그래서 ‘놓은개’는 이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줄여서 ‘논개’로 부르게 했단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논개가 되었군요. 그럼 제 이름을 자꾸 개라고 천하게 부르면 명이 이어지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머슴애들이 개라고 놀려도 속이 덜 상할 것이니라.”

“응, 인제 어머니 알았어요. 아버지의 고마우신 뜻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밥 줘요. 아이, 배 고파.”

정신없이 배 고프다고 반석이 보리밥을 된장국에 퍼 먹더니 금방 배시시 옆으로 누워 한여름이지만 아릅드리 나무가 우거진 첩첩산중 언덕밭이 외딴 집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시원함에 취하여 색색거리며 고요하게 깊은 낮잠에 빠져 버리고 만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논개를 내려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이게 뭣이 되려고 요렇게 참하고 총명할까, 귀엽기도 하지.’

하며 가만히 볼을 만져본다.

‘다만 건강하게 탈없이 잘 자라게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외워본다.

논개 아버지의 글방은 인근에서 공부 잘하는 학당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논개 아버지 주달문은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선비였다. 그의 할아버지 주용일 역시 통정대부를 지낸 바 있는 좋은 집안이다. 삼대째나 이 큰골에서 살아 온 집안이며 할아버지는 고사리 고을에서 서당을 차렸었다. 처음으로 섬바위골 개울 건너 외딴 곳에 잡은 집터를 아버지는 이 마을을 주씨마을, 주촌이라 새로 마을 이름까지 짓고 서당을 차리어 글을 잘 가르쳐 내려오므로 이곳 글방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학식이 뛰어나고 사람됨이 분명하여 인근에서 모두 주학자로 명성이 높아져 문하에서 글공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달문은 항상 슬하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논개를 가르키어

“이것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안 대를 이을 수 있고…….”

하며 아쉬워 하였다. 그럴라치면 논개는

“아버지, 제가 대를 이으면 되지 않아요.”

하여 온 집안을 웃기기도 하였다.

매년 상달이 닥치면 주학자는 장수 향교와 고을에 있는 서원과 사당에 제사지내는 데 참석하느라 며칠씩 글방을 비우는 일이 있었다. 며칠이 안되지만 글방을 비우는 것을 여간 꺼리

는 성미였다.

글방을 비운 날이면 가기 전에 글방 아이들에게 자습할 곳을 자세히 일러 주고 떠나며 논개에게도 네가 암전하게 공부하면 남자 아이들도 따라 공부할터이니 더 열심히 책을 읽으라고 하며 떠나시곤 하였다.

그날도 장수 선창리 황각골 건너 양선에 있는 조선 초기의 청백재상 황희 정승을 모신 창계서원 가을 제사가 있어 글방을 비우게 되었다.

논개는 아버지의 당부도 있고 하여 제자리에서 단정히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다. 글방 아이들은 아침나절 한때까지는 제법 암전하게 글을 읽더니 저녁때 들어서면서는 글방 생도장 말도 안듣고 제각기 밤나무가 되어버리고 태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논개가 평소와 같이 암전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 책을 빼앗아 던지고 하며

“오요개, 복슬개, 껏껏 책 잘 읽는다.”

하고 순식이 녀석이 먼저 논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딴 머슴애들이 따라 놀려대기 시작한다. 그러다 실퍽하면 밖으로 나가 버린다.

어머니에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아이들의 놀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늘 귀찮을 지경이다.

논개는 조용히 그리고 곰곰히 생각하였다.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못 까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벼루와 붓을 챙기고 종이를 꺼내어 펴고,

화고 인 부절(花高人丕折)

초성 구 난행(草盛狗難行)

하고 글씨를 단정하게 써 내려갔다.

그리고 잘 보이는 글방 벽에 붙이고 저만치 물러서서 자세
히 한 번 바라보고 웃었다. 그리고 논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밖에 나가 놀던 아이들이 또 우르르 글방으로 몰려 들어왔
다.

한 아이가

“애들아, 이것 봐라.”

하며 벽에 걸린 글귀를 살펴 더듬어 읽기 시작하였다.

화고 인부절 — 꽃이 높으니 꺾지 못하고

초성 구난행 — 풀이 우거지니 개가 다니기 힘들다.

“애들아, 이봐라. 논개가 지은 거야.”

“아주 대단한데. 어린 것이 언제 이렇게 글재주가 늘었니.”

“글씨도 얌전하게 잘도 썼구나.”

“이것 우리는 야단났구나.”

모두 각기 한마디씩 지껄이다가

“야! 이 글귀의 뜻이 뭘이지?”

“꽃은 무엇이고 또 개는 무엇일까?”

하고 민규가 묻자

“야! 야! 개는 논개지 뭐야.”

하자, 모두가 까르르 웃었다.

“아니야, 아니야. 잘 새겨 봐. 그게 아니고 분명 논개의 개가 아니고 우리를 가르킨 것 같아야.”

“화고 인부절. 꽃이 높으니 꺾지 못하고는 논개가 저를 가르킨 것 같고, 초성 구난행은 풀이 우거지니 개가 못간다는 분명 우리의 흐트러진 태도를 나무라는 것 같구나.”

“야! 야! 그렇다면 이것 우리가 단단히 한대 얻어 맞았구나.”

생도장은 모두를 둘러보고 어린 동생만도 못한 논개한테 혼났다 하며,

“야! 야! 우리도 무시 안당하도록 정신차리고 글공부 열심히 하자.”

하며 모두에게 이야기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글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논개는 옆방에서 그들의 하는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속으로 혼자 웃었다.

“그래도 제법이야. 알아차리는 것이.”

하며 혼자서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들어 맞았음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주학자는 저녁 해질 무렵에서야 서원 제사를 마치고 싸리재를 넘어 섬밭들을 지나 꼬장백이 동네를 지나서 또 피나무재를 넘어 백화산 매봉재를 감돌아 큰 뒷골을 내려서 집에 이르

자, 글방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글을 안 읽고 떠들고 소리치고 시끌작할 터인데 이상하다 싶었다. 주학자는 글방을 들여다 봤다. 아이들이 글을 읽다 모두 같이 일어나서

“선생님, 안녕히 다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한다.

“오냐, 모두들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착하기도 하지.”

하자 석용이가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하고 가르킨 쪽은 논개의 글귀가 붙은 곳이다.

“저게 뭐냐?”

“논개의 글솜씨입니다.”

주학자는 한참 훑어보더니 어린 딸 치고는 너무나도 재치있고 또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속으로 탄복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 넘치 지나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쁘면서도 걱정을 하였다.

논개는 해를 더할수록 더 총명하게, 더 귀엽게, 더 아름답게 자라났다. 나이에 비하여 숙성한 편에다, 곱디고운 계란색 같은 흰 살색에 칠흑같은 머리채, 샷별같이 반짝이며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한 긴 눈썹을 가진 눈매며 알맞게 오뎅 솟은 코에, 앵두같이 야무지게 다문 작은 입, 누구나 한 번 보고 지나

칠 수 없는 귀여움이 철철 넘쳐 흘렀다.

글방 아이들은 논개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귀찮을 정도로 줄 줄이 따라 다녔다.

논개가 건너편 섬바위골에서 이쪽 덕유산 줄기가 힘있게 뻗어내린 민재 등성이에, 북바위가 뚜렷이 바라보이는 주촌으로 이사온 지도 벌써 십 년이 지나고 논개도 열 살의 나이에 접어 들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건강하기만 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하시던 아버지께서 선달 그믐께 장계장터 윗쪽에 있는 탑동골 이침지네 집에 초상이 나, 문상차 들러오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 지독한 고뿔에 걸리어, 며칠동안 심한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며 가래침을 수없이 뱉어내며 단단히 앓고 난 후부터는 좀처럼 기운을 못차리고 고뿔을 시름시름 앓으며 조식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한다.

논개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고사리골에 있는 당숙들 집에 들러 당숙한테 아버지 병환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당숙은

“야! 우리 논개 신통하다 참으로 우리 집안에 효녀 하나 났구나. 그까짓 고뿔쯤은 문제없다. 당숙이 단방약을 하나 마련하여 줄 터이니 따라가자.”

하며 당숙은 논개를 데리고 변덕말로 올라가 평소 봐 두었던 양지 바른 언덕에 이르러 겨울인데도 약간 파란 잎새가 붙어 있는 갈색 넝쿨을 가르키며

“야, 논개야. 이 풀 녁쿨을 뜯어라. 이게 인동 녁쿨인데 열을 풀고 진통을 하는데 신호가 있는 녁쿨이다.”

하고 논개더러 “뜯어라.” 하고 옆집 권생원들 집에 들어 가시더니 뭐라 한참 후에 대나무잎 한 줌 하고 헝겊에 한 주먹 정도 무엇인가 싸 가지고 나오며,

“웬만치 뜯었으면 그만 가자.”

하고 앞 선다.

논개는 궁금하여

“당숙, 그 가지신 것이 뭘이어요?”

“응, 내가 가르쳐 주지. 저 이것은 댓잎이고, 이 주머니 속에 것은 서무태콩과 겉보리이다. 이 인동 녁쿨을 잘게 썰고 댓잎하고 서무태콩 겉보리, 네 가지에 물 두 그릇 정도를 솥에 붓고 불을 때서 한 종발 정도까지 달이어 따뜻하게 하여 아버지께 드시게 하고 취한을 하면은 고뽕즙이야 거뜬히 낫는다. 빨리 가 해드려라.”

하고 당숙은 번덕말 갈림 길에서

“논개야, 조심하여 잘 가거라.”

하고 고사리골로 들어 가셨다.

논개는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단숨에 거자나무거리를 뛰어 달려 집에 돌아와 당숙이 시킨대로 약을 달여 아버지께 갖다 드리며,

“아버지, 이것 잡수셔요. 고뽕즙은 싹 낫는대요.”

“오 —. 우리 논개 참 착하구나. 논개야 애썼다. 이것 먹고

씩 나오마.”

하며 단숨에 약물을 쪽 마시고 취한에 드셨다.

논개가 지성으로 간병한 덕분인지 아버지 병 증세는 점차 좋아지고 봄을 지나 여름을 거치며 아무일 없이 잘 지나셨는데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아버지 기침은 조금씩 돌아나며 가래침을 뱉기 시작한다.

동짓달이 되면서 더욱 기침이 심해져서 장계 장터 박의원한테 가 진맥을 하였더니, 해수병에 걸리었다고 하며, 약을 한제가량 지어 오셨다. 그런데 약을 달여 먹을 때는 좀 나은 것 같다가도 먹고 얼마 안가서 또 기침이 성하기 시작한다.

하루는 섬바위골 방생원집 칠십객 되는 할머니가 놀러 건너 오셨다. 아버지 기침하시는 것을 보시고 논개더러

“야, 논개야. 저 해수병에는 약보다도 정화수가 제일이니라.”

“할머니! 정화수라니요?”

“정화수는 별 것이 아니고 너의 집 모퉁이에 있는 샘물이 약수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 오고 있지 않니?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샘물옆에 칠성당을 모셔 놓고, 한 종발 정도를 깨끗이 떠서 칠성당에 올려 놓고 ‘이 정화수를 마시고 아버지 해수병이 싹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빌고 늘 거르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정화수란다.”

“예, 그래요? 할머니 그게 정화수여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하겠어요.”

하며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논개는 바로 샘물 옆에다 깨끗한

돌을 주워다 칠성당을 차리고, 물그릇을 챙기었다.

아버지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논개는 샘가에 나가 정성으로 물을 떠서 칠성당에 바치고 지성으로 빌었다.

“이 정화수를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해수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빌고 난 다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게, 뭐냐?”

“아버지, 정화수이어요. 이 정화수를 아침, 저녁으로 꼭 드시면 아버지 해수병이 문제없이 낫는대요. 건너마을 방생원댁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응, 그렇다고 하던? 그런데 누가 귀찮아서 아침, 저녁으로 떠다 주겠니?”

“아버지, 그건 염려 마세요. 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빠짐없이 꼭 떠다 바치겠습니다.”

“오 — 기특도 하다. 우리 귀여운 딸.”

“아버지께서 정화수를 드시고 완쾌만 되시면 저는 더 이상 없이 기쁘오리다. 어서 드시어요.”

“오냐, 오냐.”

아버지는 쪽 들이마시고

“어이, 시원하기도 하지, 정말 낫는 것 같기도 하구나.”

논개는 그 후로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

나간에 한 번도 거르는 일 없이 정화수를 지성으로 떠다 바치었다. 그래서 그 효험인지 아버지 해수병이 많은 차도를 보여 온 집안이 화기에 차고 전과 같이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해는 또 바뀌어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낙엽이 지며 또 봄이 오고하여 계절이 바뀌면서 논개의 자태도 더욱 아름다워지며 여인으로서의 몸매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열세 살의 해가 닥쳐왔다.

아버지의 건강은 몇 해를 그런대로 논개가 지성으로 돌보는 덕택인지 별일 없이 잘 넘어 갔으나, 그해 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워 집집마다 땅속에 묻어둔 김치독이 모두 터질 정도로 강추위가 계속되었다.

그통에 주학자는 지독한 고뿔을 앓기 시작하면서 해수병이 재발하여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가래침 그릇을 옆에 끼고 앉아서 괴로워하게 되었다.

논개는 보다 못해 골말, 번덕말, 고사리골로 쫓아 다니며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다 지성으로 달여 드리었으나 이번 아버지의 병세는 날씨 탓인지 좀처럼 효험이 나지 않고 애타기만 하였다.

논개는 오늘도 개안들 골담에 있는 용하다고 하는 이의원 집에 가서 좋다는 약을 지어다 달여 아버지께 바치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골담 이의원 집에서 지어 왔어요. 이약

잡수시면 싹 낫는대요.”

“오냐, 오냐. 아이고 숨찬다. 애썼다, 애씨. 논개야, 이제 약수 바라지 그만 두어라. 이러다 너마저 몸살나고 큰일 나겠다. 이제 나는 살만치도 살았으니, 너나 조심하여라.”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저는 이렇게 건강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야만 우리 집안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긴 그렇다마는 아무래도 내가 병이 깊어진 것 같아. 논개야 나를 위하여 어지간히 해두어라. 그렇게 밤낮없이 그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아버지, 저의 몸은 부모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있는 것이니 염려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논개는 전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간호를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병 차도가 없이 자꾸만 병세는 기울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선달 스무날께에 심한 강추위가 몰아치고 눈바람이 퍼부으며 밤새도록 앞 뒷산의 참나무, 거자수나무의 빈 가지를 위잉 위잉 울리며 심난하게 한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밤을 간신히 넘기었으나 연신 숨이 차고 가래가 목구멍에서 그렇그렇 차올라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논개는 앞뒤로 쫓아 다니며 약과 미음을 준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가래침 그릇을 깨끗이 씻어다 아버지에게 바쳐드렸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견디어 넘어가더니 스무 이튿날이 되자 이제 아무 것도 잡수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되어 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면서 밤 열시 경에 이르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논개야, 논개야. 어린 너를 어떻게 할거나?”

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아무래도 숨을 채슬러 쉬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다.

논개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나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가서 건너 마을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하겠어요.”

옆에서 같이 걱정을 하던 어머니는

“아니다. 밤이 깊어서 너는 못간다. 길도 험한데 내가 빨리 갔다오마. 아버지 가슴이나 쓸어 드리어라.”

하며 어머니는 길을 나선다.

어머니가 채 큰골 냇가도 건너가기 전에 아버지는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래가 목구멍에서 바글바글 끓어 오르며

“논 — 개야, 논 — 개야. 잘 살아라.”

하고 숨이 짝 막혀 오른다.

논개는 정신없이

“아버지, 아버지. 이걸 어째, 정신차려요.”

아버지를 붙들고 벌벌 떨면서도 피를 넣어주면 신통하게 살아 난다더라 하는 말이 생각나 무명지를 입어 넣고 사정없이 작신 깨물어댔다. 다급한 김에 아픈 줄도 모르고 새빨간 피가 손가락 끝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 피를 아버지 입에 갖다 넣으며

“아버지, 아버지. 제 피를 삼키세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피예요. 그리고 숨을 토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대답마저 못하신다.

논개는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며 울음이 터져 나온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 없이 한두 번 피를 삼키는 듯 하더니 영영 논개의 그 지성으로 바친 간호의 보람도 없이 고개를 한 곳으로 제치고 숨을 거두고 만다.

“아버지! 아버지! 소녀의 정성도 모르시고 이게 웬일이어요. 어머니하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피를 토하는 듯한 서러운 곡소리가 밤하늘을 울리고 큰골 개울을 건너 섬바위골까지 처량하게 슬프게 슬프게 퍼져 나갔다.

민며느리로 팔리다

“어머니 손 좀 녹이고 해요. 손이 터질 것 같이 애리어요.”

“애, 춤지만은 좀 참고 하자. 늦겠다. 작은아버지가 오늘 장계장에 가셨는데 오시기 전에 돌아가야지 우리가 늦게 가면 전번같이 피부렸다고 하며 야단 벌어진다.”

“작은아버지는 장계장에만 가시면 늘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가지고 온 걸 뭐. 참, 어머니 그런데 말이요. 전번에 우리 집하고 논밭 판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니 받았어요?”

“받기는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터이지!”

“아니어요. 작은아버지 요즈음 좀 수상해요.”

“뭐가?”

“전에 없이 요 며칠동안 명덕뿔 평지로, 오동리로, 개안들 술집으로 부산하게 나다니시고 밤새워 놀다 돌아와 작은어머니하고 그저께 밤새워 싸웠지 않아요?”

“글쎄다.”

“아마도 작은아버지가 우리집이랑 논밭 판 것 가지고 다니면서 밤새 노름하고 술타령 다한가 봐요.”

하고 논개가 말하자,

논개 어머니 밀양박씨는 큰 한숨을 몰아 쉰다.

“이럴줄 알았으면 더 고생스러워도 우리끼리 그 집에서 사는 건데 그랬는가부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할 수 없지 않아요. 그때 경황으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차에 작은아버지께서 지독히 우리를 생각하는 척하셨기 때문에 작은집으로 합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생각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보다 지금 어머니가
츄고 고생스러워서 큰일 났네요.”

“아니다. 어린 네가 안쓰러워서 못견디겠다. 저렇게 손등이
얼어터지도록 매일 부엌일에다 나무만 이렇게 해 날라야 하
니 어디 견디겠니?”

논개 어머니 박씨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이며 목이 메인
다.

“어머니, 제가 공연한 소리 했어요. 어머니, 늦기 전에 빨리
나무를 묶어서 집에 가요.”

큰골 작은 저실 골짜기에는 저녁때 반나절쯤 되었는데도 별
씨 해는 산 너머로 숨어버리고 울창한 숲속으로 어두컴컴하니
어둠이 깔려오고 있었다.

논개 모녀는 새끼를 세 가닥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마른 나
뭇가지를 대여섯 개 정도를 깔고 산 윗쪽에서부터 굽어 모은
가리나무를 갈퀴리로 쳐서 장으로 만들어 쟁이고 나무뭉치로
만든다. 두 뭉치로 만들었는데 한 뭉치가 조금 크다.

“어머니, 큰 덩어리 이것 저에게 이어주어요.”

“아니다. 너는 어리니까 작은 것 이어라.”

“안되어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기운도 없으니 작은 것 이
세요.”

하며 논개는 어머니를 떨치고 기어이 큰 것을 이고 나선다.

험한 산길을 무거운 나무 뭉치를 이고 언덕길을 내려오니

논개의 연약한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발발 떨린다. 논개는 며칠 전에 작은아버지가 나무해 오라고 삼아준 짚신이 바닥이 다 떨어지고 구멍이 나서 모양만 신발이지 맨발이나 진배가 없다.

발이 시리다 말고 이제 감각마저 둔해 버리었다. 둔해 버린 발에 가시가 찔리고 끈틀에 찔리어 여기 저기 상처투성이며 피가 뼈죽 뼈죽 나오고 있다. 하도 많이 겪은 일이라 별일 없이 느끼어지나 뒤따라온 박씨는 논개의 발을 바라보는 순간 간장을 오려내는 아픔을 느끼었다. 이 추운 날 머슴애라도 모를 터인데 이 여식애를 이것이 할 짓이냐고 하며 속에서 끓어 오르는 서러움을 몇 번이나 참느라고 앞길이 부엌게 되어 좀처럼 발길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조심해서 내려 오세요. 얼어 붙어서 미끄러워요.”

“오냐, 오냐. 염려 말고 너나 조심해라.”

간신히 대답하고 잔등날을 돌아서 집에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버지 치상을 치르고 난 다음 작은아버지는 고생스러워서 따로 못살 터이니 같이 합산하여 편히 살자고 몇 번이나 졸라서 합산을 시켜 놓고는 자기네 내외는 손끝하나 까딱도 않고 논일에서 밭일까지 부엌일, 빨래, 심지어 나무 해 오는 것까지 온통 논개 모녀에게 몽땅 떠맡기고 자기는 논개네 집 논밭 판돈으로 술타령, 놀음판에만 눈이 별정게 하고 쏘다니다 어찌

다 집에 한번씩 들어오면 내외간에 죽어라고 싸움만 하고 논개 모녀에게는 그 동안 공밥만 먹고 무엇하였냐고 못할 소리를 하며 못살게 달달 볶기만 한다.

아버지를 여의고 서러움 속에 한여름이 가고 유난히도 빨리 찾아오는 산골의 가을은 벌써 장안산 높은 봉에 빨간 단풍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날도 장계장터에 갔던 작은아버지 주달무는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기분 좋게 희희낙낙하며 다른 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이제 막 논개랑은 콩밭에서 콩을 거두고 이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상을 치우려는 순간이었다.

“어, 오늘 기분 좋다. 임자 있소.”

하고 들어오며

“아 — 형수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습니다.”

“서방님, 뭘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 글썄 형수씨, 저 논개가 저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야지요.”

“시집을 보내요? 저 어린 것을, 죄 돌아가게.”

“아니요, 형수씨, 혼인이란 꼭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논개가 이제 열 네 살이니 아주 나이도 적당하고 저렇게 숙성하게 꽃같이 피어나니 좋은 데가 있을 때 보내야지요.”

박씨는 생각하였다. 하기야 이 지독한 작은집에서 못 먹고 고생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혼처가 있다고 보면 출가시키어 버리는 것이 무방하다 싶었다.

“아이, 서방님. 그럼 좋은 대상이 되는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형수씨. 한번 들어 보세요. 저 아래 도장골옆 신내 마을에 사는 임내면에서는 제일가는 부잣집 김풍헌 나라의 맏아드님이랍니다. 그래도 마다 하시렵니까?”

“그게 정말이요? 김풍헌네 집 이야기는 전에 한번 듣기는 하였소마는 그런 집에서 저희같은 것한테.”

“아니어요, 형수씨. 집이 문제인가요? 우리 논개가 이렇게 절색인데.”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그집과 차이가 심한데 될 말입니까? 그런 턱걸이 같은 혼사는 하기가 싫고 생각도 없으니 그만 두시지요.”

“아닙니다. 형수씨. 턱걸이 혼사가 아니어요. 그 집이 우리한테 턱걸이 하려는 거요.”

“뭐라구요? 그집이 우리한테 턱걸이어요.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네요.”

“여하튼 형수씨는 저한테 맡기어 두고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러면 수가 생길 터이니깐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턱걸이 한다?”

“아, 즐려. 형수씨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가서 잠이나 주무셔요.”

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박씨는 논개가 기다리는 건너방으로 내려왔다.

“어머니, 어서 들어와요. 작은아버지께서 뭔가 기분좋다고 하시던데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글썄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상의하려는 참인데 글썄 너를 시집 보내자는구나.”

“뭐라고요? 어머니 저를요?”

하고 깜짝 놀라며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제가 시집을 가요?”

“그럼 평생을 어미하고 같이 시집도 안가고 살련?”

“어머니 죽어도 저는 불쌍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시집갈 수는 없어요.”

“아니다. 너만 좋다고 하면 우리에게 과분한 혼처가 나왔다 만은 정말 생각하여 봐야 하겠다.”

“어머니, 그런 소용없는 이야긴 그만하고 고단하니 잠이나 잡시다.”

하고 말 참견도 하기 싫다는 듯이 그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 금방 새근새근 고운 잠결로 들어가 버린다.

논개 어머니 박씨는 논개 혼인 이야기 때문에 이것 저것 생각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참, 이상하다. 그 잘나고, 부잣집에서 우리하고 사돈을 하자고……. 그리고 우리한테 턱걸이 혼사라고?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이생각 저생각 하다가, 하기가 조카딸 하나 있는 것 작은아버지가 잘 알아서 할 테이지 하고 잠을 청했다.

그러자 그날밤 있었던 일은 지나간 말로 생각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랫마을 오동리 양지뜸에 사는 중신 잘하는 평지댁 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김풍헌댁 큰도령 사주라고 하면서 파란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온 식구가 있는 자리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풍헌네 집 자랑, 재산 자랑을 수다하게 늘어놓고 이집 부엌이집 건드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달무에게 사주단자를 넘겨 주고 내려가 버린다.

중매쟁이가 내려가자 달무는

“형수씨. 논개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언제 가도 남의 집에 갈 아이이니 이 좋은 기회에 보내도록 합시다.”

하고 중신 할머니가 두고 간 사주단자 보따리를 박씨에게 건네준다.

박씨는 얼떨킴에 받아 쥐고, 놓지도 받지도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기야 중신 할머니 말대로만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 일이 다마는.”

싫은 생각도 든다.

며칠이 지나 그믐께 이웃 고사리골 신씨댁에 초상이 났다. 모두들 문상꾼들이 장계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초상집에 친척이 된다면서 신내마을로 시집을 온 박씨와 고향친구 봉전댁이 초상을 치르고 집으로 내려가다 모처럼 옛 고향친구가 보고 싶어서 논개네 집을 찾아 들었다.

어려서 거의 같이 자라고 이쪽으로 시집을 온 뒤로 한두 번

은 만난 적이 있지만 정말 외로운 처지에 이렇게 옛친구가 찾아주니 그 이상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쩐 일로 이렇게, 이게 몇 년만이야. 이렇게 찾아 주었는데 아무 것도 대접할 것이 없으니 이것 큰일 났네. 이런 신세가 되어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 동안 서로가 지난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고 하다가

“아참! 듣자니 논개가 신내 김풍헌댁 민며느리로 팔려 온다면서?”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논개가 민며느리로 팔려가?”

깜짝 놀란 박씨는

“아니, 그 집이 풍헌까지 지내고 잘살고 좋은 집안이라는데 어째서 우리 논개가 민며느리로, 누가 누구에게 팔고 샀다는 거야? 자세히 좀 말해 봐.”

“아니, 그럼 지금껏 모르고 있었구만. 아랫쪽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고 딱하게 되었다고들 하며 논개가 불쌍하다고 동정들하고 있는데.”

“그래? 아니,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아는 대로 말해 줘.”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정말 모르고 있었구만. 그것 참, 이걸 어쩌나 알려 줘도 뒷탈이 없을려나?”

“정말 그러지 말고 우리 불쌍한 외동딸 논개를 위하는 일이

라면은 제발 숨김없이 좀 알려 줘.”

“그럼, 그게 이런 거야. 듣던 대로 풍헌댁은 문벌 좋고 돈 있겠다 부자에다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그게 당사자가 문제야. 풍헌어른의 맏아들인데 둘째, 셋째는 모두 장가를 가고 분가도 했지. 그런데 첫째인 진기라는 아들이 문제야. 풍헌이 처음 아들을 낳자 하도 기뻐서 좋다는 좋은 약은 산모나 아들을 튼튼하게 하려고 막 먹였다는 거야. 그런 것이 그만 어린 것에게 너무나 우황을 많이 먹여 등신이 되고 팔푼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손발은 틀어져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반병어리가 되어서 식충이가 되어 버렸지. 그러니 누가 아는 사람은 딸을 줄려고 하겠어. 그래서 지금껏 설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들이고 풍헌댁에서 애타고 있었지.”

“음, 그렇구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그 집에서 우리에게 턱걸이 혼사 한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가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하나 있는 조카딸 하나 그런 데로 팔아 신세를 망쳐 버릴려고 하다니.”

“아니야.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문에는 벌써 논개 작은아버지가 논개 몸 값을 다 받아 갔다는 거야.”

“벌써 몸 값을 받아가?”

“응.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듣기에는 신내앞 풍헌이네 상토 논 세 마지기 하고 닷새베

열 필을 받아가 벌써 장계 권태순이라는 사람에게 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모랫골 술집에서 투전판이 벌어져 그것도 다 날려 보냈다는 소문이야.”

“아이고, 이를 어찌나. 그럼 우리 논개 신세는 어떡하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구만.”

“전혀, 초문이야.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신랑감일 것이라 하고 시동생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아이고, 참말 세상 믿을 사람 없네.”

“작은아버지가 조카딸 하나 있는 것마저 팔아 먹었으니 말이야.”

“야속한 세상이지. 작은아버지가 몹쓸 사람이구만.”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인제 어떡하지? 우리 불쌍한 논개 신세는 어떡하고 저 불쌍한 것이 평생 저 바보 천치의 아내로서 그 집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팔자가 되어 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찌나? 불쌍한 우리 논개야. 논개야! 논개야!”

박씨는 그 내막을 다 듣고 나더니 딸의 불쌍하게 되어버린 팔자를 생각하고 눈물이 비오듯하며 방바닥을 치며 원통해 하고 분하고 억울함에 몸부림을 쳤다.

옆에서 보고 있던 봉전댁도 아주 잘못된 일에 몸서리를 쳤으며 돌이킬 수 없는 가련한 논개의 신세에 대하여 박씨의 팔을 붙들고 위로할 말도 잊어버리고 같이 울고 만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아무말 없이 옆에서 보고 듣고 하던 논

개는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면서 엄마 가슴에 머리를 묻고 흐느껴 운다. 한참을 울고난 논개는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작은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조카딸이 필요하여 팔았으니 팔려가서 살립니다. 너무 슬퍼 마시고 울음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애간장이 녹도록 어머니 속을 상하여 드린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일 너무 서러워 마세요.”

하고 논개가 정신을 차려서 어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자, 세 사람은 서로가 어찌할 수도 없이 처리되어 버린 운명에 한없이 울기만 하였다.

며칠을 두고 논개 모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땅만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닥쳐 올 기구한 팔자에 서로 부등켜 안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그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동짓달 그믐께가 되었다. 동짓달 긴긴 밤을 밤새껏 잠 못이루고 뒤치닥거리던 논개는 건너마을에서 첫닭이 울자, 어머니를 흔들며 깨웠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요. 어디론가 가요. 닥쳐올 팔자가 무서워서 아무래도 못살겠어요. 어머니, 이 밤이 밝기 전에 저 민재를 넘어 멀리 도망가요. 이대로 있다가는 꿈쩍없이 김풍헌네 집에서 곧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어서요, 어머니.”

딸의 애타는 딱한 하소연을 듣고 박씨는 무의식 중에 벌떡

일어서며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데까지 가자.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너무도 억울해서, 챙길 것도 없다마는 헌 옷가지라도 챙기자.”

옷이래야 명베에 삼베 합하여 서너 벌씩밖에 되지 않는다. 헌 명베보자기에 자기 옷들을 싸가지고 첫닭이 두해채 울 무렵에 방문을 가만히 열고 모녀는 이를 악물고 작은집 문앞을 빠져나와 바삭바삭 서리길을 밟으며 뽕뽕 얼어붙은 새벽길을 섬바위골 동네 앞길을 지나 작은 민재를 지나 낮에도 지나가기가 무섭다는 아릅드리 나무가 꼭 차있는 바위틈으로 나 있는 첩첩산골의 큰 민재길을 재촉하여 민재의 높은 등성이를 허우적거리며 넘어간다.

산골아래 먼 곳에서 가물가물하게 개 짖는 소리가 새벽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억울한 재판

신내 김풍헌네 집에서는 큰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설흔 살이 넘도록 큰아들 장가를 못들여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돈으로 샀다고는 하지만 부모로서 할 일을 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판이니까 걸판스런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김풍헌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고 앞뒤로 뒷짐을 지고 다니며 긴 담뱃대를 연신 빼꼼빼꼼 헛빨아댄다.

“헤헬 험.”

“걸게 많이들 장만해요. 우리 김씨 문중의 최고의 잔칫날이요. 험험”

헛기침 허세를 계속 부린다.

김풍헌 입장으로는 참으로 기특한 일이었다. 재산이나 위치나 간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단지 큰자식 몽달을 못 면할까 봐 이맛살이 늘 찌프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나. 더욱이 그 얻어오는 규수가 근동에서는 명문 집안에다 잘 생기었고 그런대로 글공부까지 하였으니 거기에다 행실이 바르고 부모에 효행이 지극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 풍헌이 기광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봐라, 게 누구 없느냐.”

“예 — 이 .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춘으로 며늘아기 모시러 갈 가마꾼들을 사인교로 준비하였느냐?”

“예, 예 벌써 준비하고 가마꾼들도 다 연락 되었습니다.”

“음, 되었다. 그럼 내일 일찍 가도록 단단히 차비를 하여라.”
하고 새 며늘아기의 용모를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김풍헌은 새벽부터 일어나 앞뒤로 수선을 떨고 돌

아다니는 바람에 더욱 집안이 술렁대기 시작한다. 사인교 가마를 준비하여 가마꾼 네 명에 길 안내할 사람 두 명, 함을 지고 선물 보따리를 지고 가는 하인, 이들을 총 지휘 이끌어갈 사인 한 사람 모두 합하여 열 명이 한 패거리가 되어 위세를 당당하게 부리며 큰골 주촌을 향하여 꼬불꼬불한 좁은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부지런히 걸었지만 길이 험악하여서 반나절이나 거의 되어서 겨우 주촌의 주달무네 집앞에 이르렀다.

사인 박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주생원 계셔요? 주생원 계셔요?”

큰 소리로 불렀으나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하다.

“아, 이상하다. 모두들 어디를 갔을까? 미리 연락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주생원 계셔요? 아무도 안계셔요?”

소리쳐 찾았으나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다. 오히려 이웃에 사는 유생원네 집에서 인기척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오며

“왜들 그러셔요?”

“아니, 할머니 이집 달무 주생원 어디 가셨어요. 안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글썄 우리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참이요. 그럴 것이, 글썄 한 열흘 전에 논개 모녀가 온다 간다 말없이 안보이더니, 이삼일 전부터는 아, 글썄 또 달무네 식구도 온다 간다 말하나 없이 집 살림을 그대고 두고 아무 소식도 없네

요. 참, 이상도 하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사람들이 오는가 싶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래요. 아, 그런데 어찌들 이렇게 가마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요.”

가마꾼들은 할머니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이걸 어찌나 어떻게 할까? 아무도 없으니 참 이상도하다. 며칠씩이나 집을 비우다니 모두들 한마디씩 한다.

옆에서 한참동안 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던 가마꾼 한 사람이

“사인님, 아무래도 수상한 데가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온 식구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요, 저보세요. 세간살이도 막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살림하려는 집이 아니어요.”

“글쎄다, 그렇게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럼 분명 논개를 판다고 핑계하고 논과 옷감을 가로채서 도망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 야단났습니다. 이걸 알면 풍헌 나으리가 펄펄 뿔 터인 데요.”

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서성대고 있었다.

김풍헌이네 집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가마가 당도하는가 싶어서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다 지쳐서 무슨 탈이 났는가 싶어서 사람을 내세워 큰골로 올려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더니 허망한 소식만 가지고 심부름꾼이 돌아와

“논개랑 주달무랑 그 일가가 전부 나으리의 돈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찾다가 못찾고 빈 가마

로 그냥 되돌아 오네요.”

그렇게 전하자

“뭐라고, 그 무슨 소리야. 논개가 도망을 가. 년놈들이 사기를 쳤어. 고래 심줄 같은 내 돈을 가로채서 그 일가족이 도망을 갔다고! 요사한 것들, 고얀 것들. 요것들을 내가 가만 둘 줄 알아. 당장에 현감에게 고발을 하여 잡아들여 주리를 틀도록 하여야지, 에이 고얀 것들.”

김풍헌의 노여움은 여간이 아니다. 원래 본 바탕이 욕심꾸러기에다 거만하고 덕이 없는 품에다 그런 일을 당하였으니 펄펄 뛰는 꼴이 정말 볼만도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또 흘렀다.

조선조 선조 이십이년 이월 하순의 어느 날 전라좌도 장수골 최경희 현감은 이상한 재판을 하나 처리하여야 했다.

동헌 마루 끝에 마련된 사또의 의자로 나아가 앉으며 밑을 내려다 보니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내려다 봤다. 김풍헌의 고소장에 의하면 딸을 준다는 미끼로 남의 전답과 옷감을 가로채기에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동떨어진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가련하게만 보이는 두 여인이 꿇어 엎드리어 있기 때문이다. 최현감은 무엇이 잘못된 느낌이다.

“이방.”

“예!”

“저 죄인들이 임내면 신내마을 김풍헌의 고발에 의하여 딸을 빙자하고 풍헌이네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간 죄인 박씨와 그의 딸 논개가 틀림이 없겠다.”

“예, 나으리. 틀림없습니다. 며칠을 두고 수소문하여 형리들이 경상도 안의현 봉전까지 가서 숨어 살고 있는 것을 찾아서 잡아 왔습니다.”

‘응, 저런 순진하게 생기고 연약한 여인들이 사기를 치다니.’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무겁고 위엄있는 사또의 음성이 찌렁하게 퍼지자 그들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모녀는 고개를 들었으나 어머니는 맥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소녀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본다.

“고개를 똑바로 들어라.”

다시 찌렁한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다.

고개를 치켜 든 박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여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어머니, 우지 마세요.”

논개 역시 울상이 되어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인 채 저도 울고 있으면서 어머니더러 울지 말라고 짹적거린다.

“너희는 모녀인가?”

하고 사또의 물음이 시작되었다.

‘예’ 하는 대답대신 모녀는 입만 달삭하고 고개를 숙인다.
“어미의 사는 곳은?”
목이 차서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빨리 못할까?”
옆에 서 있던 형방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박씨는 흠칫 놀라며
“큰골 주 — 촌입니다.”
“이름은?”
“박.....언년입니다.”
“어디 박씨이지?”
“밀양 박가입니다.”
“나이는?”
“췌 넷입니다.”
“그리고 딸 아이 너는 이름이 뭐지?”
“주논개입니다.”
“논개 어디 주씨인가?”
“능주라고도 하고 신안이라고도 합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면서.”
논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깨물어 피를 짜 넣어 드린 무
명지를 바라보며
“예,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논 전답은 얼마나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박씨가 간신히 대답을 한다.

“음, 그래서 살기가 힘들니까 거짓으로 남의 재물을 가로챈 것인가? 박씨, 듣거라. 김풍헌의 고소장에 의하면 그대는 그대의 딸 논개를 김풍헌의 만아들 민며느리로 준다는 조건으로 연전에 상답 세 마지기와 닷새베 열 필을 받고 사주단자까지 받은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의 귀중한 재물만 가로채고 도망, 피신을 하였다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똑바로 대답을 하여 보아라.”

연신 눈물만 흘리고 있던 박씨는 고개를 들고

“사또 나으리,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뭐라고! 억울하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분명히 고소장에 재물을 건네주고 승낙을 받아 사주단자까지 전하였다는데, 제대로 말하여라.”

박씨는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하여 잠시 머뭇거리고 있자니 옆에 있던 형방이 발을 짱 구르며

“바로 제대로 빨리 이야기하지 못할까? 어느 안전이라고 어 물어물 하느냐!”

하고 호통이 내린다.

“죄 없는 백성을 처벌하는 일은 본관이 하는 일이 아니고

죄를 제대로 가려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주는 일이 마땅한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실 내막을 차근차근히 말하도록 하여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가련한 몰골을 본 사또는 목청을 내리어 조용히 타이르듯이 말하자, 논개 모녀는 다소 마음이 놓였는지 아까부터 무언가 기회를 보는 듯한 기색을 보이던 논개가 고개를 들며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어머니 대신 소녀가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사또님께 아뢰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 네가?”

최현감은 그렇게 말하고 논개를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너, 어린 계집애가 제법 똑똑하구나. 그래 할 말이 있으면 어미 대신 네가 말하여 보아라.”

논개는 사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럼, 소녀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소녀를 김풍헌네 집 민며느리로 준다는 미끼로 김풍헌네 집 재물을 사취하였다고 말씀하였사오나 저희 모녀는 김풍헌이라는 이름을 아는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며 더구나 엽전 한 닢도 그분에게서 받은 적이 없으니 사또 나으리께서 이 점을 소상히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단숨에 차근차근하게 거기까지 말하자 사또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너희 모녀는 김풍헌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다음 최현감은 어이가 없는 듯 양쪽으로 쪽 늘어선 향리들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박씨 부인 듣거라. 지금 네 여식아이 논개가 한 말이 틀림 없는 사실인가?”

나지막하나 엄한 목소리로 다짐하듯이 묻는다.

“네에.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녀가 그동안 살았던 곳을 버리고 갑자기 친정으로 도망친 까닭이 무엇이냐? 숨기지 말고 제대로 말하여라.”

최현감은 아무래도 논개 모녀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은 듯 고개를 갸웃뚱해 본다.

이런 사태에 이르자 제대로 밝혀져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박씨부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제대로 판가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풍헌 어른의 맏아들이 반신불수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있사운데 저희 시동생이 김풍헌의 간청에 못이겨 저의 딸년을 준다고 허락하였기 때문에 단지 저희 모녀는 그 억울한 혼인을 피하려고 밤도망을 친데 불과합니다. 평소 저희 시동생은 사람 됨됨이…….

거기까지 죽 밝히려 하였으나 차마 시동생의 사람됨과 비행을 들추어 낼 수가 없어 중단하자

사또는 나직히 엄하게

“얘기를 마냥 계속하여라”

하는 것이었다.

박씨부인은 하는 수없이 그동안 시동생의 방탕한 생활과 김풍헌과의 사이에 논개를 두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대충을 고해 바치었다.

내용을 듣고 난 최현감의 노여움은 대단하였다. 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순진하고 가련한 모녀에게 풍헌이라는 직권과 금력으로 억누르려고 했고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조카딸을 팔아 그 돈으로 못된 짓을 하려는 밀천으로 쓸려고 했음을 생각하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소행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여봐라.”

사또의 분노에 찬 큰 호령이 동헌 앞뜰에 쩌렁 울려 퍼진다.

“네 — 이.”

향리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린다.

“김풍헌과 박씨부인 시동생 주달무를 해지기 전에 몽땅 잡아 들어라.”

추상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최현감의 명에 의하여 형리 칠팔 명이 두 패가 되어 선창리 앞길을 지나 싸리재를 넘어 한 패는 큰골로 주달무를 잡으러 가고 한 패는 장계를 거쳐서 신내로 김풍헌이를 잡으러 달려갔다.

형리들이 떠난 뒤 논개 모녀는 다시 객사 남쪽에 있는 어두

컴컴한 감방으로 도로 끌리어 들어갔다. 감방에 갇힌 두 모녀는 한구석에 쪼그린 채 서로 꼭 껴안고, 숨소리를 죽이고 눈을 꼭 감고 닥쳐올 운명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침 나절에 떠난 형리들이 저녁 때 늦게야 돌아왔다. 큰골로 간 형리들은 주달무의 행방을 동네 사람들에게 백방으로 물었으나 그때 도망친 후로는 비쳐보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오고 신내쪽으로 간 형리들은 김풍헌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다시 논개 모녀가 불리어 나가 보니 김풍헌이를 동헌 앞뜰에 꿰어 앉히었고 논개 모녀도 같이 나란히 앉으라고 형방이 가르킨다.

최사또가 다시 의관을 갖추고 자리에 앉더니 앞을 내려다보고 쩌렁한 목소리로

“모두들 고개를 들라.”

하고 호령을 한다.

“김풍헌에게 묻노라. 풍헌쫓 되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고소장대로 논개 모녀를 데려다 문초를 하여 본즉, 고소장과 사뭇 다르다고 주장하니 이 어찌된 일이나? 그대는 풍헌벼슬을 지내며 이웃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몸이거늘 사람이 못됨이 어느 만큼이었으면 저리 힘없는 아녀자에게까지 기만을 하려 드는가, 어찌된 사실인지 거짓없이 똑바로 알리렸다.”

불호령이 떨어지자 김풍헌은 기가 질려 말문이 막히어 덜덜

떨며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

“떨기는 멀쩡한 사내가 어찌 이리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고.”

하며 꾸짖고

“그대가 박씨부인에게 주었다는 베 열 필과 논 서마지기 문서는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자세히 아뢰어라.”

김풍헌은 그제사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황공하옵니다. 사또님께 사실대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논개 모녀를 직접 만나 보고 건네 준 것이 아니고 논개의 숙부인 주달무를 통하여서 논문서와 베를 건네 주고 얼마 후 논개를 데리러 갔더니 논까지 팔아먹고 일가족이 모두 피신을 하여 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씨부인에게 묻겠는데 김풍헌 댁에서 사주단자를 보내 왔다는 데 그것은 사실인가?”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시동생이 그런 좋은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말만 하였지, 혼인을 허락한 사실도 없는 데 다짜고짜로 사주단자만 들이밀고 전혀 신랑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나 논문서나 명베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김풍헌은 방금 박씨부인이 말한 사전에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 말을 뒤엎을 만한 증거라도 있는가?”

“그건 주달무가 중간에 들어 일가족이 충분히 상의가 이루

어진 것으로 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무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 분명한데 김풍헌은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박씨부인을 어찌 소송부터 하였는고.”

“달무가 모든 것을 자기 형수씨한테 준 것으로 알았으며 후에 같이 피신을 하여 버려 짜고 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사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 송사는 주달무를 꼭 잡아들여야 풀리겠는 걸. 하여간 이번 문제는 근본 원인이 김풍헌한테도 있는 것이다. 혼인이란 인간 도리의 대사인 만큼 응당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옳은 것을 풍헌은 그 부모를 만나지도 않고 그 소문난 못된 사람을 적당히 피어 삶아서 농간을 부리게 하였고 또한 병신자식을 감싸게 하기 위하여 금품을 중간에 끼게 하였다는 것은 보통 잘못을 저지른 일이 아니잖은가.”

풍헌은

“일을 해 놓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한번만 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자, 그렇다 치고 박씨부인에게 묻겠는데, 그토록 재물의 손실을 많이 보게한 김풍헌덕과 다시 사돈을 맺을 생각은 없는가?”

“죽어도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아들이 성해도 모를 참인

데…….”

박씨부인은 전과는 달리 분명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사또는 사건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었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최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제 모두들 듣거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김풍헌은 주달무와의 사이에서 서로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논문서와 명배가 거래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순수한 인륜도덕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따돌리며 옹지 못한 뜻이 있으므로 풍헌에게 중벌을 내리도록 재산상의 손실을 참작하여 불문에 붙이노라.”

사또는

“음 — 흙.”

하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자세를 바로 하면서,

“박씨부인은 듣거라. 그대는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그대의 시동생의 말만 듣고 모르고나마 못이긴 척하고 사주단자를 받아 놓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대의 시동생이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김풍헌댁에 큰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한 책임과 또한 그대의 시동생이 있으면 그가 당연히 벌을 받을 일이로되 그가 지금 도망을 가고 없으니 그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을 면치 못할 일이로다. 이는 원칙으로 따지면 김풍헌의 재산을 변상시키는 벌인 만큼 응당 김풍헌네 집에 가

서 종살이를 하여야 하되 풍헌의 사람됨이 덜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박씨부인은 이제부터 오 년간 장수현청의 종살이를 하되 물긴는 종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여라. 그것으로써 박씨부인은 시동생이 저지른 죄와 김풍헌의 상담 세마지기와 면포 열 필 값을 다 치르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사또의 판결이 내리자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하였다.

“판결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는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사또 나으리!”

또렷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높다랗게 들려왔다.

“소녀의 소원 말씀을 들어 주시옵소서.”

“소원, 소원이란 무엇이냐? 어디 말해 보아라.”

“감사하옵니다. 저의 소원이란 저의 어머니는 보시다시피 지금 성한 몸이 아니옵고 식음도 제대로 못하고 기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자이옵니다. 거기에다 나이도 많이 잡수시고 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오 년 간이나 물긴는 종살이를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옵니다. 그러하오니 소녀가 어머니대신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저의 어머니가 한 것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하옵니다.”

가련하고 처량하며 연약한 목소리가 아니고 뺏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뼈를 자르는 아픈 목소리였다.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네가 어미대신 물종노릇을 한다고?”

사또는 기특하다 싶어 되물었다.

“네, 그러하옵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더러 기어이 종살이를 하라시면 소녀도 같이 여기서 종살이를 하겠나이다.”

기어이 대신하겠다는 논개의 결심이 또렷이 엿보이기까지 한다.

“사또 나으리, 아니되옵니다. 어린 것이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청춘이 만리 같은데 억울한 종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며 박씨부인은 사또께 아뢰고 논개쪽을 바라보고 다시는 그런 쓸데 없는 소리 말라고 눈을 흘긴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 일 못하셔요.”

“아니된다. 어린 것이 종이 되다니. 어미는 다 살았으니 언제 죽어도 좋고 종년이 되어도 괜찮다.”

두 모녀는 사또 앞인 줄도 잊은 듯 옥신각신한다.

“조용히들 하라.”

향리나 통인들까지 두 모녀의 하는 짓에 감동을 받아 멍하고 있는데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다.

“어린 논개의 뜻이 가상하기도 하다. 이 일은 잠깐 들어가

향리들과 의논을 한 다음 다시 판결을 내릴 터이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여라.”

하고 사또는 이방, 호방, 형방을 별실로 불러들이어 상의를 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김풍헌이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처사와 주달무의 인간됨의 못된 점이 다시 이야기가 되었고 논개 모녀의 가풍이 뚜렷하고 행실이 바르며 총명한 데다 아버지 별세 때의 지극한 효행마저 다시 이야기가 되어 논개의 그 가룩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사또는 삼방이 서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이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눈을 지긋이 감고 전부 귀담아 들으며 논개 모녀의 가련하며 착하디 착한 그 행실에 불같은 동정심이 솟아 오르며 측은함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 사또는 삼방의 이야기를 중지토록 하고

“논개는 능히 그 물건을 종살이를 충분히 해낼 것 같아. 그리고 주달무가 후에라도 어디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그의 양심이 자극이 되어 새사람으로 깨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관은 그런 점에 생각을 두어 가룩한 논개의 청을 받아들여 적절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노라.”

결국 사또는 처음의 판결을 뒤엎고 박씨부인 대신 논개가 이년간만 내아(현감숙소)에서 물건을 종으로 노역을 치르도록

판결이 고쳐졌다.

“감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하고 논개는 감격해 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논개 모녀는 따뜻한 사또의 온정의 베푸심에 현청인 줄도 잊은 듯 서로가 부등켜 안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 대신 종살이

내아의 서남쪽 담장옆의 우물가에는 십 년이 조금 넘었을까 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내아의 뒷뜰 북쪽과 동쪽에는 그와 같은 무렵에 심어졌을까 하는 은행나무 다섯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다.

논개가 판결을 받고 사또의 허락을 받아 내아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 은행나무들은 노오랳게 단풍이 들어 바람이 없어도 한 잎, 두 잎씩 소리없이 날아 떨어진다. 더욱이 논개는 물을 길다가 팔이 아파서 잠시 쉬는 동안 은행잎이 한 잎, 두 잎 날으다, 물동이에 살포시 떨어지는 것을 보면 맥없이 외가로 떠나간 어머니 생각이 물밑듯 일어나 서글퍼지기만 한다.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고 어머니 생각에 깊이 잠기기가 일쑤였다.

물길는 일이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나 워낙 현청과 내아에서 쓰는 물을 혼자 다 길어다 채워 주려니까 어린 논개로서는 같은 일만 계속하는 데 실증이 느껴지고 더욱이 우물이 너무 깊어서 길어 올리는 데 팔이 빠지는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논개는 제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쉬는 일 없이 계속하여 물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논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물길는 일은 밖에 사는 늙은 종 내외가 맡아서 했었다. 현청에서 쓰는 물은 남자종이 길고 안 내아에서 쓰는 물은 여자종이 길었었는데 이제 칠십이 가까와져 물길는 기력조차 없어져 논개를 시키게 된 것이다.

장수 사또 최경회는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으로서 본바탕의 성품이 대쪽같이 곧을 뿐 아니라 또한 어릴 적부터 선친의 바른 가르침과 자라면서 글공부를 하는데 전라남도 장성에서 명성을 떨치었던 기고봉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장성 함에 따라 사마 양쪽 시험에 합격할 만큼의 재주가 뛰어났으며 인품이 훌륭하였다. 특히 아버이를 섬기는 효행심이나 형제와 더불어 우애하고 충성심이 강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사또로서 백성을 고루 사랑하고 살피는 바른 정사를 함으로써 온 고을이 화평하기 그지 없었다. 백성들은 선정을 베푸는 사

또의 높은 인격에 고을마다 칭송의 소리가 자자하였다.

사또 자신이 개인생활이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하였으며 한치도 어김없이 법도를 실천하였으며 현청의 속관들이나 아전들도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여 태평한 정사를 베풀었다.

이렇게 공사에 분명하고 철저한 사또였으므로 내아의 살림도 한치의 어김이 없었다.

내아의 식구래야 사또의 본부인 나주김씨와 부임할 때 고향 집에서 데리고 온 몸종 순덕이와 그리고 이번 새로이 물종으로 들어온 논개의 단 셋의 단출한 식구들이다.

원래 논개 역시 엄격히 따지면 현청의 종이니까 현청에서 일을 봐야하되 여자 아이라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하여 불편이 없도록 내아의 몸종 순덕이와 같이 생활을 하게 특별히 생각하여 준 것이다.

논개는 이러한 단순한 식구 속에 끼여 살게 되었으며 이제 날이 가며 물길는 일도 제법 익숙하여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물동이에 물을 가득 길어 놓고 또아리를 챙기어 입에 물고 물동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쪼그리고 앉은 채로 머리에 올리고 한 손으로 동이를 잡고 한 손으로 무릎을 짚어 겨우 선 자세로 발발 떨며 일어서려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는
“휴유 —.”

하는 긴 한숨이 터져 나온다.

팔자소관이라 생각하여 참고 해내지만 같은 일을 매일같이

하자니 지루하고 고달프고 항시 온 몸이 물기가 마른 적이 없어 축축하여 괴롭기만 하다.

그리도 고마우신 사또께서 오 년을 이 년으로 줄여 주시는 선덕을 베풀어 주셨으니 참고 이겨내야지, 그리고 이 년을 마치면 어머니 곁으로 찾아가 어머니와 같이 다시 주촌 고향으로 들어가 살던 집도 일으키고 팔밭도 일구어 감자랑 콩이랑 심고 산에 가 고사리도 끊고 나물도 캐고 하며 실컷 산이랑 들이랑 돌아다녀야지. 지금쯤 같이 바꿈살이 하고 자라던 혜순이랑 끝순이랑은 뭘하고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자 논개는 기구한 제 팔자가 서러워지고 고향이 한없이 그리워지며 고향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 광경을 저만치서 지켜보고 있던 순덕이는 가만히 옆으로 다가와

“논개야, 너 또 울고 있구나.”

“아니야, 순덕 언니.”

“아니기는 눈물이 볼을 흐르고 있는 걸. 대근한 모양이구나. 지쳤나 응? 내가 좀 거들어 줄께, 이리 쥐.”

“아니야. 하나도 대근하거나 지친 것이 아니야. 언니, 공연히 그런 거야.”

“응, 알았다. 또 어머니 생각하고 고향 생각을 하였구나! 논개야, 너나 나나 팔자소관으로 돌리자. 그래도 너는 이 년만 있으면 풀리지 않니? 내 입장을 생각하고 생각을 고쳐 먹어라.”

하며 등을 어루만져 준다.

“언니, 미안해. 또 이런 꼴을 보여서.”

“논개야, 좀 쉬어라. 내가 지금 틈이 좀 있으니 내가 거들어 줄게.”

“아니야, 그만 뒤. 언니는 부엌일에다 빨래다 더 고달플 터인데.”

“괜찮아. 나는 몸집도 너보다 크고 나이도 더 먹고 그리고 인제 이런 일 하는 것 길이 들어서 문제가 없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리 쥐. 내가 좀 도와 줄게.”

순덕이는 논개가 안줄려는 또아리를 억지로 빼앗아 들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나른다.

논개는 순덕이의 하는 짓이 뼈에 맺히도록 고마움이 느껴져 온다. 사실 논개 입장으로는 무남독녀에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는 없고 동기간의 정을 하나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것이 이러한 처지에 외롭기 그지 없는데 다행히도 먼저 와 살고 있던 순덕이가 친 형제처럼 세정을 알아차리고 일러 주고 이끌어 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고 고맙기 그지 없었다.

논개는 외롭고 막막한 처지에 순덕이가 정말로 친 언니보다도 더 정이 들어 따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사또부인 나주김씨는 순덕이를 시키어서 논개를 안방으로 불러 들이었다.

문앞까지 온 논개는

“마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논개냐. 들어오너라.”

논개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김씨부인 앞에 가서 조용히 꿇어 앉는다.

“논개야, 순덕이가 오늘 부엌일을 하다 손을 베었다. 약이 다 달여졌을 터이니 네가 좀 대신하여 짜가지고 오너라.”

“예, 알았습니다.”

논개는 문을 열고 나오며 마님이 요즈음 들어 살이 더 빠지고 안색이 전보다 더 창백하여진 것이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다.

논개는 부엌으로 나가서 순덕이한테 물어 약사발과 약수건을 챙겨서 약사발에 삼베 조각을 깔고 조심성있게 약을 부어서 움켜쥐고 뜨거운 약을 찬물에 손을 식혀가면서 짜냈다. 전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계실 때 몇 차례 해본 일이라 서툴지 않게 약을 짤 수가 있었으며 약을 다 짜고 난 다음 약사발갓을 깨끗이 훑쳐서 보기에 깔끔히 하고 다시 약사발을 쟁반에 받치고,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쓴 입가심을 하시라고 마늘을 작게 썰어서 세 쪽을 깨끗한 작은 접시에 담아 조심성있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님, 약 짜왔습니다.”

“오냐, 어서 가지고 들어오너라.”

논개는 약사발을 대청에 놓고 조심성있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약사발을 들어 무릎을 꿇고 마님 앞에 놓았다.

마님은 한참동안 약사발을 내려다 보더니 간단한 일이라도 사람에게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지금까지 순덕이는 그냥 약만 짜다가 약사발만 불쑥 내밀었는데 이 간단한 약 짜는 것에 성의를 다하고 앞뒤를 생각하여 얌전하게 처리하는 태도에 저으기 감탄을 하였다.

“논개야, 좀 가까이 오너라.”

“네에, 마님.”

“전에 약을 달여보고 짜보기도 하였느냐?”

“네에, 전에 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 자주 하였습니다.”

“그렇겠구나. 깨끗이 받쳐 올 줄도 알고 입가심 마늘쪽까지 준비했으니 얌전하기도 하다.”

“마님, 너무 황송하옵니다.”

김씨는 약을 한숨에 마시고 마늘쪽으로 입가심을 하고,

“논개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더니

“물 길는 일이 고단하지 않니?”

“괜찮아요.”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이렇게 힘든 일을 더러 했었니?”

“예, 많이 했어요. 힘든 일을 안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까요.”

“어떤 힘든 일들을 하였니?”

“촌에서 하는 일, 어머니랑 같이 다 했어요. 팔밭도 일구고 밭도 매고 나무도 하고요. 부엌일 빨래까지 다 했어요.”

“응, 그래.”

김씨는 논개의 손을 들여다 본다.

손모습은 예쁜 모습인데 손가락 마디가 굽직한 것이 분명 일한 흔적이 들여다 보인다.

“논개야, 이리 더 가까이 오렴. 그리고 손좀 보자.”

논개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내민다.

“두 손을 쪽 펴라.”

김씨는 논개의 두 손 끝을 한 손으로 감싸쥐고 들여다 본다.

지금까지 그렇게 천한 일을 한 아이 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미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단지 이 고운 손이 타고난 팔자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하여 마디가 굽어졌고 추운 겨울에 물을 길느라 손등의 잔금이 가도록 터 있는 것이 김씨의 마음에 걸린다.

“손이 터서 아프겠구나.”

“아니어요, 마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니 예쁜 손이 더 터지기 전에 따뜻한 물에 담그었다 땀물이나 건개기를 죄다 씻어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 이 기름을 조금 바르고 골고루 문질러라.”

하며 문갑에서 조그만 기름병을 내주신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자로서 지켜야 할 행실과 마음가짐에 대하여서도 친딸에게 이르듯이 밤이 깊도록 자세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마님, 고맙습니다. 살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그릇을 챙기고 나오며 마님의 따뜻한 온정에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제 방으로 돌아온 논개는 순덕이 옆으로 다가가며

“언니 손베었다며 많이 베었어. 얼마나 아팠어. 조심하지 그
래. 언니 손좀 내 봐. 내가 약바르고 잘 싸매줄께.”

마다하는 순덕이의 손을 끄집어 내어 아무렇게나 싸맨 상처
를 조심성있게 풀고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고난 다음 상어뼈
가루를 곱게 뺨아서 상처에 넣고 정성껏 싸매 주었다.

치료가 끝난 다음 순덕이는 논개의 손을 잡으며

“너, 못하는 짓이 없구나. 언제 그렇게 상처 싸매는 것을 익
혔니?”

“익히기는, 언니도. 그냥 하는 거지 뭐.”

“애썼다. 논개야. 일찍 자자. 내일 사또께서 마을을 살피려
임내면으로 행차하신다더라. 일찍 일어나 차비 차려드려야
지.”

“응, 알았어.”

두 소녀는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다.

순덕이는 낮에 한 일이 고단한 지 금방 숨소리를 색색거리
며 깊은 잠에 빠졌으나 논개는 어머니 생각에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기서 떠날 때 그렇게 쇠약한 몸으로 가셨는데 주촌으로
가셔서 외갓집으로 가셨는가, 주촌에 그대로 계시는가, 외가에

가시나, 주춘에 계시나 반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더욱이 몸이 계속 불편하시면 누가 돌봐 주며 무엇을 잡수시지도 못할 터인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영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더욱 생각에 생각이 미쳐 어머니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따뜻이 보살펴 주는 이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데서 병이 깊어져서 외동딸 논개를 애타게 부르고 부르다 숨을 거두는 모습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면과 뒤범벅이 되어 떠올랐다. 논개는 와락 눈물이 솟아올라 옆에 순덕이가 자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속으로 흐느껴 울어버리고 말았다.

잠충이 순덕이가 잠결에 놀라 깨어

“논개야, 왜 이래. 이제껏 안자고 어디 불편하니, 울고 있게.”

“언니, 미안해.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 어머니가 불편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아.”

논개는 순덕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옆드려 소리를 죽이고 어깨를 들먹이며 훌쩍거린다.

“논개야, 생각하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니? 너 이러다간 병나겠다. 그리고 마님 몸도 안좋으신데 신경쓰시게 하면 안된다. 그쳐라. 진정하고 누워 자자.”

“언니, 미안해. 안그럴께.”

먼 곳에서 벌써 자정이 넘고 첫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침 일찍이 순덕이가 일어나 보니 논개가 옆자리에 없다. 간밤에 일도 있고하여 이상한 생각에 이 애가 어디를 갔나 싶어서 나가보니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물을 끓이고 찬거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순덕이가 놀라며

“애가 제 할 일이나 하지, 잠도 안자고.”

“언니, 괜찮아. 언니는 손도 베고 지난 밤에 나 때문에 잠도 설치었는데 좀 더 자고 나와.”

“애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 간밤을 뜯 눈으로 새 버렸지.”

“아니야, 잘 잤어. 염려마, 언니.”

서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 같이 아침 준비를 하였다.

그날따라 사또 내외분이 아침 밥상이 잘 차려졌다고 칭찬이 대단하였다.

그날부터는 논개와 순덕이는 서로가 하는 일들이 구분이 없게 되어 버렸다.

서로가 닥치는 대로 같이 붙어다니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칭찬 받을 일은 서로 미루고 꾸중맞을 일은 자기가 했다고 책임을 지고 서로 감싸 돌았다. 사또 내외분도 둘이의 하는 일을 무척 기특하게 여기고 있었다.

순덕이는 사또께서 임내면으로 행차하고 난 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

마님은 청소하러 온 것을 눈치채고 한쪽으로 앉으시며

“순덕아, 애쓴다. 요사이 논개를 잘 타일러서 자매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 여간 보기도 좋고 한

결 내아에 화기가 넘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일도 잘되고……. 네가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논개는 너의 처지와는 좀 다르다. 이제 일년 남짓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 평민으로서 나가게 되니 그동안이라도 잘 사이 좋게 자매처럼 지내도록 하여라. 그런데 요사이 논개 안색이 무척 안좋은데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더냐?”

“아니어요. 몸은 불편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뭐 딱 일이 있니?”

“저……. 저…….”

“저 뭐냐? 얼른 이야기 해 보렴.”

“저 논개는 저의 어머니 걱정과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지난 밤에도 잠을 못이루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껏 흐느낀 것을 소녀가 새벽녘에야 알았어요.”

“그 참 딱하기도 하지. 것처럼 마음씨가 고운 것이 오죽이나 어머니 걱정이 되겠니.”

김씨는 눈을 조용히 감고 지난 일을 생각한다. 열다섯 살 때 갖은 호강과 대우를 받으며 애지중지 최씨 가문 며느리로 시집오면서도 집을 떠나 어머니 생각에 몇 달을 두고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던 생각이 절로 난다.

그때의 자기의 처지와는 땅과 하늘 차이인데 어린 것이 오죽이나 어머니 생각이 나겠느냐 싶었다.

순덕이가 손을 다친 것으로 하여 그만 마님 약시중 드는 것은 이제 논개차지가 되어 버렸다.

약 한 첩에 물 한 사발 정도 부어서 한 종발 정도 마시기 좋게 달인다는 것은 여간 공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논개에게 맡겨진 후부터는 약 마시는 시각이나 약의 양이나 심지어 약의 온도까지도 일정하니 하나도 어김없이 해낸 것을 보고 여간 기특하지가 않았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논개는 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논개야, 수고했다. 약그릇 이리 주고 그리 앉아라. 어머니 생각에 늘 밤을 지새운다면서.”

“아니어요, 마님. 이제 좀 마음이 삭아서 괜찮아요.”

“아니긴, 그저께 밤도 울며 새웠다면서.”

“마님, 죄송해요. 심려를 끼쳐서.”

“아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어머니 생각과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다. 논개야, 저기 금산에 사는 인삼장수 할머니 두 분이 인삼을 가지고 이쪽 장수와 남원 함양 양쪽을 늘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분이 있느니라. 그분들이 봄, 여름, 가을철로 꼭 한번씩 여기 내아에도 들르니까 봄에 다녀갔으니 한여름철에는 한번 더 올 것이다. 그러면 소식이나 한번 전해 주고 어머니 약이라도 사 드시라고 돈이라도 좀 보내주도록 하자. 그러니 너 혹시 글썽 배웠다고 하였지. 쓸 수 있으면 소식이나 적어 놓도록 하여라.”

“마님, 황공하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온정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번 일처

럼 뜨거운 온정을 안겨준 적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하였다.

“마님, 고맙습니다. 편지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전하는 말 정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고 마님이 주신 벼루와 붓과 종이를 가지고 제 방으로 가 어머니를 뵈온 듯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이 논개더러

“편지글 다 썼으면 가지고 오너라.”

하여 써두었던 편지를 가져다 바치었다. 김씨부인은 주욱 한번 훑어 읽더니 아주 탄복을 하며

“야, 논개 너 제법이구나. 언제 이렇게 한문이랑 언문이랑 고루 많이 배웠니. 참으로 기특하고 신기하구나. 글공부를 누구한테 얼마나 배웠니?”

“마님, 황송하옵니다. 별달리 공부한 것은 없고 다만 아버님 글방에서 어릴 적에 글방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조금씩 따라 배웠을 따름입니다.”

“아, 참 신통하기도 하다. 따라 배웠다는 글치고는 너무나도 뛰어난 문장이구나.”

“지나친 칭찬이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인삼장수 올 때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도록 하마.”

“고맙습니다. 마님.”

논개는 머리를 조아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언제쯤 인삼장수

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최사또는 언제나 아침 등청이나 저녁때 퇴청이 항상 일정한 시각을 어김없이 하였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좀처럼 현청을 비우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퇴청을 하면 거처에 들러 관복을 벗어 갈아입고 꼭 안방 김씨 거처로 들어와 하루의 지난 일을 주고 받으며 저녁 한때를 지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그날도 사또는 제 시각에 퇴청을 하고 안방 대청에 오르며
“험, 험.”

헛기침을 한다.

김씨는 아무리 몸이 불편하더라도 금방 남편의 인기척이 나면 옷매무새를 만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자리를 치우고 반갑게 맞아 들인다.

“부인, 오늘 기분은 어떨소.”

“꽤 상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옵소서.”

“다행이로구려.”

“남의 아낙으로서 몸이 이지경이니 제대로 남편을 잘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열심히 약이나 잡수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 즐거움을 누리시다.”

“송구합니다. 나으리.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낮에 논개가 써 온 편지꾸러미를 벽장 속에서 꺼내어 사또에게 건네 준다.

“이게 무언데요?”

“글쎄 논개 저 아이가 제 어미 생각과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워 운다기에 이곳에 간혹 들르는 인삼장수한테 부탁하여 제 어미한테 소식을 전하도록 해보자고 하였더니 이렇게 편지글을 써 왔습니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기특하여 보십사하고 드린 것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손에 받아든 사또는 두루마리를 펴가면서 사연을 읽기 시작한다. 편지를 점점 읽어가면서 사또는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아무것도 철모르는 시골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사또의 지금까지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말았다. 어느 사대부집 규수 못지않게 편지속에 구절 구절이 따듯한 정감이 넘쳐 흐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간절한 심정과 여기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조금도 마음이 안쓰이도록 고운 마음이 줄줄이 한문과 언문을 섞어가면서 또박 또박하게 적혀져 있다. 다 읽고 나서 사또는 두루마리를 접더니 눈을 지긋이 감고,

‘고운 계집애로구나. 생긴 모습도 곱거니와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천하여질 수 없는 귀한 애로구나.’

“나으리, 어떠세요.”

“논개가 측은하고 불쌍하여집니다. 미처 그 애가 그런 깊이 있는 마음 쓰임을 할 수 있는 애란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으리, 그뿐이 아니어요.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시켜 보

면 마음쓰임이나 하는 짓이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참으로 가까운 애입니다.”

사또는 또 눈을 감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씨부인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으며,

“나으리께 꼭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새삼스레. 이야기하여 보구려.”

“제가 사실은 아들, 딸 생산을 하나라도 있었으면, 나으리께서 고을살이 하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고향인 화순에서 선영을 모시고 부모님 봉양하며 어린 것을 키워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산을 못하여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자 별 수 없이 소실 여흥민씨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들 셋, 딸 셋 육 남매를 보았으니 저로서는 여한이 없사오나 단지 제가 이제와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전과 같이 나으리께서 퇴청하고 돌아오시면 팔다리라도 제대로 주물러드리지 못한 송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하루 일이 무사히 끝나고 퇴청하여 부인하고 하루 일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없는 즐거움이 아니요.”

“나으리, 제가 꼭 긴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또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나 혼자 있을 때에는 고통에 못이겨 괴로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피를 토하는 횡수도 찾아지고 있었다.

“뭉길래 아까부터 그리 망설이는 거요. 어서 이야기하여 보구려.”

“나으리 아무래도 제 건강이 계속 나빠진 것 같으며 이 근 일에는 간혹 피가 토하여지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저를 고향집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간 후에 나으리를 모실 길이 없으니 아직 어리기는 합니다만 총명하고 본디가 있으니 논개를 셋째 아내로 맞이하여 내아 생활을 돌보도록 하십시오 하는 간청이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사또는

“부인 당치도 앓는 소리 마시오, 이제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소실은 무슨 소실이며 어찌 그리 마음 약한 소리를 하오. 그러지 말고 기운 차리시오.”

사또는 김씨 가까이로 가 어깨와 허리를 어루만지며 자리에 눕게 한다.

한여름이 되어 올 줄 알았던 인삼장수는 날마다 논개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김씨부인 역시 논개를 생각하여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영여름철에는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가을의 중간쯤에 되어서야 인삼장수가 왔다.

논개는 어머니를 만난 듯 기뻐하였으며 좋아했다. 먼저 써둔 편지에다 덧붙여서 몇 말을 더 쓰고 김씨부인의 온정으로 약을 살 수 있는 엽전 설흔 냥과 명포 한 필을 싸서 안의현

서하 봉전마을의 외갓집으로 들러 안부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인삼장수는 빠르면 한 달 후에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김씨부인은 날씨가 차가운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침이 심해지며 숨결도 가빠지고 눈에 띄게 병세가 깊어지는 것 같았다.

사또 역시 부인의 병세가 자꾸 나빠지는 것을 느끼는지 전에보다 더욱 자주 안방에 들러 약수바라지 걱정과 식음문제를 논개와 순덕이를 불러다 놓고 자주 물어보고 이르기도 하였다.

그날도 사또는 제 시각에 퇴청하여 안방에 들렀다. 김씨부인에게 몸의 증세와 오늘 음식먹은 것과 약 먹은 내용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그날 현청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대충 이야기하였다.

김씨부인은 자신도 불편하면서 남편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계절의 날씨 탓인지 팔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때마다 김씨부인이 약도 마련하여 주고 밤 늦도록 안마를 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김씨부인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력이 못미쳐 마음 쓰임은 전보다 더하여지고 사또에 대하여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었다.

한참동안 앉아서 이야기 하던 사또는 자기 오른손 주먹을

왼쪽 어깨에 얹어서 가볍게 두서너 번 두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어깨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 같았다.

이를 바라본 김씨는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아내로서 제대로 시중도 다 못해 드리고, 어깨 두드리는 것을 논개더러 좀 시키도록 합시다. 총명하여 오히려 저보다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무의식중에 한 짓이 부인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이게 했는가 싶어서 얼른 손을 내리며

“아니오. 버릇으로 하는 짓이지 아무렇지도 않으니 염려 할 것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좀 기다리시지요.”

김씨부인은 방문을 열고 논개를 불러들였다.

바로 달려 온 논개는 문앞 대청에서

“논개, 대령하셨습니다.”

“응, 어서 들어오너라.”

논개가 들어서자

“거 앉거라.”

논개는 다소곳이 문앞에 꿇어 앉았다.

“논개야, 나으리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활을 많이 쏘는 탓인지 온몸이 쭉시고 절리어 괴로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할 때에는 늘 어깨나 팔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려 넘기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라 해보는 수가 없구나. 너 같으면 잘 할 것이니 나 대신 좀 두드려 드리도록 하여라.”

김씨부인은 논개에게 이르고

“나으리, 어깨를 이쪽으로 좀 돌리세요.”

사또를 돌리어 앉히여 놓고나서

“자, 논개야 보아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런 순서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팔끝으로 두드리고 주물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깨와 팔이 끝나면 다리도 이런 순서로 하는 거다.”

하며 안마하는 요령만 김씨부인은 시늉만 내서 자세히 일러준다.

다 일러주고 난 다음

“자, 논개야 이쪽으로 오너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것처럼 해 드러라.”

논개는 일러준 대로 사또의 어깨를 두드려 드리는데 너무 긴장하여 통 힘이 쏟아지지 않을 않는다.

사또는

“논개야. 기왕 두드릴 바에야 마음 턱 놓고 힘껏 두드려라. 너 조그마한 주먹으로 아무리 쳐도 끄떡이나 할 쏘냐.”

그 말을 듣고 논개는 힘을 들여 세게 두드린다.

사또는 그제사

“음, 됐다. 됐다. 어 — 시원하다, 시원해. 잘한다, 잘해.”

하며 칭찬을 하고 기뻐하신다.

김씨부인은 비스듬히 이불에 기대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만족해 하고 논개는 정성을 다하여 김씨부인이 가르쳐 준대로

차근차근 주무르고 두들겨 드렸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는 거의 매일 밤 최사또는 논개에게 몸을 맡기고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

한편 날이 갈수록 김씨부인의 병세는 깊어만 갔다. 부인은 자기가 죽고난 다음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사또와 논개가 그 동안 더욱 가까와지도록 신경을 써 이제는 안마를, 최사또가 거처하는 사랑채로 내려가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였다.

인삼장수가 떠난 지를 하루하루 세면서 기다리던 논개는 거의 한달 가까와지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대문 쪽에다 날마다 눈을 돌리고 살다시피 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이틀이 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인삼장수가 돌아왔다. 인삼장수는 오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며,

“마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선다.

김씨부인 역시 깜짝 반기며

“수고하셨소. 자리에 앉으세요. 논개 어머니는 잘 있던가요.”

급하다 못해 앉기도 전에 소식을 묻자,

“마님, 이를 어찌합니까? 공연한 부탁을 받고 올 수도 갈 수도 없고.”

“어찌 되었습니까? 어서 이야기나 해보세요.”

인삼장수는 한참 망설이다 숨을 돌리더니 난처한 듯

“논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씨부인은 가슴이 툭 하고 내려 앉으며 깜짝 놀란다.

“아이고, 이를 어찌나? 논개가 얼마나 애통해 할까? 언제쯤 어떻게 하여서 돌아가셨다고 합디까?”

“글쎄 여기서 송사가 있는 후 바로 친정으로 가서 이내 식음을 전폐하고 늘 논개만 부르고 찾다가 한달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 몹쓸 사람들.”

김씨부인은 몸과 같이 마음도 약하여졌는지 연신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낸다.

‘모녀가 기구한 팔자들이구나.’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이를 어떻게 논개에게 알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한다.

논개는 제 방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이제나 저제나 안방에서 부를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부르지는 않고 김씨부인과 인삼장수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만 들려온다.

논개는 애타게 어머니 소식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잘 계실까? 건강이나 하실까? 얼마나 내 소식을 반가워 하였을까? 몸이나 불편하지 않으신지? 얼마나 내 걱정만 하고 계셨을까? 소식 편지를 받아 왔을까?’

순간적으로 수 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한참 후에 인삼장수는 말없이 떠나 버리고 김씨부인은 기왕 이렇게 된 일 알 것은 알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자 논개를 불

러 들였다.

논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는다.

“논개야.”

“예.”

“논개야.”

김씨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몇 번이고 논개의 이름만 되풀이 하여 부르고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한다.

“예 — 예, 마님.”

간신히 논개도 대답을 하였으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간다.

궁금한 나머지

“마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논개야.”

다시 이름을 부르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가려 하고 사람은 누구나 한번씩은 꼭 가야 하는 거란다. 그런데 너의 어머니께서 단지 먼저 가신 것 뿐이다.”

말이 떨어지자

“네 — 예. 마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하자마자 지금까지 억누르고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와 가눌 길이 없이

“어머니, 어머니.”

를 계속 부르며 슬픔에 몸부림을 친다.

“이제 몇 달 안가면 종살이를 면하고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를 편하게 잘 모시려 했는데.”

“어머니, 전 어째요. 어머니 불쌍해서 어째요. 저를 버리고 어딜 가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며 몸부림을 칠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었고, 김씨부인도 육친을 잃은 듯 눈개를 감싸고 실컷 같이 울었다.

며칠을 두고 눈개는 낫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슬픔에 잠기어 한숨으로 지새웠다. 그러나 십여 일 지난 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전과 다름없는 물김고 청소하고 약 수바라지 하며 사또의 시중에 정성을 쏟았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김씨부인은 눈개 어머니 소식의 충격 때문인지 병이 자꾸 깊어져 이상 더 여기에서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사또에게 고향에 가서 죽고 묻힐 것을 간청하여 뒷일의 전부는 눈개에게 맡기고 겨우 가마에 올라 순덕이를 데리고 삼월 중순경에 고향인 화순으로 길을 떠나고 말았다.

김씨부인과 순덕이가 떠나버린 내아는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하고 눈개는 텅 빈 내아 살림을 혼자서 어떻게 꾸려가고 사또의 시중을 어떻게 들 것인가, 태산같은 걱정이 생기었다.

김씨부인이 떠난 내아의 이른봄은 매화가 피었다가 지고 개

나리 진달래꽃이 연달아 피어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 오건만
그럴수록 텅 빈 공간이 더욱 쓸쓸하기만 하였다.

밤이면 늦도록 사또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논개나 이를
받고 있는 사또의 마음은 피차 허전하기만 하였고 외로운 처
지여서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서로가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
만 갔었다.

사또는 전에 김씨부인이 같이 있을 때에는 늘 두 분이 같이
밤이 오래도록 오늘 있었던 일과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그리
고 나라의 형편이야기도 주고 받고 하였는데 김씨부인이 없는
이제와서는 상대가 논개밖에 없게 되었다.

삼월 그믐께의 어느날 밤 사또는 논개에게 안마를 받으며
논개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나라안팎 이야기를 하였다.

바다 건너 이웃의 왜놈들이 동태가 수상하므로 조정에서는
통신사를 보내어 그들의 실정을 살펴 알아보고 왔다는 이야기
며 그동안 일본을 살피고 돌아와서 들려 온 이야기를 들려 주
었다

“왜놈들은 본디 글자 그대로 작은 섬나라 작은 족속으로
보잘것 없는 야만인들이며 저희들끼리 땅덩어리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며 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백여 년이나
같은 족속끼리 싸우다 모처럼 ‘직전신장’이라는 자의 힘
에 의하여 천하를 통일을 하고 이를 이어받은 ‘풍신수길’
이가 강대한 국력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오랜 세월 익힌

전술이나 또한 야만적인 기질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며 간사하게도 서양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가져 조총이라는 무서운 신무기까지 있다고 하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앞뒤를 가리지도 못하고 만약 터무니없는 야심이라도 생겨 우리 나라를 쳐들어 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형편은 어떠하느냐 생각하면 한심스러울 정도로 동서당론의 싸움으로 갈라져 선비들이 쓸데없는 자기 고집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헐뜯고 하여 나라의 힘이 세 갈래 네 갈래로 흩어져 있고 나라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니 이런 틈에 왜놈들이 쥐새끼같은 침략근성을 부리어 우리 나라를 쳐들어 온다고 생각하여 보아라 큰일이지, 큰 일.”

“그러면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하여 통신사가 다녀 왔으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그게 큰일이야. 그런 목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서인에서는 ‘황윤길’ 동인에서는 ‘김성일’을 뽑아 두 분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두 분이 하는 말이 각기 정반대로 말하더라. ‘황윤길’ 이는 ‘풍신수길’이가 원숭이같이 생겨서 큰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고 ‘김성일’은 그가 쥐새끼같이 생겨서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며 공연히 ‘황윤길’이가 헛소리를 퍼트리어 민심을 동요케 한다고 비난을 하더라. 그러니 상감마마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그도 그렇고 당파끼리는 서로가 자기네 판단이 옳다고 핏대를 올리고 싸

우고만 있다니 정말 나라안 꼴이 큰 문제이며 야단이다.”

그러면서 사또는 그동안 왜놈들이 옛날부터 작고 크고간에 수없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서도 하나 하나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이를 듣고 난 논개의 마음에서도 사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놈들의 못된 근성을 알 것 같으며 나라안 꼴이 무척 걱정이 되며 선비들의 하는 짓들이 얄밟기까지 하였다.

그해 팔월 그믐께의 어느 날 밤이었다. 논개에게 안마를 받고 있던 사또는 문득

“이제 얼마 안있으면 논개도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하며 무척 처량하게 말을 하였다.

논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큰 일이 겹쳐져서 세월가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 데,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열여섯 살 되던 해에 이곳에 와서 그동안 두 번의 설을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또는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논개야.”

하고 부르더니

“너는 여기에서 끝나면 어디로 갈 작정이냐?”

논개는 사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도 생각하여 본 적이 없었다.

논개는 한참 망설이다

“소녀는 오나 가나 아무도 반기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전에 살던 큰골 주촌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듣고 있던 사또는

“음 — 흠.”

하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다.

그런 다음 사또는 나직한 목소리로

“논개야.”

“네.”

“너 기한이 다 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도 여기에 그대로 있어 줄 수 없겠느냐.”

순간 논개는 무엇 때문인지 목이 꼭 차오르는 것을 느끼었다.

“네말따라 제대로 오갈 데가 없고 여기마저 이렇게 비어 있고 허전한데 너마저 가버리면 나는 누가 시중을 들어 줄 것이냐.”

“황송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논개야,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와 같이 있어다오.”

논개는 어떻게 하겠다고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논개야, 가지 말아다오. 너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지내란 말이냐.”

사또는 분명히 논개가 없는 내아의 쓸쓸함을 예상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면서 안마를 계속하는 논개의 손을 꼬 — 옥 두 손으로 감싸고 언제까지나 놓아줄 줄을 모른다.

이제 열여덟의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르는 논개의 예민한 감정도 짜릿하게 사또의 뜨거운 체온이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비틀기처럼 어린 가슴이 쿵당쿵당 세찬 두 방망이질로 두근거리며 숨이 상떡까지 차 오르고 있었다.

논개는 사또에게 손을 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만이 점점 깊숙히 숙으려 들며 열기만 머리끝으로 치솟아 얼굴에 화로불을 부어 놓은 것처럼 활활 달아 오르고 정신이 아찔하여지며 몸 둘 바를 몰라 찢찢 매기만이 한다.

논개의 깊숙히 숙으려든 칠혹같은 고운 머리채가 넓은 최사또의 가슴에 닿는 순간 지금까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결한 처녀에게서만이 풍기는 청아하고 향긋한 논개의 체취가 최사또의 전신을 짜릿하게 자극하여 부르르 몸을 떨게 하며 자신도 모르게 잡았던 손으로 강하게 논개의 전신을 감싸아 성난 독수리가 어린 병아리를 채 가듯 큰 품안에 논개를 와락 끌어 안고 말았다.

최사또의 몸도 점점 뜨겁게 달아 오르며 거센 입김이 화로불같이 빨강게 달아오른 논개의 향긋한 고운 얼굴 여기저기에 거센 불김을 불어 넣고 있었으며 정신없이 헤매던 사또의 입술은 앵도빛보다 더 곱게 익어가는 논개의 입술을 한입에 강하게 빨아들이어 짓눌렀다.

논개도 이제 사랑에 취하여 머리가 몽롱해지며 제 정신이

아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사지가 발발 떨리며 자꾸만 삭신이 조그맣게 오그라든다.

사또는 한팔로 논개의 어깨를 끌어 안고 두 다리로는 아랫도리를 감싸으며 한손은 논개의 젖가슴 속으로 깊숙히 밀어넣어 속살을 어루만진다.

이제 성숙할 대로 성숙한 논개의 부끄러운 몸매는 부드럽고 미끈하며 툭툭 튕기는 탄력성이 손끝을 바르르 떨게 하며, 드러날 것은 제대로 오동포동하게 드러나 있고 들어가야 할 곳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어 균형잡힌 굴곡의 곡선미가 아름답기만 하다.

사또는 '아 - ' 하고 거센 한숨을 내쉬며 거센 손끝으로 세계 만지면 툭 터질 것만 같은 앵두꼭지처럼 솟아오른 말캉한 논개의 젖꼭지에 손이 닿자 논개는 온 몸을 움찔하며 몸통을 뒤틀었다.

사또는 논개가 그럴수록 온 팔에 힘을 더 주어 끌어안고 연신 아래 위로 속살을 더듬으며 애무를 하였으며 아랫배 깊숙한 곳 성감대가 예민한 곳에 손이 미치자 논개의 전신이 뒤틀리며 가는 경련을 일으키고 숨결이 할닥거리며 온 몸이 축축하게 젖어들며 저도 모르게 '음 - ' 하는 신음소리를 토해낸다.

팔월의 그믐밤은 점점 깊어가기만 하고 텅 빈 큰 내아는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하다. 이 고요속에 두 사람의 신음소리와 큰 한숨소리만이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다.

최사또와 논개는 어둡고 자유로운 이 공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몸을 맡기고 맡으며 남김없이 주고 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이 이어져 갔다.

그날 이후 논개는 간혹 사또의 이러한 행위에 몸둘 바를 모르고 찢찢매었다.

그러자 그해도 바뀌고 선조 이십사년 이월 이십오일 논개가 장수현감에게 재판을 받고 종살이가 시작된 지 만 이년, 장수현감 최경희는 논개의 종문서를 꺼내어 문서 맨 끝에 종살이가 끝났음을 적고 도장을 찍어 처리하였다.

이로써 논개는 종의 몸으로 이 년 동안 어려움을 다 겪고 그 가운데에서나마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할 도리와 여자로서의 지녀야 할 부덕과 나라의 주요성과 백성으로서의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총명한 재치로써 최사또와 김씨부인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고루 성숙하게 익히게 되었다.

최사또와 논개는 서로가 의지하여야 할 어찌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에서 정이 날로 깊어만 갔으며 홀로 있는 사또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체하고 이제 가라고 하여도 도저히 매정하게 떠날 수 없게 되어 버리었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의 입장에 이르르자 주위에 있는 사또의 친지들과 사또를 받드는 속관들의 권유에 의하여 모든 것을 넘어서 운명이라 생각하고 사또와 논개는 부부지간의 정을 영원히 맺게 되었다.

최사또와 논개의 새로운 삶이 자꾸만 깊어갈 무렵 고향인 화순에서는 사또의 모친 순창임씨가 여든여섯의 많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행실있는 사대부 집안의 자식으로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3년 복을 입기 위하여 관직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야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자 사또는 논개와의 헤어짐이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고향으로 같이 가자니 손녀딸 같은 첩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고을살이 체면에 말이 되지 않으며 여기 두고 가자니 논개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또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 결심을 내렸다.

사람이란 감정이나 정에 치우쳐서 사리를 어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 논개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복을 다 입고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 서로 헤어져 있기로 약속을 하였다.

사또는 헤어지기에 앞서 논개의 손을 꼬옥 잡고,

“논개야, 맺어지자 헤어짐이 여간 섭섭하지 않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이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내 어머니 상복을 벗고 다시 너를 찾을 터이니 그동안 섭섭하지만 고향에 돌아가 고사리골 당숙들 집에서 의지하도록 하여라.”

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사또는 전에 김씨부인이 쓰던 세간과 의복 패물들을 전부 챙기어서 달구지 두 대에 가득히 싣고 논개를 말에 태워 이방을 시켜 정중하게 모시게 하였다.

논개는 떠나기에 앞서 또 한번 기구한 운명에의 서러움에

흐느끼다 정신을 차리고,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소녀 떠나옵니다. 나으리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나으리께서 다시 찾으실 때까지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논개는 흐르는 눈물을 감싸며 이별의 아쉬움을 그리며 아침에 떠난 고향길이 해질 무렵에야 겨우 동군들의 반가운 마중을 받으며 고사리골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최사또가 늘 염려하던 대로 왜적은 선조 25년(1592년) 4월 13일 제1진으로 1만 8천여 명의 병력이 왜선 3백 70여 척에 나누어 타고 4월 14일 부산포에 쳐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이 장수고을 고사리골까지 알려진 것은 사월 스무닷새 날이었다.

“왜놈들이 쳐들어 왔을 때 김침지라는 자는 낮잠을 자다가 잡히었다면서.”

“우병사는 싸우지도 않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몽땅 잡혀 식구가 몰살했다더구만.”

“동래부사 송상현만은 끝까지 싸우고 버티다 죽은 모양이야.”

“원래 송상현이는 강직하고 애국심이 투철하였지.”

“울산군수란 자는 군사를 전부 거느리고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말았대야.”

“김해부사 최현감도 다 도망가버렸대. 그 죽일놈들.”

마을 사람들이 논개의 당숙집에 모여서 얻어들은 소식들을 한마디씩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논개는 전신에 느끼는 의분을 참을 길이 없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아치와 지키는 장수들이 나라가 위급한데 제 목숨만 살려고 도망치다니.’

왜놈들이 쳐들어 왔는데 나라 지키는 장수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면은 어디까지 도망할 것이며 장차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나니 안절부절을 못하며

‘사또 나으리도 지금쯤 이 소식을 들었으면 평소 남달리 나라 걱정을 하는 사또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걱정하고 계실까?’

논개는 날이면 날마다 장계 장터에 다녀온 사람을 찾아다니며 왜군 침입의 계속된 소식을 들으려고 온 신경을 쓰고 전에 내아에서 사또에게 얻어들은 짐승같은 왜적들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친다.

오월 중순에 들어서면서는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임금께서는 쳐들어 온 왜적들을 피하여 어찌할 수 없이 궁궐을 떠나서 의주까지 피난을 하였다는 소식이다.

“그놈들이 벌써 한양까지 쳐들어 갔대야.”

“이를 어찌하지 어찌해.”

“한양까지 쳐들어 간 놈들이 여기는 안오리라고.”

“아니야. 듣기로는 바로 이 민재 넘어 안의현까지 왜놈들이 조총을 메고 쳐들어 왔대야.”

“조총이라는 것이 뭔데?”

“아주 신기한 무서운 것이래. 기다란 대롱같은 것에다 화약 철환을 넣고 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면 팽 소리가 나며 불덩어리가 날아가 겨눈 사람은 백발 백중 맞아 죽고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대야.”

장터에서 듣고 온 조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듯 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치는 모양이구만.”

“아이 무섭지, 아이 무서워.”

모두들 얻어들은 소식들을 제각기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소름이 끼치는지 몸을 떠들다.

왜적들은 오월 초이튿날에 적장 ‘소서행장’이 한양을 점령하고 이어서 평양까지 빼앗고, 왜군들은 뺏은 곳마다 들어가 닥치는 대로 양민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고 한다는 들리는 소식마다 겁나는 소식 뿐이었다.

유월 십일 경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며칠 전에 전라, 충청, 경상관찰사가 이끈 십여만의 대군은 수원과 용인 근처에서 전멸되고 일부 권률장군이 이끄는 군사만이 겨우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논 피살이 하다가, 보리풀을 하다가 말고 모두가 근심과 걱정에 떡심이 풀어져 일손을 놓고 왜놈들에게 뺏기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먹고나 보자고 날이면 날마다 소나 돼지를 잡아 동군이 나누어 먹고 닥쳐올 운명에 대하여 모여서 걱정만 땅이 꺼져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들려 온 소식에 논개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여 놀랐다.

최경희 사또가 자기 형님 두 분하고 조카하고 넷이서 직접 의병을 이끌고 무주 금산쪽에 쳐들어온 적을 무찌르려고 장계 장터를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의 높은 충성심과 전에 사또로 있을 때의 선정을 베푼 데에 대한 고마움에 이백여 명이 동원되어 소를 잡고 술을 거두어 크게 대접을 하였다는 것이다.

동네 일을 보는 약수가 장계에서 올라오자마자 논개 당숙한테 소식을 전하자 부엌에서 밥을 짓던 논개는 저도 모르게 뛰어나와,

“사또 나으리께서 장계를 지나셨다고요. 언제쯤 또 장계를 들르신다는 소식은 없던가요.”

하고 물었으며

논개는 그리움과 궁금함에 안절부절하며 여기까지 와서 쪽지 한 장도 주지 않은 사또가 야속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또 며칠이 지나서 장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금산 무주지방에서 최사또의 의병이 왜병을 수없이 무찔렀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고 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무주의 웃지재에서의 싸움에서는 왜적을 무찌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자가 그렸다는 청산 백운도를 되찾고 그리고 일본에 단 두 자루밖에 없다는 9자 2치 4푼이나 되는 유명한 언월도(일본칼)를 왜장에게서 빼앗았다는 즐거운 소식이 또 들려 왔었다.

논개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오금이 저리어서 못견디었다.

왜군들이 지독하고 사납다는데 나으리께서 무사하셔야 할 터인데 일단 그 걱정 뿐이며,

집뒤 장독대에 칠성당을 차려놓고 밤낮없이 사또의 무사함을 하늘에 지성으로 축수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며칠 후에는 뿔뿔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최사또가 다시 진안쪽 왜적을 무찌르려고 장계쪽으로 들러 지나려고 하자, 장계 근처 젊은이 수백 명이 모여 가는 길을 막아서며 의병에 가담할 것을 간청하여 그쪽 왜병을 치는 것은 형님과 조카에게 부탁하고 최사또는 도장골 앞뜰에다 의병 조련장을 만들어 신병 훈련을 시킨다는 소식이었다.

그러자 이삼일 후에 신내마을 김풍헌이 고사리골로 올라와

논개 당숙을 만나 최사또의 전갈이라 하며 신내에다, 자기가 전에 논개를 민며느리로 사들이려는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집 한 채를 깨끗이 치워두었으니 그쪽으로 내려와 사또가 신병훈련을 시키는 동안이나마 시중을 들어 달라는 전갈이었다.

다음 날 논개는 당숙하고 같이 김풍헌이가 마련하여 놓은 집으로 가 최사또가 나타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마침내 의병들의 훈련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 사또는 싸움 옷차림으로 칼을 차고 활과 화살통을 멘 채로 말을 몰아 김풍헌의 안내로 집에 들어선다.

논개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나으리.”

하며 반가이 품안에 뛰어 들었다.

최사또 역시

“오 — 논개야. 보고 싶었다. 그동안 잘 있었나?”

서로가 체면도 잊은 듯 서로의 손을 꼬옥 쥐어잡고 품안에 끌어 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논개는 그날 밤 그동안 보고싶고 그리던 마음을 통털어 정성을 다하여 주안상에 차려 올려 놓고 사또의 술시중을 들었다.

최사또는 만나는 기쁨 현출한 김에 술 몇 잔을 들며 그동안 화순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쟁터에서 왜병과의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논개의 고사리골에서 지냈던 이야기도 청하여 아기자기한 소식을 주고 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시 만남의 기쁨을 나눈다.

사또는 술병에 술이 바닥이 나도록 마시더니 술기운이 오르는지 술상을 구석으로 밀어 붙이고,

“논개야! 술이고 뺏이고 너만이 그리웠고 너만이 보고 싶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며 넓은 가슴의 팔을 짝 벌리고 논개 앞으로 다가가 논개를 힘껏 끌어 안았다.

“나으리 정말이에요. 가련한 소녀를 잊지 않으셨어요? 소녀 역시 오매불망 나으리 생각에…….”

논개는 끌어오르는 걱정애 목이 메이어 더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사또의 가슴에 깊이 묻는다.

최사또는 훈훈한 입김으로 논개의 얼굴을 더듬었고 뜨거운 손끝으로 논개의 온 몸을 아는 길 찾아 들듯이 여기 저기 더듬고 애무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하던 뜨거운 열기에 점점 달아 오르고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치마폭 풀리는 사그락 사르르 하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이윽고 저 깊은 어둠속에서 우주가 무너져 내리고 폭풍우가 휘몰아쳐가는 걱정이 ‘음! 아!’ 하는 무거운 신음소리가 이어지다 캄캄한 늪속으로 잠잠하게 사라진다.

그로부터 칠개월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의병의 조련과 틈틈히 무주 진안 장수지방에 나타난 왜적을 모조리 무찌르며

이곳을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최사또와 논개는 밤이면 다시 만나 전에 장수 현청 내아에서 안마를 하듯이 최사또의 온 몸을 풀어줘 의병활동의 사기를 높이어 주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어 선조 26년 계사년 사월 의병장 최경회는 그동안 뛰어난 전공이 상감께 알려어져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사또는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논개에게 들러 중책을 맡게 되었음을 알리고,

“논개야. 내가 또 새 임지로 떠나야 하겠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 고사리골로 가서 기다리겠느냐?”

“이제는 싫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기 싫습니다. 소녀 역시 남자 차림을 하고 저 의병들과 같이 싸움에 나서서 왜적을 무찌르겠습니다.”

“뭐? 네가 의병에 참가한다고! 참 장한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가 꺾 험악하다. 왜적들의 독살스러움이 여간 아니고 그리고 젊은 남자들 틈에 너 혼자 끼여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가서 임지를 정하고 꼭 너를 데려갈 터이니 세간을 모두 정리하고 연락하면 곧 올 수 있도록 차비를 차리고 기다리라.”

서로가 만난 지 일곱달만에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또 다시 섭섭한 이별의 길을 떠나야 했다.

논개의 거룩한 죽음

경상우병사 최경희가 머무를 병영은 창원땅이었다.

논개는 신내마을에서 일곱달 동안 산 세간살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정리를 하여 이제라도 떠날 수 있는 차비를 하고 최병사의 기별이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병사 떠난 지 십여 일이 지나 보름이 넘어도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는다.

논개는 이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도 없고 머무를 필요성도 없어서 그렇다고 또다시 고사리골로 들어가기도 난처하고 하여서 혼자서 창원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지금까지 신세를 진 김풍헌에게 다시 부탁하여 말을 한 마리 구해 오게 하였고 허술한 남자차림을 하고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허술한 남자 차림을 하여도 남장을 차린 논개는 알맞게 날씬한 몸매와 키에 예쁘장한 얼굴 모습에 유난히도 해맑은 살색과 수정처럼 반짝이는 눈빛 위로 놀러 쓴 갖의 모습이 더욱 돋보여 아름답기만 하였다.

논개는 주위에서 길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사람, 가라는 사람, 전송하러 나온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 일일이 떠나는 인사를 나누고 며칠 전에 말타기를 연습하여 두었던 신내마을

앞넷가 옆에 있는 큰 바위옆으로 말을 몰고 가서 바위 위에 올라 말을 타고 김풍현이가 주선하여 준 길동무 두 사람을 데리고 경상도를 향하여 정든 고향을 떠났다.

논개는 모색골을 빠져 나와 벽계현 터를 지나 개안들 명덕뿔로 접어들어 육십령고개의 울창한 숲속 길을 거슬러 올라 넘어갔다. 고개를 넘어 복골마을을 지나고 치령징이를 지나 최병사를 찾아 갈 길을 재촉하였다.

서하 봉전마을을 지날 때에는 외가에 들러보고 싶었으나 이런 꼴을 외가 식구들에게 보이기가 민망하여 그냥 가기로 하고 먼 빛으로 외가를 바라보았다.

외가를 바라본 논개의 심정에 가지가지 감회가 어린다. 어머니와 외가에서의 피신생활, 장수 형리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어머니의 다시 외가에서 돌아가심, 어머니의 무덤이 이곳 어느산 기슭에 자기를 애타게 찾다가 눈을 제대로 못감고 누워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않는다.

논개는 가는 말을 멈추게 하고 저만치 산기슭에 있는 초라한 무덤이 어머니 무덤일 것이다 생각하고 말 위에서

‘어머니, 논개 여기 지냅니다. 이 못난 불효 여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마음 속으로 큰절을 올리자 왈각 목이 메여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여 천지가 부엩게 흐려지며 앞길이 캄캄하여진다.

‘말아, 어서 가자. 여기서 아무리 머무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서 가자. 살길을 찾아서 어서가자.’

하고 난생 처음길을 뒤돌아 보고 되돌아 보며 재촉을 하였다.

논개는 서하를 지나 안의에서 하룻밤을 자고 산청으로 향하여 가던 중 오부땅에서 왜적의 척후병에게 남장을 하였으나 너무나 예쁘게 생겼음에 수상쩍어 그만 붙들리고 말았다.

논개는 왜적들의 끈질긴 심문에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신분과 행방을 감추었으나 따라간 길동무 한 사람이 왜적의 꼬임에 빠져 논개의 신분과 행방을 털어 놓고 말았다.

왜적들은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큰 것을 얻었다고 좋아 날뛰고 있었으며 갖은 추태를 다 부리려 한다.

논개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이제 마지막 올 것이 이렇게 쉽게 와 버렸구나 싶으며 그리운 남편 생각이 왈칫 솟아오르며 또다시 남편을 찾아 살길을 헤매다 불행에 부딪친 기구한 운명을 또한번 한탄하고 이제 왜적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욕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결을 하여 버리는 것이 떳떳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을 틈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왜놈 두세 놈이 꼭 붙어 따라다니며 그럴 틈을 주지도 않고 감시를 하며 저희들 장수에게 갖다 바치는 큰 선물을 얻었다고 좋아하며 마산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논개가 포로가 되어 함안의 양곡에 이르렀을 때 마침 충청부사 황진이가 진주성으로 집결명령을 받고 가던 중 왜적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논개를 발견하고 왜적을 일제히 공격, 소탕을 하여 하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간신히 목

숨의 구제를 받았다.

황진 장군은 최병사와 전에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논개와 최병사와의 관계를 안 다음 극진하게 인사를 하며 대접을 하여 주었다.

“부인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행이라 생각됩니다.”

“장군님, 전에 최병사 나으리에게서 훌륭하신 장군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장군님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구제 받아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논개는 현출하게 잘 생기고 젊고 씩씩한 황장군의 당당한 위풍에 억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부인 이제부터 제가 가마로 편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놓으시지요.”

하며 미리 의병들에게 마련하게 한 가마를 대령시키고 오르라고 하였다.

“장군님 황공하옵니다. 이 은혜 평생을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논개는 송구해 하며 가마에 오른다.

씩씩하고 용감한 의병대열은 흙먼지를 일구며 거침없이 진주성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였다.

가마를 타고 가면서 논개는 요 이삼일 사이의 자기의 운명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이 신기하기만 하고 저승에서 깨어난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하여 그리운 낭군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며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의병 대열의 행군은 논개를 창원까지 호위하려고 방향을 바꾸어 창원에 이르러 최병사와 황진부사는 오랜만에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되었다.

서로의 뜻이 같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는 애국심이 뛰어난 두 장군은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최병사님 오랜만입니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일로 황부사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최병사님은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 하 하 하.”

두 장군은 서로가 쾌활한 너털웃음을 웃으며

“또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오랜 옛 친구처럼 다정한 인사를 주고 받는다.

“최병사님”

“예.”

“소장이 장군의 진영을 지나다 왜적을 무찌르고 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려다 그래도 대장부 도리

로써 장군님의 진영이기 때문에 장군님에게 드리고 갈려고 일
부러 길을 돌아 왔습니다.”

“아니요. 황장군님. 전쟁터에서의 전리품은 진영에는 상관없
이 얻은 장군님이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장군님과 저와의 사이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지요.”

“아니 사양말고 가지시요.”

“최장군님, 그럼 틀림없이 제가 가져도 후회하시지 않겠습
니까.”

“아, 물론이지요.”

“그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전리품을 한
번만 보시지요.”

“자, 호군장. 그 가마속의 전리품을 이리 모시고 오시오.”

논개는 가마속에서 황장군의 재치있는 최병사와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벌어진 순간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호군장이 가마 문을 열자 가마문을 빠져 나오며

“나으리. 소녀이옵니다.”

“아니, 이거 논개가, 논개가 어찌된 일이냐?”

최병사는 예상밖의 일에 눈이 휘둥그래지며 놀라움과 반가
움에 어찌할 줄을 모른다.

황부사는 최병사를 바라보며

“자, 최장군님 말씀대로 전리품을 제가 가집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 전리품은 저의 소유였으
니까 이것만은 제발 저에게 돌려 주시어야 하겠습니다.”

논개는 두 장군 사이에 끼어서 산청 오부에서와 함안양곡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황장군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으리와의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최병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큰일 날 뻔했오. 참으로 천행이오.”

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고 황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날 밤 두 장군과 논개는 다시 만남의 즐거운 술자리를 벌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과 진해에 있던 적의 배 5백여 척이 안골포 제포로 들어와 적의 선봉군 육만이 육지로 올라와서 김해 창원을 차지하고, 다시 쳐들어와 함안까지 차지하고, 의령을 거쳐 진주성을 목표로 적병이 몰려오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흩어져 있는 병력을 모아서 왜적을 막으라고 진주성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우리 병력은 도원수 김명원, 전라순찰사 권율 등이 의령에 모여 있었고 여기 진주성에는 무진의 의병장 김천일의 오백군사와 충청부사 황진이 칠백, 사천현감 장윤이 삼백,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육백, 또 김해부사 이종인, 복수대장 고종후, 진주목사 서예원 등이 수백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여기 성안 백성과 합하면 육칠만쯤은 되었다.

최병사는 다시 조정의 명을 받고 진주성으로 올라와 논개를

성안 호국사 앞쪽에서 집을 빌려 머무르게 하였다.

최병사는 논개의 집을 마련하여 주고 떠나며

“적의 선봉군과 밀고 내려 온 병력이 합하여 십만 정도는 될 것같구나. 우리는 백성과 합하여도 육칠만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되겠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힘껏 싸워 이기고 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하자.”

“그러합니다. 소녀도 죽음을 각오하고 진주성을 지키려 하오며 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별 다른 방법이 없지. 끝까지 싸워 승리를 거두고 다시 만남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자.”

하며 최병사는 논개의 손을 꼭 잡아주고 축석루 남장대를 향하여 떠났다.

그로부터 닷새 후 1593년 6월 21일 여덟시 경부터 왜적은 일제히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성안에서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군인, 백성, 남녀 할것 없이 총동원하여 성을 지키기에 나섰다.

왜적 수천 명은 동북쪽 산으로 올라가 성안을 살펴보고 내려가더니 조선팔도 3백 50군에 퍼져 있던 왜적이 진주성으로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성안은 물끓듯 수선거렸으며 진주목사 서예원은 아예 처음부터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저히 이 많은 적을 막아낼 재간이 없으니 성을 내주고 피하였다가 원병을 청하여 물리치자는 야삼한 꾀를 말하여 모든

장수들의 비위를 몹시 거슬리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김천일이 총지휘를 맡고 수성장에 황진우병사 최경희 등 싸움에서의 명장들이 각기 맡은 부서에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었으며 백성들 역시 지난해에 싸운 경험을 되살려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처음 왜적들은 성밖에 흙과 돌을 날라 높은 흙산을 만들어 거기에 올라가 성안을 향하여 조총을 쏘대어 갑자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우리쪽에서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아녀자들은 남북을 차려 입고 나와서 흙돌을 날라 흙산을 쌓고 그 흙산에서 완구포를 터뜨리어 적의 산을 무너뜨리고 적병을 수없이 죽이였다.

논개도 남자 옷차림으로 맨 앞장에 서서 제일 분주하게 흙산 쌓기와 군대의 뒷바라지 하기에 온 힘을 다하였다.

적들은 또 긴 나무로 만든 망대같은 판자대를 군데군데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올라 성안으로 불덩어리를 만들어 던짐으로써 초가집을 불태웠다.

아군은 이에 대항하여 흙산에 올라가 불화살을 쏘아대어 판자대를 불태워 버리였다.

왜적들은 또 남강에 뗏목을 수없이 만들어 띄워놓고 강을 일시에 건너와 성벽을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쪽은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한 바위와 돌을 성벽 아래로 빗발치듯 굴러 내렸고 큰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이어 기어 올라온 왜적들 얼굴에 퍼 부었다. 그런가하면

한쪽에서는 긴 화를 묶어 불을 댕기어 기어오르는 적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지지어댔다.

그럴 때마다 적들은 우수수하게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물속에 잠기곤 하였다.

실로 울부짖고 소리치는 고통소리가 진동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논개는 잽싸게 몸을 날리면서 동네 아낙네들을 불러 모아 떼를 지어서 돌을 나르고 물을 끓이고 화를 묶고 하는 일을 분간하여 잘 움직이게 하였고, 군대들의 뒷바라지도 요령있게 잘 해대었다. 왜적들은 공중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화상으로 껍질이 훌렁 벗기어지고 참으로 처참한 싸움이었다.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하늘에서는 계속 장마날씨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었다. 왜적들은 아군의 방어전에 실패하자, 다시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레 위에다 두꺼운 판자로 큰 쌀괘같은 궤짝을 짜 엮어놓고 생 쇠가죽을 여러겹 씌워 갑옷을 입은 병사가 밀고 들어와 성벽에 붙여 놓고 그 속에서 쇠지렛대로 성벽의 돌을 하나 둘 빼내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에서 돌을 굴리고 물을 끓여 부어도 끄떡도 않고 자꾸 성벽돌을 뽑아내기만 하였다.

성이 포위된 지 아흐레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못난 장수 서예원이 서문쪽에서 허술하게 지키는 틈을 타서 날마다 퍼붓는 폭우 때문에 돌과 흙으로 섞어서 쌓아놓은 죽반죽 같은 성벽

을 무너뜨리고 왜적들은 물밀듯이 쳐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짚싸게 발견한 황진장군과 사천현감 김준민, 최경희 병사가 달려와 필사적으로 군민을 지휘하여 막아냈으나 홍수같이 밀어닥친 적병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점점 밀려들고 적병 십만대군은 성안으로 순식간에 개미떼처럼 퍼져 들어와 닥치는 대로 찌르고 죽이고 아녀자를 겁탈하고 불사르고 뺏는 잔인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이통에 황장군과 김준민 현감이 적탄에 전사하고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이 왜놈들에게 살상을 당하고 살아남은 장수 김천일, 최경희, 고종후는 남장대 축석루에 몰려와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사태에 상감이 계신 북쪽을 향하여 절을 네 번 올리고 술을 한 잔씩 따라 들고

축석루 위에 세 장수는

술 한 잔을 들고 웃으며 남강을 가르키노라.

남강물이 도도히 흘러가노니

저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혼도 죽지 아니하리

라는 마지막 절명의 시 한 수를 남기고 관인을 지닌 채 강물에 뛰어들어 싸움에 패전한 원한을 풀었다.

나머지 장수들과 성안에 살다 남은 백성들도 세 장수의 뒤를 이어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은 자가 어찌나 많은지 남강 오 리까지 시체가 가득하였다.

성이 포위된 지 아흐레 동안에 크고 작은 싸움이 백여 번이었고 우리편 죽은 사람이 오륙만 적의 죽은 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 그 끔찍함과 치열함이 임진왜란 이후 이진주성 이상가는 지독한 싸움은 없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처참한 전쟁터 진주성에 깔리자 이 폐허가 되어버린 진주성안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또 벌어지고 있었다. 전쟁에 이긴 왜병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민가를 누비며 금은보화를 뒤지고 뺏고 겁탈하고 찌르고 죽이고 비명을 지르고 끔찍한 지옥같은 무서운 광경이 밤새껏 벌어지고 있었다.

논개는 원병을 청하러 성밖을 나서는 바람에 미처 장병들과 같이 후퇴하지 못하고 뒤져 버리자 날쌔게 호국사 앞 거처로 숨어들어 집주인 부부에게 온 집안 살림살이를 산산히 흐트러 놓고 왜놈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간 것처럼 앞 뒷문 대문까지 활짝 열어 제쳐놓고 빨리 피신을 하라고 시키고 자기는 마당 구석에 있는 짚가리 속에 깊이 숨어 버렸다.

이윽고 왜놈들이 이곳까지 찾아 들었으며 집안의 흐트러진 모양을 살피고 무엇인가 알지도 못할 소리를 지껄이며 들어서다 되돌아 갔다. 아마 어떤 놈이 미리 들러 한탕해 가지고 갔구나 하는 눈치였다.

논개는 간이 콩알만하게 되어 가지고 한밤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짚가리 속에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적장들은 왜병들을 불러 모으고 간사한 앞잡이들을 내세워 흐트러진 민심을 챙기려고 꾀하고 있었다.

논개는 거처한 집 안주인을 시켜 밖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으며 최병사의 순절의 소식을 듣고 전쟁에 패전함과 남편을 잃음에 또 한번 남모르는 피눈물나는 통곡을 하였다.

‘나으리, 가련한 이 소녀는 나으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에 이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 했는데, 이게 웬일이옵니까? 나으리께서 혼자 먼저 가버리시면 이 가련한 소녀 논개는 사고무친 이곳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피를 토하며, 창자를 쥐어 짜고 땅을 치고, 몸을 뒤틀었다.

한편 살아 남은 백성들은 죽을 기회를 놓쳐서 못 죽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지경이며 왜놈들의 발굽 밑에 갓은 욕과 짐승같은 학대를 당하며 시체 처리와 뒷처리를 하였다.

왜적들은 대충 시체처리가 끝난 다음 민심을 살피며 며칠 후 축석루에서 전쟁에 이겼다는 큰 잔치를 벌일려고 기생들을 모으고 술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였다.

기생을 모아 들이는 일은 왜적의 앞잡이들의 연락에 의하여 진주의 머리기생 초향이가 모으기로 되어 있었다.

논개는 숨어서 밖의 돌아가는 꼴을 집주인 내외분을 통하여 소상하게 얻어들을 수가 있었다.

밖에 갔다 돌아온 집주인은 논개에게 7월 7석날 축석루에서 왜적들이 큰 잔치를 열며 기생을 모으고 술을 거두어 들인다

는 소식을 전하고 초향이가 이를 차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 다닌다는 소식도 전하여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순간 논개는 번개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다.

‘임을 따라 그곳에 나가서 죽자.’

논개는 처음 와서 거처한 집 소개 문제로 두서너 차례 만나서 낮이 익은 적이 있는 초향이네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초향이네 집에 이른 논개는 신내마을을 떠날 때 챙기었던 금가락지 두 개를 내놓으며,

“언니, 먼젓번 집 마련할 때 수고가 많았어요. 그때 미처 그 은공에 보답 못해서 죄송하였습니다. 얼마 안되고 늦었지만 받아 주세요.”

하고 내놓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두서너 차례 사양하는 척하더니 받아 넣으며

“그런데, 논개야. 너는 이제 최병사도 순절하고 하였는데 어떡하지?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왜놈들이 득실거리어 놔두지 않을 것이고.”

“언니 그래서 구차한 이 목숨 때문에 언니한테 상의하려고 찾아왔어요.”

“어떡하려고”

“글세요, 언니 비굴하지만 그이가 가버린 이 마당에 저라도 목숨이나 살아봐야 하겠어요. 어차피 그놈들한테 놀려 살

바에야 어찌 하겠어요. 언니 미안하지만 기생명부 맨 끝자리에다 진주기생 논개라고 적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전승 축하 잔치자리에도 참석하여 언니를 따라다니며 목숨을 잇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뉘, 네가야! 금시 많지도 변했구나. 그게 정말이니. 그렇게 하고도 너 후회하지 않겠니. 그렇게 똑똑한 네가.”

“정말이요. 남편도 가 버리고 청춘이 만리같은 제가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봐 주는 이 없는 외로운 타향에서 언니 부탁해요.”

“글쎄, 기생은 그저 기생이 아니야. 춤도 출 줄 알아야 하고,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너 그런데 그런 것을.”

“언니 그건 많이는 몰라도 장수 내아에 있을 때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조금씩 배워둔 것이 있었어요.”

“그래! 용케도 맞아 들어가는구나. 자신있으면 해 보려므나.”

“자신 있어요. 언니 시킨대로 하고 왜놈들을 울거내어 언니에게 모두 바칠게요.”

“너 기생으로 꾸미면 절세 미인이라 진주 일등 기생이고, 그 잔치자리는 너의 독차지가 될 것이다.”

“언니가 계시는데요. 언니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니. 오갈 데도 없는 불쌍한 애가 되었고, 목숨은 부지해야 하고, 하니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기생명부에다 진주기생 논개라고 올려 적을 터이니 내일 모레 7월 칠

석날 곱게 단장하고 저녁때 미시 경에 축석루 잔치자리로 나오도록 하여라.”

“언니 살려주어서 고마워요. 죽어도 그 은혜 잊지 않겠어요.”

논개는 인사를 하고 물러 나오며 마음 먹은대로 잘 됐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논개는 칠석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소반 위에 떠 놓고 상감이 계신 북향에 사배를 올리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렸다.

왜적에 대한 울분을 터트리고 나라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임이 가신 마지막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차비를 차리기 시작하였다.

살결과 얼굴은 그러지 않아도 원래 백옥같이 고운데다 분을 곱게 바르고 입술과 볼에는 예쁘게 연지를 찍고 검은 머리는 틀어올려 쪽을 저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를 지르고 열 손가락에 금, 은, 옥가락지를 모두 끼고 다섯 폭짜리 남색 은조사 치마와 옥색 깨끼저고리를 입는데다 앞자락에 청실홍실로 곱게 엮은 노리개를 보기 좋게 늘이고 하이얀 외씨버선에 분홍 비단신을 신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나섰다.

논개를 만난 초향이는 깜짝 놀란다.

“야! 논개야. 정말 너 예쁘구나! 평소 예쁘다고 생각하였지

만 이렇게 고운 줄은 정말 몰랐구나. 참으로 절세미인이야.”

하며 몇 번이나 탄복을 한다.

초향이의 주선으로 축석루 왜장들의 술잔치 자리에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초향이가 예상한 대로 논개가 단연코 그 잔치의 자리에서는 으뜸으로 돋보이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늘어 앉은 왜장들에게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고 난 다음 왜장들은 노래와 춤을 청하여 맨 처음 초향이가 멋들어지게 노래와 춤을 춤으로써 각기 차례에 의하여 춤과 노래가 무르익어갔다.

왜장들은 조선여인들의 흐르는 듯한 넘실대는 날개같은 고운 색깔의 의복과 멋들어진 춤과 노래에 취하여 침을 흘려가며 넋을 잃고 있다가 저절로 흥에 겨워 쪽바리 도깨비같은 소리를 지르며 개구리 뛰듯 깡충대기 시작한다.

논개는 그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일 우두머리 왜장에게 눈을 돌리고 춤을 추며 썩웃음을 던져 주었다.

논개의 이 아릿다운 모습에 흘러 건장한 “모곡춘 육조”라는 왜적 선봉장이 술에 담뱃 취하여 비실비실 다가왔다.

“오! 오! 논개가 제일이야, 제일”

논개는 덮치며 달려드는 그의 손을 살살 피하여 돌아가며, 춤을 사뿐 사뿐 추며

“초강의 어부들이 고기잡아 삶지마라.
굴원의 혼이 고기 뱃속에 들었으니
아무리 삶은들 익을 줄 아느냐?”

하며 혼자서 숙연히 순절을 결의하는 노래를 뽑았다.

논개는 모곡촌의 손을 잡는 듯 마는 듯 축석루 아래 반반한 바위 위로 모곡촌을 띄어 내려갔다.

왜장은 헤벌레하게 입을 벌리고 좋아하며 논개가 정말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비실비실 논개가 이끄는 대로 큰 바위 위까지 따라갔다.

왜장은 제 흥에 겨워

“논개요, 논개요!”

연신 이름을 부르고 깡충깡충 뛰며 논개를 껴안으려 달려든다.

논개는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고 열 손가락가락지 낀 손으로 다시는 못빠져 나가게 모곡촌의 허리를 강하게 나꾸어 쳤다. 동시에 온 몸의 힘을 다하여 뒤로 제치고 왜장을 배에 실어 질질 끌어 뒷걸음을 치며 바위가로 나갔다.

“남편의 원수. 나라의 원수놈아, 너 죽고 나 죽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모곡촌은 중심을 잃고 빠지려거린다.

그는 논개의 열 손가락가락지 깍지속에 꼭 끼인 한덩어리가 되어 풍덩 물속으로 빠져 버리었다.

“아 — 으 — ㄱ”

모곡촌의 외마디 비명만이 원한의 강가에 메아리치다 남강
물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논개의 마음처럼 빨간 저녁놀을 받
으며 도도히 흘러가고만 있었다.

세월이 멀수록 더 다가서는

죽어서

죽지 않은

겨레의 가슴마다 뜨겁게 살아 숨쉬는 님의 이름

천도 만도 더 넘게

하얀 무궁화로 피어 납니다.

마지막 한 송이 명울진 목숨

그리운 옛집으로 돌아가듯

원수와 노래하고 춤추며 떨어져 간

서릿발 치는 눈썹

그믐달 보다 더 가늘고

굳어진 입술

앵두빛보다 더 곱습니다.

사납게 밀려든 검은 흙탕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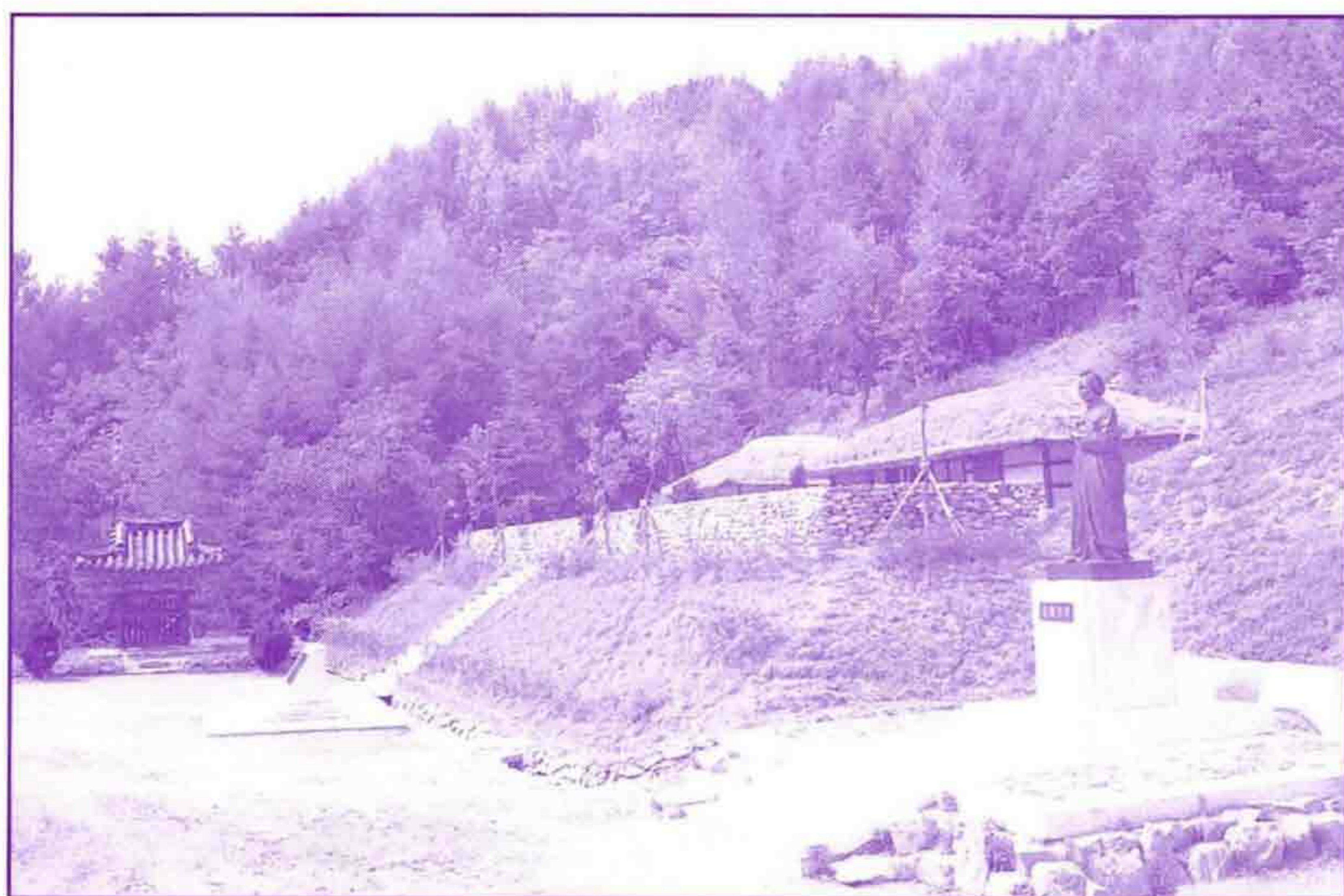
이빨 아삭이며

가녀린 삭신으로 막아낸

겨레에 높이 든 햇불
죽어서 새롭게 피어나는
아릿다운 호국의 성녀입니다.

맨살을 자르는 무너진 아픔.
처참한 사면초가 저리는 피리소리
애처로운 예지에 빛나는 샛별
의기인들 어찌하며
부실인들 어찌하리.

아 —
미천하여 의롭게 죽어간 당신은
죽어서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구국의 여왕입니다.
구원의 여신입니다.



주논개 생가(장계면 주촌)

논개 순국의 역사적 의미
각 문헌상에 나타난 논개의 출생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논개의 생애

주촌에 뜨고 지는 달그림자

논개 순국의 역사적 의미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주변 국가에 의하여 크고 작은(931번) 외침을 수없이 당하여 왔으며 멸망의 위기를 겪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대륙의 한(漢)족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몽고족과 일본족, 러시아족도 몇 번씩이나 거들었다.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 삼키려는 무서운 적들에 의하여 꿈쩍없이 포위를 당한 채 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당장 총칼을 들이대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소련은 그들의 앞잡이 북한을 이용하여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우방이라는 일본도 겉으로는 미소 띠는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명백하게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남북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우리가 그들의 경쟁 상대로 솟아 오를까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과거 현실에서 유독 우리들에게 큰 타격을 준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선조 25년(1592) 4월에 일본의 수령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소서행장(小西行長), 가등청정(加藤清正), 흑전장전(黒田長政) 등을 시켜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하여 전 국토를 초토로 짓밟았으며 선조임금은 이에 견디지 못하여 의주까지 피란하기에 이르렀다.

뒤에 명나라의 원병과 권율 등의 반격으로 일단 후퇴를 하였으나 선조 30년(1596)에 재침(정유재란)하여 전후 7년간을 끌다가 선조 31년에 물러간 미증유의 수난의 전화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난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위치가 대륙과 해양, 해양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더러 있으나 그 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이익·명분 주장만 내 세우는 당파 싸움에 의한 국론의 분열 등으로 외침에 대항할만한 국력이 약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우리들의 군관민이 수 없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많은 죽음 중에서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죽음이 해전의 성웅 이순신과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왜장을 꺼안고 죽어간 논개의 죽음인 것이다.

그런데 후세가 논개의 죽음을 기리는 이유는 성벽을 대치하여 적과 열흘간의 싸움 끝에 성이 무너지고 6만여 성민이 학살 당하고 자결한 처참한 상황에서 갓 스므살의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기꺼이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겨레의 원수였던 가장 사나운 왜장을 죽여 그들의 살벌한 짐승같은 기세를 꺾어버려 호남지방으로 진격하려는 전략을 후퇴시켰다는 사실과 그 거룩한 순국으로 군관민의 호국정신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논개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다.

각 문헌상에 나타난 논개의 출생

사람은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출생이 있게 되는 것이다.

먼저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최초로 기록된 것은 조선 후기였다. 논개의 순국 현지인 진주에서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에

무군사(撫軍司)의 관원이 파견되어 임진란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 가족들에게 면역을 시키고 미태를 지급하였다.

이때에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 무군사 관원이 되어 세자를 따라 삼남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인 갑오년 선조 27년(1594)에 삼도순안어사로 파견되어 이 때에 진주성에 들러 논개의 순국사실을 채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채록된 내용에는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로 시작되어 출생지, 생년월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어서 논개가 단독으로 왜장을 유인하여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651년 논개 순국 58년 후 효종 2년 재상 간심관(災傷看審官)인 오두인(吳斗寅)이 쓴 의암기 양곡집를 위시하여, 명암(明庵)정식(鄭栻, 1664~1719)의 의암비기,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1677~1756)의 의기전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순국의 사실과 역사적인 인식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 왔으나 거사 이전의 출생 생애에 대하여서는 짧은 기간 동안 진주에 머물어 있었으며 성이 함락과 동시에 나라의 원수,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단독 결심, 단독 결행으로 전혀 이전의 삶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누구도 언급이 되지 않은 미궁에 싸인 것이다.

그러다 최초로 논개의 출생지에 대하여 장수와 관련시킨 문

헌 기록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다.

순조 원년(1800)에 간행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서

妓論介 長水人 公(崔慶會) 所旣也 隨入晉州 乃城陷 盛其塗
澤誘賊將 二人對舞南江危巖上 兩手抱二賊墜江而死 後人鐫其
巖 立碑和順

기생 논개는 장수인인데 최경회가 좋아하였으며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 성이 함락되자 곱게 치장하고 왜장을 유인 남강
의 위암위에서 둘이서 춤을 추다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떨
어져 순국하였다. 후인들은 그 바위를 의암이라 부르고 비를
세웠다

로 순국후 207년만에 출생지가 장수라고 희미하게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나 오래되고 답답한 소생인가. 죽어서 죽
지 않은 파랑새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이어서 헌종 5년(1839)에 간행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 1 충신몽포편에

論介 長水官妓 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
論介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 抱而同投樓下而死 因
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 임진년에 성이 함락된 후 왜장들이 여는 축석루 큰 잔치에 논개가 참석 왜장이 크게 취한 틈을 타서 왜장을 끌어 안고 다락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로 인하여 그곳에 비를 세우고 관에서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장수 본 고향에는 정려가 있다.

〈삼강록〉에는 논개가 장수 관기로 기록되어 있고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고향의 장수에 정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논개 순국후 279년이 지난 뒤 고종 9년(1872)에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중 〈장수현읍지〉 절의편 의기 논개조에는

義妓論介 — 任縣內面楓川人 忠毅崔公慶會本縣時所眇也 崔公以晉州兵使 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

의기 논개는 본현의 임현내면 풍천 사람으로서 충의공 최경희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 갔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논개는 기녀가 아닌 의기로 거사를 위하여 기생으로 가장하였음이 제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장수인이라고 기록되던 것이 좀더 구

체적으로 임현내면 풍천 사람이라고 출생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까지 목숨을 바친 거사를 하고도 뿌리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들을 하였는데 오랜만에 출생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논개는 거사지인 진주에서 200여 년 동안 객귀가 되어 헤메다 겨우 고향을 찾아들어, 죽어서 죽지 않는 영혼으로 되살아나려는 순간에 한말의 가혹한 일제의 재침, 식민지화가 되면서 민족혼 말살정책 때문에 논개의 고향은 다시 땅속 깊숙히 묻히면서 숨어 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도 한참만에 1970년에 전북매일신문사 기획으로 「명문의 고향」에서 백남혁이 기록한 사료에

장수 논개는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의 웅봉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 팔방이 우중충한 산협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부락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 년 전 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의 단심 목숨과 바꾸고 그 충과 절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 주논개가 낳은 곳이다.

고고한 산새들만의 고향인 양 인적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썩터는 수백 년의 풍상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초등학교의 짙은 교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5대조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

논개는 이조 선조때 갑술년에 일찍 서당을 차리고 교학을 펴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사갑술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은 ‘개’이고 또 ‘놓았다’는 것은 옛 사투리로 ‘낳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가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의 한자음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의 작명은 ‘개똥·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는 무남독녀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인 작명이었을 것이었다.

〈이하 생략〉

여기에서 논개의 출생지가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부락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논개는 조선 조 선조때 갑술년에 일찍 서당을 차린 선비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사갑술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기이한 사주로서 미래에 닥쳐올 위대한 운명에 대하여 예견이라도 하는 듯하였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성명도 밝혀지고 또한 논개 — 개를 놓았다에서 연유한 작명의 동기까지도 밝혔으며 논개의 생가 터는 모든이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주촌초등학교의 교실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가터,

출생부락, 부모, 생년월일,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전해지고 있는 자료가 기록인가 구전인가는 밝혀 있지 않으며 현재 장수고장에서 논개사적 정립 자료의 기초가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벽계승람(碧溪勝覽 1975) 기록에서

향토역사의 기록인 군지가 있었음은 백여 년 전에 모필로 기록된 단권책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 귀중한 고전을 되살리고 계승키 위하여 장수향교에서 간행된 벽계승람 절의편에

논개는 본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노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현감 최경희의 시종을 들다가 최경희가 진주로 부임할 때 데리고 가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축석루상에 올라 자축연을 열고 명기를 구하였는데 당시 조국의 패전을 통분하고 있던 논개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단연 보복을 결의하고 자진 연석에 참석하여 갖은 수단으로 애염을 다하여 적장 모곡촌 육조(毛谷村六助)의 손을 잡고 장시간 의암에서 연무하는 척하다가 섬섬옥수로 적장의 허리를 껴안은 채 남강에 투신 순사하였다. 끝으로 한말의 문장가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한시와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시 '논개'를 소개하여 의랑의 충절을 재음미 해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본 벽계승람에서는 논개의 출생지가 본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기타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장수군 간행(1982) 삼절(三節)의 고장에서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의 여신 의암 주논개〉 삼강(三綱)을 실천한 여인에서는 동양에서 태어난 인류 최대의 성인 공부자(孔夫子)는 살신성인을 가르쳐 신체를 죽여서라도 인의를 이룩함이 사람이 취해야 할 도리라 하였으며 그의 도학을 가장 충실하게 후세에 전달하여 아성의 칭호로 존경하는 맹자(孟子)도 사생이취의(捨生而取義)를 주장하였으니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세상에 우러러 보는 선비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성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없고, 삼강오륜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겠으나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행실이라 할 것이다. 충·효·열 이 세 가지를 인간의 삼원이라 하였으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행을 갖추었다면 삼덕을 갖추었다고 일렀다. 이와 같은 수양이 되었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일신상의 편안함을 꾀하는 범인의 처사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의연하며

또한 얼마나 고상함인가.

의암 주논개 부인은 삼덕을 갖추고 삼강을 실천하였으며 살신 성인하였으며 사생이취의하고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와 같이 버리고서 국난을 구하고 국치를 설욕하였으며 왜구의 칼날 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인 경상우병사 최경회 장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저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자라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군과 같이 순절한 여인, 우리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일화를 딴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남에 백성들은 조정의 무력함과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와 군대에 대한 원망에 가득차 있었으며 누구도 국난을 구하는 전쟁터에 달려가 왜적과 싸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의암 주논개 부인이 순절한 후 전국에서 의병을 초모하는 격문에 연약한 아녀자도 대의를 판별하고 적의 장수를 피어 그 허리를 안고 남강에 순절하여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고 지아비의 원수를 갚았다. 향차 피 끓는 장부가 국난을 당하여 수수방관하면 장차 무엇으로서 적을 무찌를 것인가 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니 국민의 애국심을 분기시킬 수 있었으며 곳곳에서 칼과 창을 들고 왜적소탕의 성전에 참여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음으로 주논개 부인의 죽음은 실로 임진왜란 종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의암 주논개 부인은 애국 애족하는 민족의 갈길을 가르치고 영구불멸의 영혼

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니 참다운 한국 여성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부인의 성은 주(朱)씨이며 관향은 신안(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에서 내려진 사호이다.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로 고려 예부 상서 인장(禮部尙書 印長) 조선조 의정부 우찬성 승천 승정원 우승지 공(縑)으로 세계를 거쳐 7대조 금교찰방 휘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 통덕랑 휘 응표(應杓)에 이르러 안의현 서상면 방지동에 들어왔다. 조부 휘 혁(赫)이 장수현 임내면 주촌에 와서 학당을 차리고 훈장이 되었으며 부친 달문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박씨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1574년 선조 7년 9월 3일 밤 논개가 출생함에 달문의 아우 달무가 서당에 달려와 이 사실을 전하였다. 달문은 몇 번인가 손가락을 헤아려 보더니 '괴이한 사주로구나'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주달문은 일찍이 안의현 서하면 봉정리 밀양박씨집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아를 얻으니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후사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 장안산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주씨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부인의 나이 40 중년에 태기를 얻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를 분만한 부인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이다. 주달문은 부인을 위로하며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4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나서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이 높을 것이나 우리들 나이 늙어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 방언으로 ‘개를 놓다 (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라 이름지어 주고 자라면서 아동교육의 여가를 타서 한문과 예도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놀라게 하였다.

〈이하 생략〉

삼강을 실천한 여인에, 이어서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난, 생시에 대한 작명

- 숙부 주달무의 농간으로 민며느리 사건으로 수모 겪어,
- 남편 최경회를 따라 진주로 가다 왜병에 붙잡혔으나 황진장군의 기적적인 구출
- 왜장 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
- 석학 문장들이 논개 흠모 시작품 남겨

등으로 이어가면서 가계에서, 출생, 출생지, 성장의 과정 기구한 운명에 얽힌 사연, 최경회 현감과의 인연, 왜장 껴안고 남

강에 투신 순절, 석학 문장들이 논개 흙모 글을 남겨 등을 자세하게 엮어서 항시 단편적으로 거론되던 논개의 일대기를 엮어 놓았다.

본편에서는 사감술의 특이한 생년월일시에 출생지로서 본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과 사감술에 따르는 논개란 작명, 부모에 그 명문인 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1970년도에 전북매일신문사에서 발간한 <명문의 고향>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논개의 출생에서 생애, 순국에 이르는 사적이 출생지인 장수에서 확실하게 정립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상권 1983) 전북애향운동본부간에 주논개 영원한 호국의 여인상 (최진성 집필)에서

진주 남강 의암 위에서 왜장 게야무라 호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산화되어 임진왜란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영혼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주씨요 이름은 논개이다.

본관은 신안 사람으로 의암은 예문관에서 하사한 사호이다.

그의 선대는 중국 송나라 성리학자인 주문공 희(熹)의 후손이 된다. 고려시대는 예부상서인 인장이 가문을 빛냈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 우승지를 역임한 공(縑)으로 세계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

찰방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을 중직받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여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방지동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조부의 휘는 혁(赫)이니, 처음으로 장수현 임내면 주촌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 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을 마련하여 훈장이 되어 후진 교육에 힘썼다. 부친 달문 역시 가정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과 덕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유지를 하였다.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어머니 또한 부덕을 갖춘 어진 부인이었다.

달문 부부에게는 일찍이 아들 대룡이 있었는데 대룡은 단란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랐으나, 불행하게도 15세란 어린 나이로 병을 앓다가 그만 요절하고 말았다.

달문부부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또한 후사가 끊김이 더욱 선영에 대한 죄가 됨을 근심한 나머지 서로 상의하여 우리나라 8대명산의 하나인 장안산으로 들어가서 공을 정성껏 올렸다. 천지신명이 그들 부부의 정성에 감명되었는지, 그 보람이 있어 부인의 나이 40 중년에 태기를 얻게 되었다.

그 후 10개월만에 소원했던 아들이 아닌 딸을 분만하게 되었으니 이 때가 1574년 9월 3일 밤이었다.

달문이 서당에서 이 소식을 아우인 달무에게 듣고, 우선 사주를 짚어 봤다. 몇 번인가 손가락을 꼽아 과사를 풀어 보면

서 ‘괴이한 사주로구나’ 하고 혼자말로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을 분만한 부인 박씨는 몹시 실망하고 있었다.

달문은 실망하고 있는 부인을 위로하면서,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사주를 보니,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났으니 사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이 높아질 것이나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하고 죽을까 봐 한스러울 뿐이요.”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

달문은 생년월일이 4 갑술이라 4 갑술의 ‘술’ 자를 십이간지로(술은 개띠) 곧 ‘개’를 ‘놓다’(놓다는 낳다의 방언)를 거꾸로 붙여 ‘놓은 개’ 곧 ‘논개’라 하고 이두문 식으로 논개라 이름지었다.

〈이하 생략〉

본 〈영원한 호국의 여인상〉 주논개에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전장 삼절의 고장에서 밝힌 본관 및 사호에 가계 부모의 이름도 일치를 보고 있으며, 출생지가 장수현 임내면 주촌으로 되어 있고 생년월일의 사주가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로 특이한 4 갑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에 따라서 이름 역시 논개라고 작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출생지인 이 고장에서 논개의 출생 생애에 대한 각종 문헌과 기록이 정리되어 그 일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장수군지』(1990) 장수군지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논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며는

사갑술의 여아 탄생.

논개의 성씨는 주씨이며 관향은 신안이며 의암은 예문관에서 내려진 사호이다.

동양성리학의 시조라 이르는 주부자 주문공 희(熹)의 후예로 고려때 이부상서의 벼슬에 올랐던 인장, 조선조 의정부 우찬성 승천(勝遷) 승정원 우승지 공(縑)으로 세계를 이어 7대조인 금교찰방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 통덕랑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들어와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이 신안주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논개의 조부인 혁(赫)이 전라도 장수현 임내면 주촌 마을에 들어와 학당을 차리고 아동들을 훈육하는 훈장이 되었다.

아버지 달문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마을의 밀양박씨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아를 출산하여 대룡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나이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후사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 장안산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

이 40 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다.

1574년(선조 7년 갑술) 9월 3일 박씨 부인은 산기를 느껴 분만준비를 하였으며 밤 술시(戌時)에 여아를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아동을 가르치던 주달문에게 여아의 출생을 전달한 사람은 주달문의 아우 주달무였다.

주달문은 몇 손가락을 꼽아보고서

“매우 기이한 일이로다.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다. 산모는 여아를 출산하고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남편 주달문은 실의에 빠져 있는 부인을 위로하여

“비록 여아를 분만하였으나 아이의 사주가 아주 기이하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사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났소. 장차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높은 명성을 얻을 것이나 우리 부부 나이 늙어 대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한스러울 뿐이요.”

라고 위로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사갑술의 뜻을 새겨 개해, 개달, 개날, 개시라면 개를 낳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상도 방언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라는 뜻이 담긴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 자라면서 아동교육의 여가를 틈타 한문과 예도를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기쁘게 하며 놀라게 하였다.

〈이하 생략〉

본 장수군에서 발행한 장수군지 장수삼절의 으뜸으로 기록된 논개의 출생의 기록에서도 <명문의 고향>(1970), <삼절의 고장>(1982), <전북인물지>(1983)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출생지를 장수현 임내면 주촌부락 생일 생시를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로 적고 있으며 그 4주에 따라 '개를 놓다'로 하여 '논개'라 작명하였음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일치를 볼 수 있다. 끝으로 논개사적 연구(1996) 부산 경성대학교 향토문화 연구소 발행에서는

논개의 출생에서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 마을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으로 주촌의 서당 훈장이었다. 논개의 모친은 밀양 박씨로서 그의 선조는 팔도병사로서 황석산성 싸움에 공적을 남긴 박명박 장군이다.

용일에게는 달문과 달무의 두 형제가 있었다. 달문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과 도덕을 배워 문장과 덕행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용일의 학식과 덕망은 산등성이를 넘어 대곡리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결국은 경상도 금당리에서 대곡리로 초빙되어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달문에게는 일찍 대룡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요절하고 사십 중년까지 부인에게 태기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을 잃은 실의를 딛고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덕유산 영각

사로 들어가 삼년 동안 치성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
논개이다.

논개의 탄생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 사주로 따지면 사갑술이 된다. 곧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이다. 술은 지지(地支)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
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며 “당
신이 개를 낳았군요.”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
구요?”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부부
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오
백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사갑술생이 있으니 영조 임금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하기를 논개라고 했다. 논개는 경상도 발
에 놓은(낳은) 개라는 뜻이다.

이 기록에서 그 가계와 출생지, 생년월일, 사주에 따르는 작
명의 과정이 논개의 출생지인 장수군에서 정립한 그 설과 일
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조부의 이름이 ‘용일’로 되어 있어 좀
더 깊이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상 9편의 향토지에서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
을 살펴 보았다.

논개의 진주 축석루에서 순국 후 207년 지난 《호남절의록》
이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논개의 출생지 생년월일

성장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다.

논개가 순국한 현지 진주에서는 전혀 그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논개라는 기녀가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제일 사나운 왜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순국 1년만에 류봉인이가 어우야담을 기록했고, 58년만에 오두인이가 의암기(양곡집)을 기록했으며, 101년만에 정식이 의암사적비기를 적었고, 119년만에 박태무가 의기전을 적었으며, 243년 후에 정약용이 의기사를 기록하였으며 계속하여 논개의 거룩한 순국을 기록으로 전하고 전하여 왔으나 한결같이 그 출생에 대하여서는 한 곳에도 언급된 바가 없었다.

그러다 순국후 207년(1800)후에 비로소 출생지인 호남에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246년(1839) 후에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279년(1872) 후에 『장수읍지』에서 비로소 논개는 장수인이며 최경희가 사랑했으며 진주성 싸움에 최경희를 따라가 왜장을 끌어 안고 순절했음과 장수가 출생지임이 처음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다 일제의 침략, 식민지 정책에 억눌리어 그 이상 그 이하도 거론되지 못하고 묻혀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사실의 기록과 그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출생과 생애를 구체적으로 발굴 정립하기에 이르렀으며, 명문의 고향, 삼절의 고향, 전북 인물지, 장수군지 등에서 논개의 출생 마을이 장수군 장계면 주촌마을이고 그 탄신일이 1574년 9월 3일인 사감술의 기이한 사주를 타고 났음이 밝혀져 있고 그 기이한 사주 때문에 논개

라는 이름이 작명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으며 순국한 지 200여 년까지 순국의 사적 따로 출생, 생애의 사실이 따로 따로이던 것이 논개의 거룩한 죽음을 추앙하던 양 지역민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하여 그 가계와 출생과 생애와 순국이 일목요연하게 접목이 되어 순국한 지 400여 년만에 논개의 사적이 확실하게 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논개의 생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논개의 사적에 관계된 금석문은 8기로 드러나 있다. 경상도 진주 축석류에 3기 나머지 5기는 장수 생향지에 세워져 있다.

금석문이 세워진 연대의 순서에 따라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맨 최초로 새겨진 금석문은 진주 축석류 아래 논개가 거사 순국한 남강가의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란 전자체 글씨이다. 이 금석문은 1625년 순국 32년 후에 진주의 만민의 뜻에 따라 정대룡이가 새겼으며 논개의 순국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게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 맨 처음의

금석문인 것이다.

다음은 논개 거사 순국 129년(1722) 후 진주 남강과 '의기 논개지문'에 세워진 '의암서적 비명'이며 여기에는

류어우(柳於于) 몽인(夢寅) 야담에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 그 때는 만력 계사년에 김천일 등 창의 장수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항쟁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개는 치장 성복하고 축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려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나아가 왜장을 끌어 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임진왜란에 관기의 몸으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자가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어찌 논개 하나에 그치랴. 다 그 이름을 잊었으니 저 관기들을 음란한 창녀라고 하여 정렬이라 칭송함이 옳지 않다고 하나 죽음에 가기를 옛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니 썩지 아니 하였고 적에게 맘을 뺏기지 아니 하였으니 또한 성스럽게 피어가는 중의 하나이다. 참기 어려우나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적을 따르지 않는 것도 타의

아닌 충이니 그 기특함과 슬픔이다.

이 글은 당시 실록에서 발췌하였으니 오늘의 비석에 새긴 말 가운데 중첩됨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대로 새겨서 이어간다.

그 바위 홀로 섰고 (獨峭其岩)

그 여자 우뚝 섰네 (特立其女)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女非斯岩)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焉得死所)

바위가 이 여자 아니면 (岩非斯女)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焉帶義聲)

한강의 외로운 바위가 (一江孤岩)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萬古芳名)

승정 기원 후 95년 임인 4월 일입 <서기 1722년(경종 2년)>

이상 진주 축석루 근처의 금석문인 ‘의암’, ‘의기 논개지문’, ‘의암사적비명’에는 아무곳에도 논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다.

논개 순국 253년 후 처음으로 출생지를 적은 비석문은 장수 현감 정주석이 장수 의암사 경내에 세운 축석의기 생장향 수명비(矗石義妓 生長鄉 豎名碑)(1846) 비문에는

국난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로서 대의를 판단하여 죽음을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하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늙름한 열기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한가. 산에 영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 좋은 샘이 있으니 군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에 근원해서 사람들의 이목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을 이룬 공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하고 감개하였다. 지금 의기의 이름을 세워 후세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한다.

이 수명비는 일제 때에 왜경이 부수어 버리려 하자 술한 수난을 당하며 땅속에 묻혔다가 해방 후 캐내서 다시 세우게 되었다. 이 비문을 통해 논개의 출생과 성장지가 장수였음이 공식화된 것이다. 그러나 비석이 논개의 생장 고을에 세워지면서도 그녀의 출생, 생장 과정이나 최경회와의 관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다음은 논개 순국후 361년(1954) 후 진주 축석루 서편 의기

사 정원에 의기 창열회에서 세운 의랑 논개의 비문에는

하나인 것이 동시에 둘일 수 없는 것이면서 민족의 가슴팍에 살아 있는 논개의 이름은 백도 천도 만도 넘는다.

마지막 시각까지 원수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추었고 그를 껴안고 죽어간 입술이 앵도보담 붉고 서리맺힌 눈썹은 반달보다 고왔던 것은 한갓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가슴에 영원하도록 남는 처녀의 자태였으며 만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위대한 여왕으로서이다. 민족 역사의 산과 들에 높고 낮은 권세의 왕들 무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서 한 줄기 푸른 물과 한 덩이 하얀 바위가 삼백여순 해를 지날수록 민족의 가슴 깊이 한결 푸르고 고운 까닭이라, 그를 사랑하고 숭모하는 뜻이라. 썩은 벼슬아치들이 외람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민족을 고달피고 나라를 망친 허물과 포퓰한 오랑캐의 무리가 어진 민족을 노략하므로 식어진 어미의 젖꼭지에 매달려 애기들을 울린 저주를 넘어 죽어서 오히려 사는 이치와 하나를 바쳐 모두를 얻는 도리를 증명한 그를 보면 그만이다. 피란 매양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며 무고히 흘려진 그 옛날 민족의 피는 어즈버 진주성터의 풀 거름이 되고 말아도 불로한 처녀 논개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겨 남가람의 천추로 푸르러 구비치며 흐름을 보라.

애오라지 민족의 처녀에게 드리고픈은 민족의 사랑만을 강물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에 아아 어느날 조국의 다사로운

금잔디 받으로 물옷 벗어 들고 거닐어 오실 당신을 위하여
돌하나 세운다로 이어서

논개의 사연으로

의랑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 주촌
리이니 성은 주(朱)씨이다.

장수군 장수면 큰길 가에 있는 논개 비각은 장수현감 정주
석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 팔월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임진왜란 당년 오월초 초사흔날 서울을 빼앗기고 유
월 열 사흔날에는 평양이 떨어졌으니 진주통판 김시민 등의
사수 분전 아래 진주성만이 홀연한 호남의 뜻이 되었다. 다음
해 선조 26년 계사 6월에 6만 왜병이 아연 진주성을 세겹으
로 둘러싸니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
진 등 삼장사를 비롯한 결사의거의 장병 육천이 밤낮 여드레
동안을 꼬박 혈투했으나 6월 29날 드디어 진주성은 무너지다.
순국자의 피에 물들어 흐르는 남강은 불그레하고 한 마리의
개와 닭 소와 말이 성할리 없이 학살 당한 성민의 죽음으로
고랑과 샘들이 모조리 메꾸어졌다.

날이 새며 적들에 만홍은 더욱 도도하여 축석루 위에 벌여
진 잔치가 한창 난만할 뿐이다.

이때 다락밑 강언덕에 외딴 넘적바위 위에 서는 한 사람의
꽃다운 여인 홀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 만취한 적장 모곡촌
(毛谷村) 일설 석종로(石宗老)가 달려 내려가더니 여인과 더

불어 열싸안고 환장처럼 즐기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적장을 껴안고 떨어지고 만다. 그의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뽀뽀이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 이 분이 곧 의기 논개이다.

이 비를 세운 뜻은 한해인 계사년 논개의랑 순국하신 육감을 기념하여 비롯된 것이다.

단기 4287년 갑오 10월 29일

의기 창열회 삼가 세움.

글 지은이 설창수

글씨 쓴이 오재봉

일 주장 김진숙, 임한산, 박봉래

돌일 한이 박지문

이 비명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진주에서 처음으로 논개가 장수군 장계면 주촌 태생이라 밝혀진 금석문이며 논개의 순국 사실을 만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 받을 위대한 여왕으로 추앙 찬양된 점인 것이다.

1960년에 논개 생장지 주촌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의암 주논개랑 생장지 사적 불망비(義巖朱論介娘 生長地 事蹟 不忘碑)에는

의암의 부친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 계내면 동남방 백화산 북록 산자수명한 승지를 택하여 모옥을 결구하고 산수의 낙과 한학을 숭고하니 사망인사 부급종사하여 소

거 수년에 일촌을 가성하니 세인이 주선생의 촌이라 칭하여 주촌이라 하다. 선조 7년 갑술 9월에 일녀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하여 사주를 기록하니 사갑술이라 즉석에서 산(産:논) 구(狗:개)의 천명으로 한자 논개(論介)라 명명하였다. 논개 13세 병술춘에 부친을 결별하고 18세 신묘춘에 본 현감 최경회의 경상우병사로 진주에 부임수행하였다.

계사 6월에 왜적의 침입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제장이 전몰하니 성중이 어육이라 7월 7일 축석루와 남강상에 왜적의 전승연의 난자 강개분의를하여 자천위기하고 왜장 입화종무(立花宗茂)의 니취사광함을 기회로 장재라 예비된 10지의 지환과 만장의 열기로 남강 심류에 견포수락하여 만고불구의 대의를 수립함을 항가에 구가 영전하는 귀감으로 자에 입석 기념하였다.

단기 4293년 12월 일

장수교육감 김상근 근립

장천인 이재순 근기

성주인 이상렬 근서

생장지 입구에 세워진 본 사적 불망비는 논개에 대한 출생지, 출생마을 주촌의 유래, 생년월일, 최경회 현감과의 관계로 진주성 싸움에 가담한 동기 성이 함락되고 그 처절한 상황, 기생으로 가장하여 적의 승전연에 들어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논개의 출생 생애를 정립한 효시가 된 금석지문이다.

그후 1982년에 논개 생가 빈 터에 세워진 의암 주논개(義巖 朱論介) 유허비에는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논개의 출생지이다. 논개의 성은 주씨이고 호는 의암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 그녀는 일찍이 장수 현감 최경회를 모시는 몸이었다. 최경회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우도의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워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전임하였다. 이때에 논개도 그를 따라 진주로 이주하였다.

그해 6월에 왜군이 큰 세력을 휘몰아 진주성을 공격해 오자 격전 끝에 최경회는 전사하고 성마저 함락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진주성에 입성한 왜군은 7월 7석날 남강가 축석루에서 승전 축하연을 열었다.

이때에 논개는 나라에 충절을 다하고 최경회의 원수를 갚기를 맹세하고 왜군 연회에 들어가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 六助)를 강가 바위로 유인하여 그를 끌어안고 푸른 강물에 투신하여 순국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는 그녀의 의거 장소인 강가 바위 위에 비석과 사당을 세워 그녀의 충절을 기리게 되었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충절을 다한 논개의 순국정신은 만고에 빛날 것이다.

1982년 10월 일

지은이 장수군수 박청준
쓴 이 일송 한태석

생가가 허허로운 축대 받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생가 유택비를 세운 것이다.

1987년 논개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하고 세운 '주논개 생가 사적비'에는

여기 주촌 마을은 의암 주논개가 부친 주달문과 모친 밀양 박씨 사이에 태어난 곳으로 이백여 평의 생가터에는 우물과 유택비가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랑 생가지 사적 불망비가 있었다.

군민의 숙원인 생가 복원은 4백여 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하신 배려로 1986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되었다.

원 생가터는 대곡 저수지 시설로 수몰됨으로 같은 마을 둘레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남쪽으로 삼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부지 8천3백40평을 마련 복원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의암 주논개의 충절이 선양되고 후세에 그 기록한 얼이 전승되어 길이 숭모하게 되었다.

1987년 8월 일

장수군수 하광선 찬
광주 이규진 서

본 생가 사적비명에는 4백여 년 동안 허허로운 축대밭으로 방치되었던 생가 터가 저수지로 수몰이 되면서 그 성지가 영원히 소멸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풀기 위하여 마을 둘레에 새 터를 잡아 생가 복원을 하고 생가 사적비를 세움으로 논개의 출생 생가가 현실적으로 정립이 되었던 것이다.

1996년 들어 6월에 주촌마을 입구에 장수군수 김상두가 의암(義巖) 신안주씨 논개지려(新安朱氏 論介之閭)를 복원하였다. 이 정려는 옛기록에 주촌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망가졌으며 그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다시 세운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신빙성이 있는 9편의 향토지의 기록과 8기의 금석문을 통하여 논개 출생에 대하여 소고(溯考)를 하였다.

논개가 진주성 함락후 나라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순국한 사실을 기록한 주요 문헌은 진주지방에서 거사 후 1년 후에 어우 유몽인(柳夢寅)이 쓴 《어우야담(於宇野談)》에 이어, 58년 후에 쓴 오두인(吳斗寅)의 《의암기(양곡집)》, 이어서 101년 후에 명암 정식(鄭栻)의 《의암비기》, 119년 후에 박태무(朴泰茂)가 쓴 《의기전기》, 243년 후에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의기사기》 등이 기록 전하여 왔으나 이 기록 등에서는 한결같이 논개의 거룩한 순국사실만을 채록하였으며 가계, 출생지, 생년월일, 작명 등의 사실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거사 후 207년만에 《호남절의록》, 246년 후에 《호남삼강론》, 279년 후에 『장수읍지』에서는 논개는 장수인이라고 그 출생지가 밝혀졌으며 최경희와의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서기 1900년에 들어서며 1970년에 《명문의 고향》, 1975년에 《벽계승람》, 1982년에 《삼절의 고장》, 1983년에 《전북인물지》, 1990년에 《장수군지》 등에는 논개의 가계에, 성씨, 부모, 출생지인 주촌, 사감술의 생년월일, 사감술에 따른 작명, 민며느리 사건의 인연으로 최경희와의 관계, 진주성 싸움에 가담, 성 함락후 순국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사실로 한결같은 기록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기록에서 진주쪽에서는 논개에 대하여 전혀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순국사실 위주로 기록되어 오던 것이 1996년들어 부산 경성대학교 향토 문화연구소에서 논개사적 연구를 착수하여 그동안 장수지방에서의 정립하여 온 사적과 일맥 상통하게 되어 그 동안 갈등을 가져오던 논개의 사적이 동서가 그 일치함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8개의 금석문에서 진주 축석루에 3기 장수 출생지에 5기가 서 있는데, 순국한 지 32년 후 현지 바위에 정대용이가 전각한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는 곧 계사년 논개의 순국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요약된 소중한 금석문이다.

그리고 그 옆 바위에 129년 후에 세워진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는 논개의 순국 거사의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361년 후에 의기사 앞뜰에 세워진 의랑 논개비문(義娘論介碑文)에는

논개가 장수군 대곡리 주촌 출생이라고 밝혀져 있고, 장수 의암사에 있는 수명비의 수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주 현 지에서도 논개가 장수 주촌 출생이란 사실이 처음으로 금석문화 되었다.

그리고 장수 지방에 세워진 5기의 금석문에서 논개가 장수 출생이라 최초의 비석은 장수 의암사 경내에 순국 후 254년만에 세워진 축석 의기 생장항 수명비가 되며, 이 근년 주촌에 세워진 '의암 주논개 유허비', '주논개 사적비', '의암 신안주 씨려' 등은 논개의 출생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이다.

특히 1960년도 주촌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의암 주논개랑 생장지 사적 불망비'는 8기의 금석문 가운데에서 논개의 가계, 출생지, 출생의 사감술에 따른 작명, 최경회 현감과의 관계, 진주성 싸움의 가담,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의 사실까지 논개의 사적을 가장 자세하게 새긴 금석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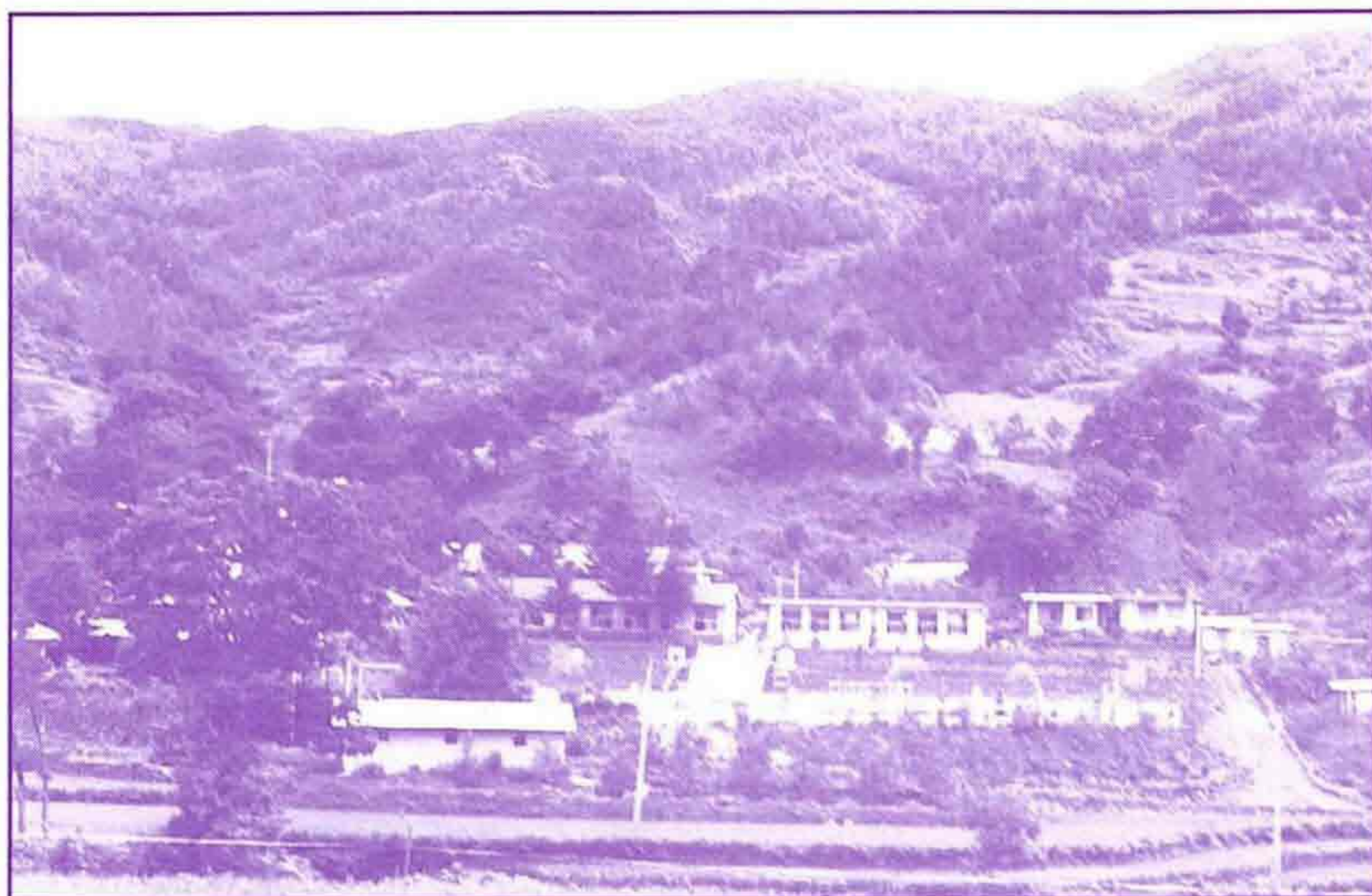
이상 논개 출생에 대하여 고증 문헌과, 금석문을 망라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논개는 주부자 주문공 희의 후예로 부는 주달문에 모는 밀양박씨로 출생지는 장수군 장계면 주촌이며 생년월일이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로 모든 문헌과 금석문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과제는 논개의 사적에 대하여는 이제 사실적인 실존 인물로서 국난에 처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거사 순국은 전무 후무한 사실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정사에 수록하여 후세에 전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 교과서에 교재로서 그 사적을 채택하여 만고에 빛나는 충·효·열의 높으신 논개의 열이 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3부

죽음보다 깊은 벼릿줄



오동제 물속에 잠겨진 옛 주촌마을

죽음보다 깊은 벼리
붉은 벼릿줄

죽음보다 깊은 버릿줄

죽음보다 깊은 버리

백두대간의 정기를 모아 소백산맥이 뺏어 내린 끝머리쯤에 자리한 장수고을은 그 옛날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백제가, 오늘날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듯 접경한 지역으로 해발 430여 m의 첩첩 산중이나 다름없는 산간지대이다. 그리하여 신라 또는 백제에서 유배되거나 난리를 피하여 모여든 사람들, 은둔생활을 하려는 선비 등 상류층과 노비(奴婢)계층이 개척한 곳으로 유생들의 유교 기반이 강했고, 충성이 의리라고 신념하는 유교 윤리를 그대로 실천하여 윗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쇠털만큼도 여기지 않은 절의의 정신이 강한 고장으로 전라좌도 인맥의 뿌리가 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나라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 노여움을 사서 장수고을로 유배를 당한 고려조의 수절신 정신제(靜愼齊) 백장(白莊) 공을 들 수 있는데 공은 공민왕 때에 이조전서 보문각 대제학의 벼슬에 있었으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며 이태조(李太祖)가 조선조에 출사할 것을 간청했으나 끝내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 이듯이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끝내 거절을 하자 이성계의 노여움을 사 현재의 장수군 장계면 호덕마을로 유배를 당하여 평생 그 곳에서 귀양을 살다 풀하게 되었으며 현재 호덕마을 뒷자락에 백장공의 신도비와 유택이 덩그렇게 자리하고 있음은 그 높고 높은 기개를 오늘에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둘째 인물로는 방촌(방村) 황희(黃喜) 정승을 들 수 있으며 공은 장수고을, 현재 장수읍 선창리 당동에서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 출생하였으며 27세에 문과에 급제. 육조 참판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고 정승지위에만 24년간 재직하였으며 청백한 윤리관, 탁월한 정사능력으로 국정을 이끌었으며 국태민안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청백리 명재상으로서 공적을 남기었다.

그러나 황희 정승은 재직기간 동안 그 화려한 관직을 번번이 마다하고 무려 사직서를 18번이나 쓰고 물러나려 했으나 역대 왕들은 그의 훌륭한 인물됨에 반하여 신임이 두터워서 그때마다 기어코 만류하여 63년간이나 관직에 머물게 하였으

며 여섯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황희 정승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청사에 길이 빛나는 대단한 청백리로서 숭한 일화를 남기고 추앙을 받았으나 태종(太宗)때 왕자 양녕(讓寧)대군 폐세자를 반대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현 장계면 도지촌에 10년간 유배를 당하였고 백장공과 연대가 같아서 두 분이 자주 교류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나라 걱정을 하기도 하며 민심교화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한 조선조 초기에 세상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한 인물로는 퇴휴제(退休齊) 송보산(宋寶山) 공을 들 수 있으며 공은 세종조에 이조판서의 벼슬에 올랐으나 단종(端宗)의 폐위에 항거하다 실패로 돌아가자, 처조부이던 백장공의 유배지로 따라서 낙향하였으며 지금의 계남면 침령마을에 은거하게 되었다.

또한 송공의 동서인 손제(遜齊) 김남택(金南澤) 공 역시 세종조에 예조판서에 올랐으나 역시 당파싸움에 실증을 느껴 처조부와 동서를 따라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퇴휴제와 같이 침령에 은거 씨족을 형성하면서 후학에 힘쓰며 윤리 도덕성이 강한 법도 있는 절의의 고장으로써 기반을 닦았다.

그밖에 고려 충선왕(忠宣王) 조에서는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이신 이임간(李林幹) 공을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으로 봉군케 하여 터를 닦게 하였으며 관향을 장천(長川)으로 하여 장수이씨(長水李氏)의 가문을 세웠다.

또한 성종때에 삼절문장가(三絶文章家)이시며 의성, 합천현감을 지냈던 유호인(兪好仁) 선생께서는 당시 사대학파라 불리던 훈구파의 영수인 서거정 대제학의 선발에 의하여 호당학사가 되었으나 훈군파의 세도 정치에 반발하다 훈구파 중진들의 미움을 사서 현재 계남면 조곡마을로 낙향 은거터를 잡고 살았으며 또한 강원감사였던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공이 연산군 폭정에 항거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고있는 이곳 장계면 노평마을로 낙향 은거하면서 점차 씨족을 확대 형성하였다.

이와같이 당대에 지조와 기개가 있는 상류층 인사와 그에 따르는 노비 하인들이 귀양살이나 은둔생활을 같이하며 점차 씨족사회를 형성하면서 전라좌도 인맥의 뿌리가 되는 절의의 고장으로써 정신적인 기반을 확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전통적인 절의의 영향을 받아 삼절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

장수 삼절로는 정유재란 때 왜병이 장수향교를 불사르려는 것을 향교지기 정경손(丁敬孫)이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냄으로써 우리 도내 향교 중 오직 장수향교만이 조선조 태종 때(1407)의 팔포형(八包型) 건축 양식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국보 27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숙종 4년(1678), 당시 장수현감 조종면(趙宗冕)이 봄날씨 나들이 길에 느슨해져 말 위에서 졸다가 숲에서 느닷없이 소리지르며 푸둥거리는 장끼 소리에 놀란 말이 뛰자 벼랑길 소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말 몰던 통인 백씨는 자책감을

느끼어 바위에 핑과 말의 모양을 선혈을 뿌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에 빠져 죽었다는 타루비(墮淚碑)에 얽힌 사연과 더불어 장수 삼절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의암 논개의 애국충절의 정신이 오를레앙(Orleans) 성의 포위를 뚫고 일어난 잔 다아크(Jeanne darc)의 분기에 힘입어 용기 백배한 프랑스 병사들이 각지에서 분전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드디어 영국군을 물리친 프랑스 구국의 여신 잔 다아크의 이야기에 어찌 뒤지랴!

조선시대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낸 바 있는 논개의 조부 주혁은 경상도 서상면 방지리에서 이곳 장수의 장계면 산골짜기 마을로 이사온 뒤 서당을 차리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사였던 아버지 주달문(朱達文)도 역시 대를 이어 서당 훈장으로 이름을 떨쳐 많은 젊은이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 그에게 사사(師事)를 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주학자 마을이라 하여 주촌(朱村)부락이라고 이름 붙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달문과 부인 밀양박씨에게는 대룡(大龍)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일찍 죽자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동리 입구의 서낭당에 일구 월심 공을 들여 3년째에 잉태하였는데 낳고보니 딸이라 섭섭하고 실망이 대단하였다. 달문이 애기의 사주(四柱)를 짚어보니 희한하게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생으로(1574년 9월 3일) 네 갑술이 겹친 특이한 사주였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개를 놓아(낳다의 사투리)를 거꾸로 붙여 '놓은개' 곧 '논개'라 하였고 이두(吏讀)문으로 논개(論介)라 쓰고 부르게 되었다.

애지중지 길러진 논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일곱 살때 벌써 한시를 지었으며 또래들의 놀림에 한시로 대꾸하기도 하고 아버지 주달문이 서당을 비울 때에는 대신하여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논개 나이 열세살 때, 아버지는 지병인 해수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외동딸 논개의 효성이 지극하여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가래침 그릇을 하루에도 십여 차례나 씻는 등 극진한 병 간호를 했다. 그 당시 조석으로 깨끗한 샘물을 길어 정화수로써 아버지 병환의 쾌유를 빌던 그 샘이 지금도 남아 있어 논개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측은하게 한다.

아버지를 여윈 뒤 논개 모녀는 얼마 안되는 밭과 함께 숙부에게 위탁되었는데 숙부 주달무는 논개를 백치 불구의 아들을 가진 신내마을 김풍헌에게 상오승포 열 필과 상답 세 마지기를 받고 민며느리로 팔아 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녀는 어두운 그믐밤을 이용하여 험준한 민재(소백산맥)를 넘어 외가인 경상도 서하 봉전마을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김풍헌이 결혼 잔치 준비를 하다 도망간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하여 모녀가 잡혀와 동헌에서 당시의 장수 현감 최경희(崔慶會)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주달무의 허튼 수작에서 벌어진 것임이 밝혀졌지만 달무는 이미 살림을 챙겨 도망간 뒤였다. 그러나 모르고나마 사주단자를 받고 김풍헌의 재산을 축낸 대가로 어머니에게 5년간 노비(奴婢)로 복역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효성이 지극한 논개는 나이 들고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복역할 것을 애절하게 간청하였다.

장수 현감 최경희는 성리학자 기대승의 문하생으로 기골이 장대하여 무예에 탁월했고 지혜가 총명하여 과거에 등제, 옥구·담양·영양·장수 등지의 부사, 현감을 거치면서 임지마다 그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 세워질 만큼 선정을 베푼 명사 또였다.

논개 모녀의 딱한 사정에 동정한 현감은 관속들과 상의 끝에 논개를 2년 동안만 내아 급수비(給水婢)로 속공(贖供)할 것을 명하게 되었다. 이래서 종일토록 물을 길어 나르고 병석에 있는 현감부인 나주김씨의 약을 달여주는 일을 맡게 되어 1년을 하루같이 충직하게 일을 보았고, 밤에는 현감부인의 병간호와 활을 쏘느라 어깨가 굳어진 현감에게 안마를 해드려 날이 갈수록 현감 내외분과 가까워졌다.

때로는 밤이 이슬토록 안마를 하면서 현감으로부터 머지않아 왜군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올 조짐이 있으니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지킬 각오를 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것을 듣고, 순진한 논개는 자기도 모르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애국심이 싹이 텃던 것이다.

논개는 나이 열일곱 살의 어엿한 처녀로 성장하여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재주가 비상했다. 특히 정숙한 현감부인의 시중을 들면서 부덕을 고루 쌓아 마음씨가 곱고 곧았지만 빈말이나마 남의 민며느리가 되었던 몸이라 정혼할 처지도 못되었다.

이 때 현감부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자기 몸숨이 얼마 못 갈 것을 짐작하고 논개를 부실(副室)로 맞이할 것을 남편 최경희에게 간청하였다. 남편은 60을 내다보는 나이에 무슨 소실이냐고 듣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이 임종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현감의 뒷바라지 할 사람이 없자, 주위의 권과 간청에 의하여 노비 속공이 끝난 뒤에 비로소 소실로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최현감은 나이 59세 때 어머니 임씨의 상을 당했다. 최현감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논개와 훗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주춘에 가 있게 한 뒤 3년 수상을 치르던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 임금께서는 의주로 파천하시고 조국 강토의 대부분이 왜병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었다. 최경희는 환갑을 맞은 늙은 몸이지만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라고 비분강개하며 상복을 벗어 던지고 분연히 일어섰다. 출생지인 화순에 의병청을 설치한 뒤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하니 평소 신망이 두터운 분이시라 의병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최경희는 화순의 고사정에 장대(사령부)를 두고 의병들을 밤낮없이 훈련하여 일당 백의 강병으로 길렀다.

이 때 금산에서는 60의 늙은 몸으로 구국항쟁을 하던 고경명(高敬命) 의병장이 전사하고 그의 막하였던 문홍헌 등 많은 의병들이 최경희의 휘하로 들어와 그를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최경희는 이를 쾌히 승락하고 훈련을 마친 2천여 의병을 이끌고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임진년 8월부터 남원·임실·전주

에 진격하여 왜군을 크게 무찌르고 무주 금산 싸움에서도 크게 대승을 하였다. 의병장 최경희는 파죽지세로 왜적을 무찌르며 장수에 이르렀다. 장수는 최의병장이 논개와의 인연을 맺은 곳이며 현감 재직시에 선정을 베풀었던 곳이라 장계 주민들은 소를 잡고 술 대접을 하여 위로하였으며 너도나도 의병에 가담하였다.

최의병장은 장계 월강평에 장대를 설치하여 인근에 출몰하는 왜병을 소탕하고 또 신병들을 훈련하여 강군으로 양성하였다.

이 때 논개는 김풍헌의 화해의 주선으로 고사리골에서 나와 최의병장을 만나기 위하여 월강평 옆에 있는 신내마을에 와 있었는데, 최의병장은 바쁜 틈을 타서 밤에 찾아와 부부간의 회포를 풀고 정담을 나누었다. 날이 밝자 후일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정예화된 의병들을 이끌고 출전을 하였다. 의병들은 무주 적상산에 머물고 있었던 왜적을 지리(地利)를 이용하여 야습하여 소탕하고 이어 금산의 적을 섬멸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쇠등재(무주와 지례 사이) 싸움에서는 의병들을 위장매복시켰다가 불의에 습격하여 적을 대패시키니 왜병들의 시체가 들을 메울 정도였다. 이 싸움에서 적장 한 명과 적병 수십명을 생포하였으며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되찾고 언월도(偃月刀)를 노획했는데 이 칼은 칼자루가 6자 6치, 칼날 길이가 2자 7치 7푼으로 일본에 단 두 자루 밖에 없는 명도인데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후손들이

가보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전략의 지장(智將)이요 용병의 신장(神將)이신 최경희 의병장은 승승장구하여 함양·거창·산음·합천·성주·개념·함안·청원 등지의 왜적을 무찌르고 진주성 제1차전 때에는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김시민을 임계영 장군과 함께 성 밖에서 지원하여 진주성 대첩에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직에 임명이 되었다.

왜적은 제1차 때의 패배를 설욕하고 호남지방을 침공하는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진주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 버리라는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짐승 같은 특별지시에 따라 선조 26년(1593) 6월에 조선 팔도에 퍼졌던 왜군 10만 대군이 일시에 진주로 모여 들어 진주성을 두 겹 세 겹으로 포위를 했다.

한편 논개는 최경희 병사와 작별한 뒤 남장으로 가장하고 육십령 고개를 넘어 진주로 향하던 중, 산청의 오부(梧釜)에서 하마터면 왜적에게 포로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적지나 다름없는 진주에 도착하였다. 현지에서 소개 받은 진주 수안기생(首案妓生) 초향의 안내로 6월 초승에 노인 부부가 사는 의곡사(義谷寺) 입구의 외딴집에 방 한 칸을 얻어 그 곳에서 최병사를 뵈게 되었다. 병사의 언동에서 진주 전투의 긴박성이 먹구름처럼 다가옴을 느껴 논개의 왜적에 대한 적개심은 한층 더해가기만 했다. 논개는 왜군의 준동과 행패가 심해지므로 외따로 살기가 두려우니 군사가 지켜주는 성 안으로 들

어가자는 최병사의 재촉에 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진주성은 길이 1,700m, 폭 100~500m, 높이 8m, 면적 60,000여 평의 거대한 성일뿐 아니라 동남에서 서남쪽까지는 남강이 흐르고 뒷쪽은 깊은 늪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지로서 수군의 보급기지이며 호남의 목줄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군사기지였다.

왜적의 대군이 쳐들어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은 일부 장수들은 성을 비워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상우병사 최경희, 의병장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복수대장 고종후, 부사 이종인 등 여러 장수들은 성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의병 6천여명과 6만여 명의 성안 주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왜적과 맞붙었다. 불개미처럼 성을 기어 오르는 왜적에게 큰 돌을 굴리고 솥에 끓인 물을 퍼부어서 적병을 떨어뜨리는 등 밤 낮을 쉬지 않고 아흐레 동안을 필사적으로 항전을 하였다.

논개는 기생 초향과의 인연으로 관기들 속에 끼어 움직이다가 뜻한 바 있어 관기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사녀단(士女團)을 조직하여 돌을 깨어 나르고, 물을 끓이고, 햇불을 묶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일을 지휘하여 장병들의 뒷바라지를 기동성 있게 해내었다.

적병들은 성 밖의 깊은 늪을 메우고 성 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을 만든 후 그 곳에서 불화살을 쏘아 불난리를 일으키고 조총을 쏘아 성 안을 물끓듯 수선거리게 했다. 이에 우리 아군도 높은 언덕을 쌓아 완구포(碗口砲)에 진천뢰(震天

雷)를 넣어 화약을 터트려서 발사하여 적의 언덕을 부수어 버렸다. 적은 우리의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 큰 궤에 소의 생가죽을 씌우고 그 속에서 결사대 4, 5명을 넣어 성에 접근시켜 성벽의 큰 돌을 쇠꼬챙이와 쇠지렛대를 써서 뽑아 냈다. 그와 함께 갑자기 내린 큰 비는 설상 가상으로 성의 서북문 쪽과 동문 쪽을 허물어트렸고 그 허물어진 성벽을 넘어 적병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물밀듯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10만 대군을 맞아 칼과 창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육탄으로 맞섰지만,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 병사들은 지휘소가 있는 남장대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화살도 다 하고 창과 칼의 날도 떨어져 없어지고 믿었던 원병도 오지 않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명예로운 죽음 뿐이라고 각오한 최경희 병사는 쇠등재에서 노획한 청산백운도와 언월도, 그리고 피로 물들여진 관복을 조카 최홍우에게 넘겨주며 중형 최경장에게 전달하여 자기의 못다한 유업을 이어받아 기병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다.

축석루 위에서 삼장사(三壯士)는
술 한 잔을 들고 웃으며 가르키노라
남장수가 도도히 흘러가노니
저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혼도 죽지 아니하리

라고 시 한 수를 읊은 다음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향하여 사배를 한 뒤 관인을 지닌 채 김천일, 고종후와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을 하였다.

그 뒤를 따라 남은 장병들이 투신하였고 성내의 주민들도 대부분 이 길을 택하였다. 왜적은 남은 성내 주민들을 잡아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러 몰살하고 약탈과 폭행과 살육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이 난리 중에 살아 남은 사람은 그 수가 몇 되지 않았다.

왜군은 이 전투에서 훈련되지 않은 6천여 명의 의병이 지키는 성 한 개를 10만 대군이 10여 일이나 악전 고투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겨우 함락시켰으니 많은 성이 있는 호남지방을 침공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국의 호남 침공 명령을 무시한 채 진주성을 함락시킨 지 10여 일 만에 부산 방면으로 철수를 해버렸다.

논개는 6월 29일 새벽에 비 내리는 그믐밤의 어두움을 이용하여 성을 빠져나와 먼저 머물렀던 의곡사 부락에 다달아 은신을 하였다. 그 뒤 진주성이 함락되고 성내의 모든 병사와 주민이 몰살되었으며 그리던 최경희 병사도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논개는 북받치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어 마음이 산란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기만 하였다. 정신을 가다듬은 논개는 조국을 구하고 낭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몸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때마침 왜적들은 7월 7석 날에 승전의 잔치를 축석루에서 열 것을 계획하고 기생과 술을

징발하게 되었다. 논개는 원수를 갚을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고 '진주 기생 논개'라고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입성을 하였다.

이날 축석루 승전연에는 왜적의 부장들이 주안상 둘레에 앉아 기생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징발한 도래소주에 취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주홍은 더해가기만 하였다. 이 때 논개는 자리를 빠져 나와 축석루 뒤에 있는 지금의 지수문(指水門) 자리에서 생순한 얇은 남색의 은조사 치마자락을 바람에 훑날리며 시흥도 도도하게 순국을 다지는 애절한 시를 읊어 왜장을 유인했다.

초강의 어부들아 고기 잡아 삶지마라
굴원의 혼이 고기 뱃속에 들었으니
아무리 삶은들 익을 줄 아느냐

이 때 일본 규수부젠[九州豊前] 출신의 가또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장(副將)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란 젊은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답고 청순한 논개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논개는 게야무라를 가또오 기요마사인줄 착각하고 싱긋 웃으며 아양과 교태로 이를 축석루 아래 벼랑 밑에 반반한 바위 위까지 춤을 추면서 유인했다.

옥색 깨끼저고리에 은은히 비쳐오는 생선같은 흰 팔로 게야

무라의 옆구리를 낀 논개는 반반한 바위 위에서 춤을 추며 게야무라가 아찔해질 정도로 매혹시켰다. 이 때 남강은 장마로 물이 불어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으며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짙어가는 석양이었다. 논개는 낭군의 원수, 조국의 원수를 자기가 죽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게야무라의 허리를 강하게 나꾸어 찬 다음 도도히 흐르는 남강물에 적장을 꺼 안은 채 몸을 던짐으로써 애국 충절을 남강물에 깊이 심었다. 이 때 논개는 갓 스물의 꽃봉오리였다.

장미 향기 짙다한들 임보다 향기롭까
옥빛이 곱다하되 임보다 고울소냐
향기롭고 고운 마음 무명지를 자르셨네
논개님의 높은 효성 만고에 거울일세

송죽의 곧은 절개 임보다 곧을손가
불 붙는 정열인들 임보다 매울소냐
임 향한 일편단심 순절을 바치셨네
논개님의 곧은 정절 억만년에 빛이 되네

더운 피가 붉다하되 임보다 진할손가
진주 남강 푸른 물결 임보다 푸를소냐
조국 향한 우국단충 원수 왜장 수장했네
논개님의 애국충정 겨레에 불 밝혔네.

이제 겨레의 꽃은 갔지만 그 애국심은 정유재란과 을사보호 조약에 반대하고 분연히 일어난 의병정신의 근본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혈맥속에 생생하게 살아 국난 극복의 응어리가 되어 있다.

진주 싸움에서 살아 남은 장수 출신 의병들은 논개와 최경희 병사의 시체를 수습하여 사흘 밤을 꼬박 새워 옛날의 호남가는 길초인 삼남대로 옆 주씨 문중이 살고 있는 함양군 서상면 방지부락 옆 산에 안장을 했다.

주씨 문중에서는 아무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충렬녀(忠烈女)라 할지라도 남의 소실이었다는 거와 과거 기녀(妓女)로 가장했다는 부끄럼 때문에 대대로 문중 비밀로 하여 묘의 내력을 숨겨 왔었다.

논개 순절한 지 120여 년 뒤인 1716년에 유림들의 진정에 의하여 예문관(藝文館)으로부터 의암(義巖)이라는 아호가 내려지고 진주사당에도 사액(賜額)되었으며 나라에서는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왜적을 수몰시켜 천추(千秋)의 한(恨)을 푼 바위는 의암(義巖)이라 불려지고 그 자리에는 논개의 충열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으며 출생지인 이 곳 장수에는 1846년 당시의 현감 정주석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대의(大義)를 위해 죽음을 찾으니 그 늠연한 열기는 해와 별 같이 빛난다’

고 찬양하여 장수 입구에 추모비를 세웠다. 그 후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장수에 주재한 일본 헌병이 이 비석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챈 젊은이들은 밤을 지새워 10리 밖에 있는 천천면 장관리까지 운반하여 밭에 묻어 갈아서 숨겨버렸다.

애국 선열의 줄기찬 항일 투쟁의 보람으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 강토가 해방되자 이 추모비를 다시 캐내어 비각을 세우고 논개의 영정을 모신 의암사(義巖祠)가 장수 남산에 세워졌다. 그 당시 함태영(咸台永) 부통령께서는 '의암사'라고 쓴 친필 액자를 하사하였으며 장수 군민들은 '논개님'이라고 존대하고 논개의 생일 9월 3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애국 충렬을 기리기 위한 제 행사를 하고 있다.

임진의 국난을 당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환갑이 지난 노인으로부터 젊은이, 그리고 여염집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모두 칼과 낫·괘이를 들고 일어섰던 의병정신(義兵精神)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차례의 국난을 겪으면서 단련하여 축적된 국난 극복의 민족혼의 발로가 되었다.

우리는 이 논개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총화 단결함으로써 우리 강토를 넘보는 무리들이 한 발자국도 내 땅을 던지 못하게 내 땅과 내 생명을 지키고 분열된 내 조국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붉은 버릿줄

논개는 한 목숨을 쇠털같이 바치어 삼강(三綱)을 실천한 전무 후무한 충·효·열의 겨레의 여신이며 거사 후 120여 년 뒤 유림들의 장계에 의하여 예문관으로부터 의암이라는 아호가 내려지고 진주 사당에는 사액되어 정문을 세우고 나라에서는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장수 의암사(義巖祠)에는 함태영(咸台永) 부통령께서 의암사라는 친필 사액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논개의 거룩하신 순국이 오늘 날까지 정사나 야사에도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로운 고향으로 저승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비운을 생각할 때 뜻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역사적으로 규명하여 정립된 사적에 의하여 정사에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며 고향으로 헤매고 있는 논개의 넋을 진혼 위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의 가치 척도가 철저하게 유교사상에 기준을 두고 있었으며 반상제도(班常制度)에 입각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풍조와 또한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폐단이 팽배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목숨을 바친 거사였음에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와 무시를 당하고 의

식적으로 희석 매장하여 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상은 종적인 윤리 가치관으로서 모든 세상의 주도권은 오로지 양반 계층에 속하여 있었으며 일반 상민이나 노비 계층은 생사의 권리마저도 그들의 손에 의하여 좌지 우지되는 비참한 입장인 것이었다. 또한 남녀의 성 차별에 있어서도 여자는 남자에 예속되어 여자의 인권이나 존재 가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자에게는 이름마저 부여하지 않아 태어나면서 적당하게 마음 내키는대로 '성녀'이니 '쪽간이'니 '막내' 따위로 천하게 불러주었고 아예 그마저 출가를 하게 되면은 상실되고 출생지 마을 이름을 붙이어 '○○댁'이라는 택호로 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이 아니고 벼슬아치들의 횡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수령 백관들의 권한 또한 막강한 것으로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한 손에 틀어 잡고 있었으니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렵고 거창한 존재였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하에서 불행하게도 논개는 여자의 신분에도 빈 말이라도 남의 집 민며느리가 되었는데다 기구한 인연에 의하여 남의 첩이 되었고 거기에 말년에 구국의 비장한 거사였지만 기생으로 가장하여 주연에 참석, 왜적의 남정네와 어울어져 노래와 춤을 추다 왜장을 유혹 품에, 끌어 안고 순절을 하였으니 충·효·열의 단심에 거룩한 죽음은 제쳐

두고 사대주의에 빠뜨려진 양반네들의 입장이나 남정네의 눈에나 벼슬아치들의 자리에서 볼 때에 그 깊은 속사정은 모르고 요사스럽고 간사하고 망척하고 치사한 계집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논개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으로 흘러 아무도 챙기는 이, 돌아보는 이 없이 오히려 이를 추켜세움으로써 멸시과 천시를 당하는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 숨겨져 내려왔던 것이다. 심지어 주씨 문중에서마저 경망하고 요사스런 계집년이 뭐 잘난 체 경거망동을 하여 문중 망신까지 시켰냐며 입을 다물고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삼백여 년 동안 정사나 야사나 기록이나 구전에서마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다만 인본주의에 입각한 우국지사나 묵객들에 의하여 그 죽음이 너무 애석하고 원통해서 몇 편의 시와 문헌으로 그 흔적만 남겨 놓았으며 그 대표적인 문헌 몇 편을 살펴보면

논개 거사 순국 129년 후 진주 남강가 논개지문에 세워진 '의암사적 비명'에는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야담에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 그 때는 만력(萬曆) 기사년에 김천일 등 창의 장수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항쟁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개는 치장 성복하고 축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려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나아가 왜장을 끌어 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임진란에 관기의 몸으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자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어찌 논개 하나에 그치랴. 다 그 이름을 잊었으니 저 관기들을 음란한 창녀라고 하여 정렬이라 칭송함이 옳지 않다고 하나 죽음에 가기를 옛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니 썩지 아니 하였고 적에게 맘을 뺏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성스럽게 되어가는 중의 하나이다. 참기 어려우나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적을 따르지 않는 것도 타의 아닌 충이니 그 기특함과 슬픔이다.

이 글은 당시 실록에서 발췌하였으니 오늘의 비석에 새긴 말 가운데 중첩됨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대로 새겨서 이어간다.

그 바위 홀로 섰고 (獨峭其岩)

그 여자 우뚝 섰네 (特立其女)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女非斯岩)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焉得死所)

바위가 이 여자 아니면 (岩非斯女)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焉帶義聲)

한 강의 외로운 바위가 (一江孤岩)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萬古芳名)

승정 기원 후 95년 임인 4월 일입

〈서기 1722년 (경종 2년)〉

논개 순국 253년 후 장수 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의암사 경
내에 세운

축석 의기 생장향 수명비 (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문은

광풍이 몰아쳐 천만 가지 물건이 섞이어 대오를 가릴 수 없
듯이 전쟁으로 인해 흐트러진 질서를 영웅 열사라도 어찌할
수 없는데 연약한 여자가 큰 뜻을 분별하고 죽음을 맞이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듯 가볍게 하였으니 어찌 열이라 아니할 것
이냐.

거사 당일을 생각하여 보니 서릿발 같이 차고 고추같이 매
운 그 기개가 하늘에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어찌 장하다고 아
니하랴.

산에는 영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 좋은 샘이 있으니 군
자도 칭송하는데 하물며 평인으로서야 칭송을 안할손가. 절개
는 본래 타고난 천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육십 평생이 되었으니 썩은 선비라 오히려 부끄럽구나.

언제나 '의', '열'의 큰 공을 세운 이 여인에게 고운 옷을 입듯 공경심이 생기고 항상 감개무량하여 이제 수명비를 세워서 후세에 전하고 남은 여생을 순한 바람이 불어가듯 그 정신에 따라 살 것을 원하며 조심스럽게 글을 써서 새긴다.

송전기원 네번째 병오년 구월 상순
현감 서원 정주석 조심스럽게 비문을
짓고 아들 기영이 비문을 씀.

비 유사 밀성 박씨 길인 제작

호남지(湖南誌) 충의장(忠義章) 기록에는

장수 논개는 장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으며 성이 함락되고 최공이 순절을 하자 적군이 축석루에서 잔치를 하자 나아가서 그들을 환영하는 듯하고 적장이 대취하여 혼미한 틈을 타서 그를 끌어 안고 축석루 아래 남강에 떨어져 순절하니 사당을 세우고 명정을 내리어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한말의 학자 문충공(文忠公) 송병선(宋秉璿)이 기록한 동감강목(東鑑綱目) 제18장하 기사장에

왜군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복수장, 고종후 등 제장이 순절하고 충청병사 황진 목사 장윤도 함께 전사하니 최경회의 애첩 논개는 왜장을 안고 남강에 죽으니 충과 열을 다한 여자이다.

로 기록되어 있다.

기타 호남 절의록, 호남 삼강록, 대동기문, 장수지, 청구야담, 일휴당실기 등의 기록들이 있으나 내용이 대동 소이함으로 약하기로 하고

다음은 목객 시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읊은 시를 살펴보면

정식(鄭 枳 (1664~1719) 선생의 시는

경치가 좋기로 남쪽에서 제일일세
의랑의 남긴 흔적이 물가에 남았구나

천년의 슬픔맺힌 원한 강물도 흐느끼고
만고에 고운 이름 석상에 머물었네

고요하고 고요한 외로운 성 구름 속에 잠겨 있고
쓸쓸히 지는 낙엽은 가을 달 속에 잠겨 있다.

바람이 흔들리도 이 마음 아프고
옛 가락 아물아물 강머리에 눈물짓네.

이 시는 의랑의 죽음에 대한 참 인간성을 끝없이 흐르는 강물, 쓸쓸히 지는 낙엽, 대 자연의 생멸의 현상도 모두가 의암의 꽃다운 청춘의 죽음을 애절하게 읊은 한 맺힌 시이다.

한말의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黃玹) 선생은

풍천어구에 물마저 향기롭구나
나 여기 세수하고 의랑에게 절하노니

연약한 몸으로 능히 죽일 위엄이 있었던가
어차피 죽을 자리 이런 일을 결행케 되었네

장계 노인네들 고향 사람이라 자랑하고
축석 단청은 나라의 슬픔을 제사 지낸다
돌이켜 생각하니 인물도 많았는데
오히려 천추 기적에 찬란이 빛나리라

라고 시를 읊고 논개의 우국 단충을 찬양하고 기적에 기록된 애석한 이름은 천만년에 빛날 것이다 라고 우국지사가 의암의 충성에 감복하여 읊은 시이다.

다음은 수주(樹洲) 변영로 시인의 ‘논개’를 음미해 보자.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답던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라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한 여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고귀하고 애절하게 상징적으로 읊은 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시를 읊노라면 갓 피어난 아릿다운 논개의 원한에 맺힌 환상적인 환영이 남강을 붉게 물들이고 출렁이며 되살아나는 느낌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과 자취가 확연하면서도 챙기는 이, 살피는 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더 심각한 문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한 국치를 당하여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대동아 공영과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민족혼 말살의 만행을 저지르며 장수에 세워진 논개 생장향 수명비의 파괴 계획을 사전에 알아챈 애국 청년들이 재빠르게 먼 곳까지 운반, 숨겨서 수난을 면하였다.

이에 격분한 일경들은 그 양값음으로 장계면 주촌마을에 있는 논개의 선조 묘를 파괴하고 묘비마저 부수어 팽개치는 등 만행이 극단에 이르러 실가닥처럼 이어오던 논개의 역사적인 사실은 더욱 사람들의 기억이나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어져 기록한 죽음은 다시 죽음의 허망한 증발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끈질긴 호국선열들의 민족혼과 논개의 죽음보다 더 깊은 순국정신에 의하여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하마터면 한 아녀자의 죽음보다 더 깊은 충렬의 붉은 마음이 지상에서 지워질 뻔한 찰나에 간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땅에 묻히어 피난을 했던 생장향 수명비가 1945년 8월 20일에 발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1954년에는 장수읍 남산에 8만 장수 군민의 한결같은 뜻에 의하여 의암사가 건립되고 영정도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논개의 거룩한 행적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며 다시 의암사 성역화 문제가 거론되면서 1973년에 의암사 성역화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전 추진계획도 수립

되었다.

정부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1974년 11월에 현 위치인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8,566평을 다듬어 사당을 이전, 건립하고 도로변에 있던 수명비도 경내로 이건하고 외삼문, 내삼문을 세우고 기념관과 관리사무소까지 세우게 되었다. 사당 둘레에는 군민들의 헌수운동으로 일만 그루 기념 식수를 하고 명실공히 손색없는 성역화 사업의 마무리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사당을 이전, 건립, 성역화가 되었으나 그 뿌리가 되는 출생지인 주촌의 생가 터가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고 그 자리에는 몰지각하게도 주촌초등학교 교실이 들어서 있는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뿐만이 아니고 논개 생애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얻어 들은 것으로 '양가집 규수이다.' 또는 '이기이다.' '관기였다.' 라는 등 분분하게 헛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논개 사적을 과거의 실증기록에 기초하고 그리고 희미하나마 전해 내려온 구전에 의한 사실을 토대로 사적이 일관성있게 정립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970년 초에 장수읍지, 동감강목, 임진전란사, 호남절의록, 삼강록, 청구야담, 대동기문, 민족문학대계, 한국인물전집 등 각종 문헌을 수집 조사하여 1972년에 '장수절개'라는 책이름으로 논개 사적을 가문, 출생, 작명, 효성, 생애, 임진왜란과 거사, 순국 등 구체적으로 분석, 서술, 발행하여 논개의 사적을 일차적으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논개의 뿌리가 되는 생가를 복원 성역화 해야겠다는 절실한 요청으로 1980년에는 범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결심으로 주촌초등학교 교감으로 전임을 하였다.

당시 주촌학교 현황은 논개 생가터에 학교가 세워진 지 25년, 졸업횟수 17회에 졸업생 수 422명, 전교 학급 수 6학급, 학생 수 154명의 소규모 벽지형 급식학교였다.

논개의 생가 복원과 성역화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성지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수선한 학교 환경정비를 위하여 교육청의 지원과 지방민들의 협조를 얻어 그해 3월 29일에 3백평 남짓한 운동장을 일천평으로 확장을 하기 위하여 대형 불도저를 동원하여 일주일 동안을 정지 작업을 했다. 모래, 자갈 20트럭, 시멘트 300포, 공사 연인원 700여명이 동원이 되어 6개월여만에 외곽 정비 공사가 끝이 났다.

논개 생가터에 세워진 교실 복도에는 논개의 대형 영정을 모시고 각종 관계된 자료 사진을 수집, 정리를 하여 생가 영정관을 꾸몄다. 그리고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논개 동상을 조각하여 교정에 세우고 성대한 제막식도 거행하였다. 또한 논개가 마시고 자란 학교 옆에 있는 샘물을 정비하고 왜경들이 파괴란 선조 묘비 조각도 발굴, 정비를 하여 자세한 안내판을 세워서 얼 계승의 산 교육장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가 복원의 절실하고도 중요성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 중앙 및 지방지, 방송 등에 보도를 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 뜻있는 역사학자나 교수, 문인작가, 저명인사들이 수없이 사실 규명차 생가 현지를 찾아 들었다.

1981년에는 KBS 전국일주에서 이 사실이 방영되면서 당시의 대통령께서 직접 이 내용을 보시고 논개의 고증을 밝히려는 지시를 받고 필자는 두 번이나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생가 복원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수차에 걸쳐 정부에 건의가 되며 상부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차적으로 국도에서 주촌까지 도로 확장 포장을 하고 생장비각 개축을 하고 단청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생가터에는 문공부에서 생가 유희비를 세우게 하였다. 정부에서도 생가 복원의 절실함을 느끼고 드디어 1987년에 현 위치에 생가를 복원, 건립하고 관리인 가옥도 세우고 동상, 생장지 비각, 유희비도 한 곳으로 모아 생가 복원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1981년 전북교육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주논개와 임진란'이라는 국난극복 영상 교육자료안을 제작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으며 당국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수만 부를 제작하여 전국 교육기관에 배부, 활용하게 하였다. 필자 역시 본 자료를 이용 각종 모임에 자청 타청에 의하여 백여 회에 걸친 교육과 강의를 통하여 열 계승과 사적 정립이 되게 하였다.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하여 명상 자료집을 발간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약사 팜프렛 일만여 부를 만들어 생가지를 찾는 이마다 배부하여 논개 일이 심화되게 하였다.

이어서 현재까지 연구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겨레의 여신 주논개'라는 소설을 엮어 발행을 하였다. 이제 논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군민의 날로 개최하고 있는 논개제전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매년 성대하게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된 사료와 자료에 의하여 각 예술분야에서 논개를 상징하는 특징있는 문화 예술 행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논개사를 주제로 한 오페라와 판소리로 엮어져서 국악의 분야로도 일반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암 교육원도 꼭 세워져서 도덕적 타락으로 파괴되어 가는 국민의식을 바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정사에도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학생 교과서에 교재로 채택되어 논개의 죽음보다 더 깊은 버릿줄이 만고에 길이 빛나 국민정신의 바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옛 생가터에 세워졌던 논개 동상

진주성 싸움과 논개의 순국
논개는 누구십니까?
단독 거사의 단충의 의미

불사조(不死鳥)로 살아 숨쉬는 의암

진주성 싸움과 논개의 순국

우리 나라는 지난 오천 년 동안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끈질기게도 버티어 살아 왔다.

개국 이래 931번의 외침을 당했지만 그 어떤 대국도 우리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없었다.

중공의 수상 주은래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맛있는 고기와 같아 누구나 탐을 내지만 그 고기가 너무나 크고 질겨 아무도 끝까지 씹을 수는 없다.”

마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다. 1944년에 발표한 미국의 국방백서에는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고, 중국의 머

리를 내리치는 함마와도 같다.’

라는 말이 들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운명’을 이야기해 왔다.

대륙과 바다를 잇는 통로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패자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적당한 힘을 갖추기 전까지는 감히 우리의 바닷가를 범접하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예를 갖추어 가르침을 청하고 우리의 문물을 수입해 가는 왜족들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왜소하기만 했던 일본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막부에 무공을 세워 부장으로 출세를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주인이 죽은 후에 대정대신이 되면서 힘을 얻어 해외 침략의 야심을 품고 조선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가또 기요 마사[加藤清正] 등을 시켜 15만 대군을 파병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니 이 왜란이 우리 나라 유사 이래 가장 큰 수난을 당한 외침인 것이다.

왜군들은 조총이란 신무기를 가지고 파죽지세로 밀물처럼 밀려 들었으며 이에 견디지 못하여 선조 임금께서는 궁을 비우고 의주에까지 피신을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운은 풍전 등화처럼 아슬아슬한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임진왜란의 사 충신인(고경명, 곽재우, 김천일, 조헌) 의병장이 목숨을 걸고 사수한 호남지방만 점령을 못하고 마지막 우리의 숨통을 자르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군이 호남을 침입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호남의 관문인 금산을 통하여 침입하려다 고경명, 조헌, 황진 의병장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쳐 대패를 당하여 실패를 하고 이차적으로 진주성을 무너트리고 침입을 시도했으나 김천일 의병장,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의 치열한 항쟁으로 실패하고 사기가 꺾이어 방황하고 있을 때 풍신수길의 성화같은 독전 명령에 왜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십만 대군을 일시에 진주성 공략에 집결을 시키어 선조 26년(1593) 6월 21일부터 일제히 이차 침공을 시작하여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호남지방 침공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때에 전라 창의사 김천일(金千鎰), 복수대장 고종후(高從厚), 경상절도사 최경회(崔慶會), 충청병사 황진(黃進) 장수 등이 진주 성안 칠만여 군관민을 총 동원하여 십일간의 대항 사투를 하였으나 계속 내리는 장마비에 신무기인 조총과 중과부적으로 결국은 성이 무너지며 왜군이 물밀듯이 성안으로 침입하여 불행하게도 계사년 6월 29일 성이 함락당하고 왜군의 만행은 극에 이르러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성을 함락시킨 왜군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마지막 호남을 침공하면 조선은 완전히 왜군의 손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병은 사기를 재 정비하기 위하여 칠월 칠석날 축

석루에서 승전연을 열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순한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죽음이 자발적이었던지 아니면 타율적이었던지 간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당시 그 많은 죽음 가운데에서 특히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해전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진주성 싸움에서 왜장을 꺼안고 죽은 논개의 죽음일 것이다. 이 두 죽음은 임란을 당하여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바다에서 전라좌수사 구국의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수천 명으로 밀려오는 왜 수군의 함선 60여 척을 한꺼번에 침몰시킴으로써 왜 수군의 전의를 잃게 하였으며,

육지에서는 난공불락의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전의를 가다듬어 호남지방 침공의 결정적 순간에 진주성 함락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왜군 속에서도 싸움 잘하고 사납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선공장 모곡촌 육조(毛谷村六助)를 아무도 몰래 홀홀 단신으로 죽이기를 결심하고 결행한 겨레의 여신 주논개의 거룩한 죽음인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논개의 거룩한 거사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이 되는 주요한 대목은 성이 무너진 사면초가와 같은 적진 속에서 6만여 병사와 성민이 죽음을 당한 현장에서 가녀린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나라의 원수,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기꺼이 던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겨레의 원수였던 왜장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억만년으로 그녀의 거룩한 죽음을 기리는 것이다.

계사년 칠월 칠석날 축석루에서 승전에 도취한 승전연에서 아리뭇고 가냘프기만 했던 한 여인에 의하여 왜군의 가장 용맹한 선봉장을 잃어버린 왜군은 사기가 꺾기어 전의를 잃어버린 데다 이차 진주성을 지키는 장수들이 한결같이 호남 출신 장수이므로 호남 지방민의 투철한 호국정신에 미리 겁을 먹고 호남지방 침공을 포기하고 부산진으로 병력을 후퇴시키고 임진왜란이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는 세상에 논개의 거룩한 거사에 대하여 나이 어린 어여쁜 기생이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짐작되는 대로 소문만이 파다하게 퍼져 나갔으며 논개에 대한 출생, 신분, 거사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향 장수에서 수백리 밖인 진주에서는 훌훌 단신 진주성 싸움에 참전한 십여일 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 그 깊은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으며, 다만 왜장을 껴안고 죽어간 논개의 영혼과 이를 소리없이 받아들인 진주 남강 물결만이 짐작했을 것이다.

논개는 누구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개는 어디에서 출생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왜장을 껴안고 죽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다 논개의 생애를 최초로 기록한 것은 조선 후기 순조 즉위년(1800)에 편간한 호남 절의록에 '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희가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라고 쓰여 있다. 이어서 헌종 5년(1839)에 편간한 호남 삼강록에서는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 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위의 두 기록에서 겨우 논개가 장수 태생이라는 것이 거사 후 200여 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그러면서 최경희와의 관계가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병사로 부임하게 되자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하며 논개의 충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장수현에서 그녀의 생장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현종 12년(1846)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 수명비'를 당시 장수 현감이던 정주석이 세움으로써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옮겨 보면,

국난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로

서 대의를 판단하여 죽음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하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한가, 산에는 영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 좋은 샘이 있으니 군자도 칭송하는데 하물며 평인으로서야 칭송을 안할 손가. 절개는 본래 타고난 천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육십 평생이 되었으니 썩은 선비라 오히려 부끄럽구나.

언제나 '의' '열'의 큰 공을 세운 이 여인에게 고은 옷을 입듯 공경심이 생기고 감개무량하여 이제 수명비를 세워서 후세에 전하고 남은 여생을 순한 바람이 불어가듯 그 정신에 따라 살 것을 원하며 조심스럽게 글을 써서 새긴다.

이 비문을 통하여 '의렬'을 실천한 순국 열사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 문헌의 기록에 최경희와 논개의 관계에 있어 연대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곧 논개가 장수현의 관기로 있을 때 현감 최경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경희가 경상우병사로 되자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정주는 최경희가 장수현감으로 있을 때 서로 알게 되어 백년간약을 맹세하였으며 왜란이 일어나자 부군과 함께 진주성에 들어갔다 라고 하였다.

한편 배호길은 최경희가 장수현감이 되고 난 후 바로 다음 해에 17세의 논개를 부실로 맞았으며 선조 24년에 경상우병사가 되자 그녀도 함께 진주로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비석은 최경희가 선조 19년(1586) 장수현감이었고 선조 24년(1591)에 18세의 논개를 부실로 삼았으며 왜란이 일어난 뒤 경상우병사로 임명될 때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선조왕조실록>이나 송병선이 지은 <병사 증좌찬성 충의공 경희 신도비명> 등의 자료에는 최경희의 장수현감 해임기와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시기 사이에는 15년간이란 시차가 있어 최경희와 논개의 사이에 얽힌 사연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적절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다음으로는 논개의 이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자. 계사년 진주성 함락시에 관기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은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구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후세에 객관적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당시 서적의 기록이나 금석문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히 논개의 순국한 사실을 오늘날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빙성 있는 사료가 남아 있다. 그 기록으로는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이며 또 하나는 논개의 순국한 현장 바위에 전 자체로 새겨진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이다.

어우야담의 창기편 권수 효열편에 류몽인이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기록이다.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계사년에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축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밑은 깊은 강물이었다. 왜병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으나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장 하나가 당당하게 앞으로 내달았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이를 맞이하니 왜장이 그녀를 피려고 했는데, 논개는 드디어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이 기록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책으로 전한 최초의 기록이며 진실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

첫째는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에 류몽인이 무군사의 관원이 되어 왕세자를 따라 삼남으로 내려가서 선조 26년(1593) 11월에 진주에 이르러 죽은 이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가족에게 미태를 지급하면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찾아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사실적인 현장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광해군 9년(1617)에 발간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작성할 때 논란

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기록에는 임란 중의 충신, 효자, 열녀를 채록케 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 각 지방에서는 관인이나 일반 백성 및 공사노비를 막론하고 충, 효, 열이 현저한 자를 일일이 보고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논개뿐만 아니라 관기로서 순절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기는 한 사람도 수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논개마저도 누락시켜 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면서 그 발문을 썼던 류몽인은 어우야담에 논개의 순국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관기로서 왜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이 한 논개뿐만이 아니었으나 그 이름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라고 해서 정열 칭함이 불가하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왕의 덕화를 입을 인물이라 하겠거니와 또 끝내 나라를 등지거나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것이 충성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이 기록을 살펴볼 때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발행청의 관료들이 결국 관기를 음탕한 여자로 해서 기록에서 누락시키고 기생으로 가장한 논개마저 기생으로 인정되어 누락되었음을

류몽인이 논개의 순국 사실을 예시하면서 당시 사대부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탄하였고 그녀들의 정열과 충성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어우야담에 기록된 논개의 순국 사실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기록된 시점이 임진왜란이 종전 후 직후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순국한 바위에 전자체로 '의암'이란 두 글자가 그녀의 순국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게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신빙성을 지닌다. 이 전자각의 내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그러나 일설에는 정대용(鄭大隆)의 글씨라고 전하여지고, 오두인(吳斗寅)이 쓴 의암기에서 살펴보면 정대용이 진주에 머문 것이 1625년경이므로 논개의 거사후 30여 년만에 새겨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와같은 '의암'이란 글자가 언제 새겨졌느냐는 것보다는 그 글자를 새기게 된 역사적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두인이 쓴 의암기의 첫머리를 살펴보면,

진양성 축석루 밑의 남강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를 건너 가려면 일 보밖 에 안되지만, 그 위에는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 곳이다. 계사년에 왜적이 내침하자 창의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민들의

거개가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 논개만은 왜적을 불공 대천지 원수로 여겨 순국키로 맹세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 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인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으나 위태로운 지세를 겁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왜인이 뛰어 건너가서 물으로 피어 내려 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까지 지으면서 맞아들인 뒤 그 왜인을 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후인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을 정표했다고 한다. 의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에서 말한 돌보다 단단한 절의이며, 시경에서 말한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의 한 창기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같이 대장부의 열렬한 사업처럼 처리함으로써 당시의 여염집 부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분발케 한 것이다. 마치 남국 부인들이 문왕의 인정에 감화되어 강한 땅의 풍속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고서야 어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오두인의 이 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사년 이후 진주의 시민들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확고한 사실로서 인식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열을 바위에 새겨 정표하려는 욕망을 가졌던 끝에 '의암'을 전각한 것이므로 인조 3년경에 새겨진 이

‘의암’이란 두 글자는 곧 계사년 논개의 순국 사실이 요약된 가장 소중한 금석문이다. 더욱이 오늘의 민주화 시대의 입장에서 재 평가하여 보면 만 백성이 논개의 의열을 높이 추앙된 정표이어서 더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계사년에 있었던 진주 논개의 순국 사실은 진주성민들의 목격담이 구전되는 한편 류몽인의 어우야담과 전자각 ‘의암’ 및 오두인의 ‘의암기’ 등의 기록과 금석문에 명기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에는 논개가 전부 진주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기록자들이 대부분 사족들로서 그녀 남편 최경회를 따라가 진주성 싸움에 가담하여 치열하게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남편마저 순국한 처지에 천애의 고립된 상태에서 기생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원수,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는 단독 결행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의열의 단심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다만 논개의 마지막 기생으로 가장한 그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도 않고 아는 이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기생으로만 전하여 내려왔을 뿐이다.

단독 거사의 단충의 의미

조선시대의 논개에 대한 평가는 논개의 순국을 알리는 입비, 급복, 건사치제(立碑, 給復, 建祠致祭)로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성리학의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에 남존여비, 관존민비, 반상(班常) 제도를 내세우던 분위기에서는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상전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논개에 대한 국가로부터 상전을 갈망해 오던 차에 경종 원년(1721) 2월에 경상우병사로 부임한 최진한은 이 해 10월에 논개의 포상 문제를 봉건왕조에 계청토록 했다.

이 때에 정식과 논개의 순국을 기리던 진주의 수십여 사인들은 전 병장 윤상보를 앞세워 장문을 우병영에 제출하였다.

축석루 아래의 남강에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가 붙은 것이 왜란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할 대의가 아니겠는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수신 수령 및 제장 등 혈전을 치르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한 뒤 오직 한 기생 논개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루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장 중 한 추장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논개는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 들었다. 그 바위
 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당하는
 그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
 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
 월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인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이라 하였고 사군자들이 또한 전
 자로 의암이란 호를 각하였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
 에는 당당한 절의지칭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의 항장 방선지가 다시 발란을 일으
 키자 선지에서 약취당해 있던 왕씨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가 그녀를 숭의부인
 (崇義夫人)에 봉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한 제신들은 건사사액하여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 간 임금에게 제청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들이 마음 속에 애석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에 감동
 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에 낱낱
 이 품달하여 처분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

여기에서 윤상보 등 진주의 사인들이 논개에게 베풀어지기

를 바랬던 포상사례는,

첫째로 당시의 왕씨 여인을 승의부인에 봉했듯이 논개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봉작을 바랐으며,

둘째는 계사년의 성 함락시에 전몰한 제신들과 같이 사당을 건립하고 또 왕의 사액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우병사 최진한의 상기한 첩보문을 받은 비변사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논개의 의열이 포상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경종(景宗)에게 계문하게 되었고 마침내 경종도 예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상우병영으로 발송한 비변사 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관기 논개가 난중에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하게 의거할 만한 문적이 없으니 보미의 증전을 가벼이 의논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의 본사에 논보한 뒤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비변사가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담긴 문적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에 따라 우병사 최진한은 진주 사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척이나 고심했던 것 같다. 그것은 이러한 비변사의 관문이 있는 직후에 공금과 사전을 공동으로 염출해서 「의암사적비」를 건립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 신빙성 있는 문적으로 어우야담이나 양곡집이

있었으나 모두가 필사본이라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병사 최진한이나 사민들은 결국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암사적비」를 건립하고 그 비문을 전사하여 보고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의암사적비명에는 서두에 류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린 논개의 순국 사실을 그대로 전재한 뒤 그 끝에다 다음의 명문을 붙이고 있다.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서 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롭단 소리를 듣겠는가? 이 남강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

이와 같이 「의암사적비」를 건립하고 류몽인이 쓴 어우야담의 사실까지 비문에 명기하였다. 이를 통해서 첫째는 임란중에 류몽인이 기록한 실록으로 인해 관청과 사림이 공히 사실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고, 둘째는 비변사가 요구하는 가거문서를 비문을 인출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금석에 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비를 건립한 뒤 우병사 최진한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이 신보하였다.

관기 논개의 사적은 고금의 관적 중에서는 의거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한 뒤부터 영남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의 자손이 없는 데다 족속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을 후대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의 사연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 이하 천만인이 공지하는 바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의(義)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의 글은 고인의 공의이니 의거한 문적이란 이보다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도 한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 변통하고 행하시어 영남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을 품게 한 폐단을 풀도록 하십시오.

이 우병영의 신보문에서도 역시 의암의 전각 사실과 류몽인의 야담기록이 사실임을 강조하였고 비변사가 요구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비문을 인출해서 제출했다. 특히 논개는 자손이 없고 족속도 적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논개의 포상과 신분 등이 밝혀지지 않게 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비변사가 같은 해 5월경에 하달한 「재관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포상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관기 논개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함으로써 의암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중에서 이러한 기절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을 심방한 뒤 특별히 급복하여 포의지전을 보이도록 하라.

진주지역 민과 수령들의 노력으로 조정에서도 이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사실로서 인식하였고 동시에 그에 관한 문적이나 금석문을 실록으로 인정하게 된 셈이다.

그 뒤 우병영이 비변사에 연보한 내용에는,

의기 논개의 자손 유무를 관문을 띄워 사문하였더니 지방 관들이 회보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고노인들을 찾아 물어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의 특전을 베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합니다.

라고 하여 급복의 특전은 유명무실한 포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비록 실현되지 않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논개의 죽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논개의 순국

사실이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포상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병영이 비변사에 연보하면서 관기 논개가 아닌 '의기 논개'로 썼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경종 원년(1721) 10월 경부터 2년 5월 경에 걸쳐 진주의 사민들과 우병사 최진한이 논개의 포상을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이 하나의 사실로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암 사적비'가 건립되었고 극복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의기'란 호칭이 공인된 셈이었다.

그러나 진주 사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논개에게 정부가 당의 승의부인 왕씨녀와 같은 봉작을 베풀거나 건사사액할 것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최진한이 계속하여 국왕에게 직접 이 문제를 소청하였으나 소청의 사실은 가상하나 신빙성이 약다하며 끝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영조 14년(1738) 12월 남덕하(南德夏)가 경상우병사로 부임하면서 논개의 포상을 계청하였으며 정조 22년(1798)에 우병사 안숙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형절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나 있다.

영조 16년(1740)에 본영 병사 남덕하가 또다시 의신의 증직과 의기의 증포를 계청하여 마침내 윤허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진주 시민들이 이때 남덕하에게 계청하도록 요구하고 또 윤허받았다는 것은 건사사액에 준하는 곧 의기

사(義妓祠)를 건립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령에 의하여 의기사를 건립했다면 '의기' 역시 사화에 준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임진왜란 당시 순국했던 논개의 거사에 대하여 그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민간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처리, 평가 되어 온 과정을 신빙성 있는 고증 문헌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홀홀 단신 수백리 길 사고무친의 객지에다 사면초가와 같은 패전 적진 속에서 살신성충의 맨살을 자르는 통증의 결심이 먼지털만큼이라도 누설되었다면 가루도 남지 못했을 상황에서 연약하고 가련한 여인으로 단독 결심, 단독 결행의 고독의 최상의 방법으로 미인계로서 기생으로 가장 적진 속에 깊이 들어가 적장을 유인, 육탄으로 수장을 시켜버린 애처로운 예지에 빛나게 했던 것이다.

아! 참으로 의롭고도 의롭고 거룩하고도 슬픈 일이로다.

거사 당시 의롭게 가신 논개에 대하여 기생으로 가장하였으므로 가능할 수 있었던 청사에 빛나는 일을, 기생이었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슬픈 사실로 묻히어 버리고 만 것이다.

당시의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에 남존여비이니 관존민비, 반상제도에 얽매인 봉건 관료들의 그릇된 인식으로서는 기녀로 가장하여 순국한 논개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

도 없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호국의 거룩한 죽음을 정사에서나 야사에서도 외면하고 애처로운 그 고향이 지하에서 지금까지 방황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도 뜻있는 이들로 하여금 논개의 죽음은 그 시대에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뜻있는 몇몇 분에 의하여 끈질기게 표창 상신에 의하여 남존여비라는 사회적 관념의 막강한 힘을 가진 중세 봉건 사회였지만 논개의 죽음에 대하여 비를 세우고 금복을 하고 건사치 제케 하였을 뿐 아니라 생향지에서도 몇 개의 수명비를 세우고 함태영 부통령이 사액한 의암사를 세우고 매년 논개제전을 베풀고 생가 복원을 하여 동상을 세우고 제사를 올리고 있으며 삼강을 실천한 거룩한 겨레 여신의 높으신 얼을 이어받기 위하여 온 국민이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류몽인, 어우야담(柳夢寅於宇野談)
2. 양곡 오두인, 의암기(陽谷 吳斗寅 義巖記)
3. 명암 정식, 의암기(明巖 鄭枳 義巖記)
4. 호남 절의록(湖南節義錄)
5. 호남 삼강록(湖南 三綱錄)
6. 다산 정약용, 의기사기(茶山 丁若鏞 義妓祠記)
7. 일휴당 최경회 실기(日休堂 崔慶會 實記)
8. 송병선, 동감강목(宋秉璿 東鑑綱目)
9. 장수읍지(長水邑誌)
10. 전북매일신문사간, 명문의 고향(全北每日新聞社刊 名門의 故鄉)
11. 전병순, 논개 민족문학대계(田炳淳 論介 民族文學大系)
12. 벽계승람(碧溪勝覽)
13. 삼절(三節)의 고장
14.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
15. 장수군지(長水郡誌)
16. 논개 사적연구 — 경성대학교편(論介事蹟研究 慶星大學 校編)

〈채록 금석문〉

1. 진주남강 — 의암(義巖)
2. 진주남강 —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
3. 장수 — 축석의기 생장향 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
4. 축석루 — 의랑논개비문(義娘論介碑文)
5. 장수 주촌 — 의암주논개랑 생장지 사적 불망비(義巖朱論
介娘生長事蹟不忘碑)
6. 장수 주촌 — 의암 주논개 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7. 장수 주촌 — 주논개 생가 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
8. 장수 주촌 —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려(義岩新安朱氏論介
之間)

「이애미」 주논개 <비매품>

인쇄 · 1997년 3월 1일

발행 · 1997년 3월 15일

지은이: 고 두 영

발행인: 김 진 영 장수문화원장

발행처: 신아출판사

560-081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가 251-30

TEL: (0652) 75-4000 · 252-5633

FAX: (0652) 74-3131

출판등록: 1984년 8월 17일 제28호

지은이 주소: 597-830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72-3

(0656) 352-0938

* 이 책은 국고 및 지방비 보조로 출판되었습니다.

新亞 現代選書

1	예술작품의 철학/사사키 겐이치/이기우 譯	값 7,000원
2	문학의 의미/W.Ray/임명진 譯	값 5,500원
3	민족음악학/Alan P.Merriam/최동현 譯	값 10,000원
4	춤의 본질/Roderyk. Lange/최동현 譯	값 6,000원
5	연극의 해부/Martin Esslin/김병선 譯	값 6,500원
6	기호론/J. Searle/유제호 譯	값 4,500원
7	판소리의 地平/이기우·최동현 外	값 7,000원
8	詩學序說/닛다 히로에/이기우 譯	값 4,500원
9	민족연극학/리차드 셰크너/김익두 譯	값 10,000원
10	민속음악/C. 브라로이유 외/이기우 譯	값 7,000원
11	포스트모던 문화/하버마스 외 4인/이기우 譯	값 8,500원
12	문학과 혁명(I)/류레/김충식 譯	값 10,000원
13	문학과 혁명(II)/류레/김충식 譯	값 10,000원
14	판소리 명창과 고수/최동현	값 10,000원

주논개

세월이 멀수록 더 다가서는
죽어서
죽지 않는
겨레의 가슴마다
뜨겁게 살아 숨쉬는 님의 이름
천도 만도 더 넘게
하얀 무궁화로 피어 납니다.

(中略)

의기인들 어떠하며
부실인들 어떠하리
아! —
미천하여 의롭게 죽어간 당신은
죽어서 활활 타오르는
구국의 여왕입니다.
구원의 여신입니다.

